

富平文化 白書

부평구문화재단 10주년 백서

2006-2016

富平文化

부평구문화재단 10주년 백서

白書

2006-2016

CONTENTS



- 1 목차 003-007
- 2 발간사 | 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부평구청장 홍미영
- 3 발간사 |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 일반현황** 008-015
- 1 연혁
- 2 데이터로 보는 부평구문화재단 성과
- 3 부평구문화재단 비전 및 추진전략

사업발자취와 성과 016-095

- 1 우수 콘텐츠 제공** 018
- 다양한 장르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우수공연시리즈
- 신년음악회
- 브런치 콘서트
- 청소년음악회
-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 콘서트
- 호박데이트
- 부평구문화사랑방
- 포럼연극
-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
- 우수기획전시



- 대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 부평아트센터 레퍼토리 제작공연
- 부평아트센터 야외축제
- 부평밴드페스티벌
-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 우리동네 문화마실
- 로비음악회 12시 15분

2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050

- 지역 예술 창작활성화 및 유통 기회 확대**
- 라이징 스타 신인음악회
- 부평영아티스트
- 부평작가열전
- 부평육선 화이트세일
- 부평예술축제
- 부평구립예술단 운영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 부평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 부평구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 생활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 부평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

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078

- 문화도시 부평 비전 창출**
-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 문화정책개발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부평문화포럼
-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

4 신뢰 받는 기관 경영 088

- 마케팅 홍보 시스템 강화**
- 정기간행물 '보다'
-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및 SNS
- 운영 효율성 극대화**
-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림
-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 시스템 고도화

03

특별좌담과 기고

096-171

- 1 지역과 상생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가능성
- 2 부평 문화생태계를 가꾸아가는 문화기관들의 노력
- 3 10년 차 원년멤버들이 말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초기 모습
- 4 부평 밀착형 전시프로젝트의 평가와 전망
- 5 문화도시 5인 5색,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미래상
- 6 부평구문화재단 문화교육의 발전방안
- 7 부평구문화재단 야외축제 평가와 향후 과제
- 8 열정으로 일궈낸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레퍼토리 공연



수탁운영기관

172-199

04

- 1 부평구립도서관
- 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3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공간 소개

200-207

05

- 1 부평아트센터
- 2 부평구문화사랑방
- 3 부평아트하우스
- 4 부평구립도서관
- 5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6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

208-233

- 1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
- 2 부평구여성합창단 회장
- 3 어린이 연극학교 예술강사
- 4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연출가
- 5 재단 등록 동아리 부평아리랑 회장
- 6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06



부록

234-285

- 1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2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정관
- 3 기구 및 조직현황
- 4 예산
- 5 발기인 명단
- 6 역대이사회
- 7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명단
- 8 재단 사업연혁

07

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부평구청장 **홍미영**

56만의 거대 자치구인 부평은 문화와 교육, 환경,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행복을 확대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은 오랫동안 구민의 염원이 담긴 비전이었으며, 풍요롭고 여유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부평구의 의지입니다.

2016년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부평구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입니다. 구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여러 문화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주요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왔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발간되는 부평구문화재단 백서는 재단과 부평의 주요 문화기관의 출범 배경부터 재단의 현황과 핵심 사업을 정리하여 그동안 이루어 온 부평 문화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짚어내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부평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더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에 기록된 사안들이 부평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문화정책을 수립하면서 음악도시 부평을 향한 착안사항을 발굴하는데 도움 되기 바랍니다.

본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노력하신 부평구문화재단 직원과 집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눈이 오던 2006년 12월 4일, 부평구문화재단이 조용히 출범했습니다. 척박한 부평의 문화 환경에서 해안을 가진 부평 문화예술계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선진적인 결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1개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된 지금 당시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습니다.

2013년 재단 2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2년 후에 재단, 아트센터, 문화사랑방이 재단 본부로 통합되었고 이후 2년이 흘러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의 비약기를 맞은 것은 통합 이후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부평 문화기관 설립을 위한 역할과 인사, 예산배분과 같은 행정 업무를 주로 하며 주력 사업 없이 운영된 문화재단이었습니다. 구 예산의 문제로 굴뚝한 주력 사업과 사업을 일궈나갈 인력이 없었던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시설 설립 이후에도 위·수탁으로 유지되며 직영시설 없이 운영되었지요.

조직탄생 10년을 크게 기념할 수도, 그렇다고 그동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2년차 신생조직이라고 여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쉬운 대로 그 과정을 정리하여 매듭을 짓습니다. 과거 10년의 발자취를 훑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를 삼고자 백서를 발간합니다. 부평의 문화적 토양을 다져온 2년간의 재단 본부 사업과 성과를 중심으로 담겨 재단이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관계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위주로 기술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공공영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며, 구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부평의 역사성, 정신성과 연계된 정체성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족적을 깊이 새겨 이를 토대로 훗날 부평음악·융합도시를 일궈낸 문화재단이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현신하겠습니다.

01

일반현황

1 연혁 2 데이터로 보는 부평구문화재단 성과 3 부평구문화재단 비전 및 추진전략

HISTORY

2005~2016

2005.03.21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2005.12.04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06.10.12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2006.12.04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등기

2006.12.18

부평역사박물관·부평기적의도
서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07.01.01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업무개시

2007.03.29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2008.0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광기념품 공모

2008.07.25

부평 삶의 문학상 공모

2009.01.21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2009.04.01

부평 삶의 문학상 공모

2009.06.25

부평아트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 체결

2010.02.02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광기념품 1차 공모

2010.04.02

부평아트센터 개관

2010.08.30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광기념품 2차 공모

2010.10.15

부평 삶의 문학상 공모

2010.02.02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광기념품 1차 공모

2010.04.02

부평아트센터 개관

2010.08.30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광기념품 2차 공모

2010.10.15

부평 삶의 문학상 공모

2011.05.02

부평구공공도서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1.07.14

부개어린이도서관 개관
갈산도서관 개관

2011.07.15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1.10.17

초대 이명숙 대표이사 취임

2011.10.19

한길안과 업무협약 체결

2011.11.23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개관

2011.12.29

부평구문화사랑방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2.05.07

삼산도서관 개관

2012.05.24

부평아트센터·인천국제
교류센터간 업무협약 체결

2012.05.30

부평아트센터·부평서중학교간
업무협약 체결

2012.09.05

전문예술법인 지정

2012.09.13

부개도서관 개관

2012.12.28

부평아트센터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4.01.24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간 업무
협약 체결

2014.07.16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및 문화
대학원간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체결

2014.11.28

부평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4.12.04

부평구 구립예술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구립여성
합창단·구립풍물단)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3.03.26

부평아트센터·심정뜨란재
아파트간 업무협약 체결

2013.04.12

청천도서관 개관

2013.06.30

부평역사박물관 위탁 종료

2013.07.18

제2대 박옥진 대표이사 취임

2013.08.01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3.08.09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3.12.31

부평구문화사랑방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015.01.01

조직통합(사무국·부평아트
센터·부평구문화사랑방)

2015.01.15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후원회 출범

2015.04.21

2016년 문화특화 지역조성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2015.06.10

부평자동차공업사간
업무협약 체결

2016.01.01

부평아트하우스 위탁 운영

2016.02.01

부평아트하우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2016.03.29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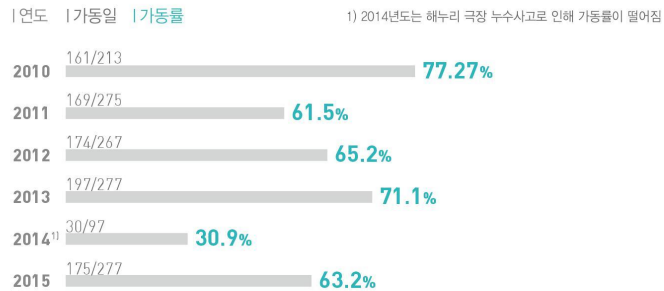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부평구문화재단 성과

부평아트센터,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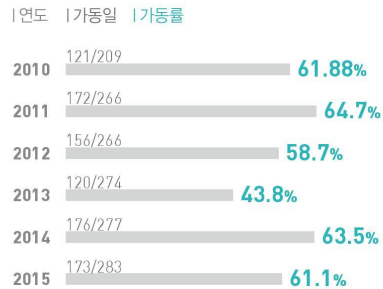
2010년 개관한 부평아트센터는 매년 전국 공연장 평균 가동률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을 포함한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친근하고 문턱 낮은 문화공간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 등을 기획·운영하여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달누리극장



갤러리 꽃누리



부평구문화사랑방

부평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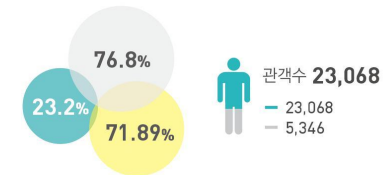
부개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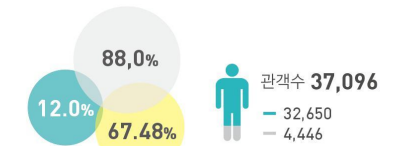
부평아트센터 객석 점유율

객석점유율 유료점유율 무료점유율 유료 관객 무료 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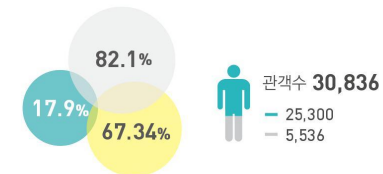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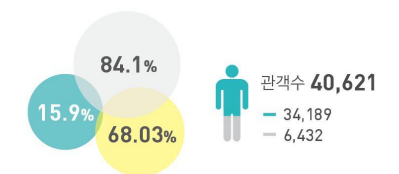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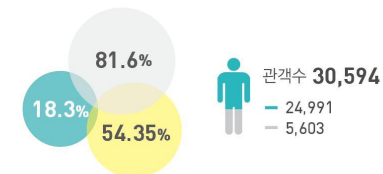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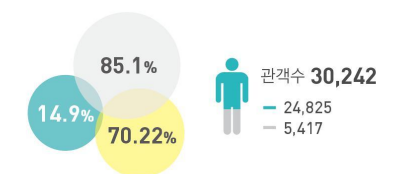
2013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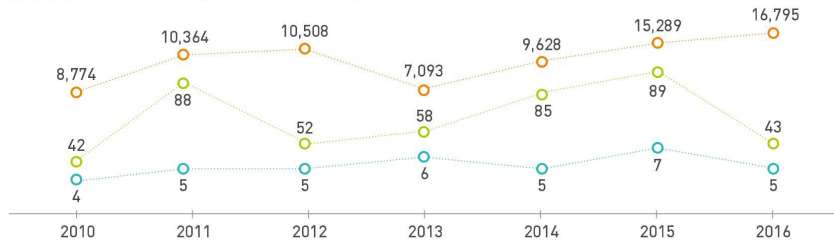
사업별 데이터

전체사업 | 2010~2016년 재단 사업건수 및 참가인원(공연, 전시, 축제 건수 및 인원) **392회 426,6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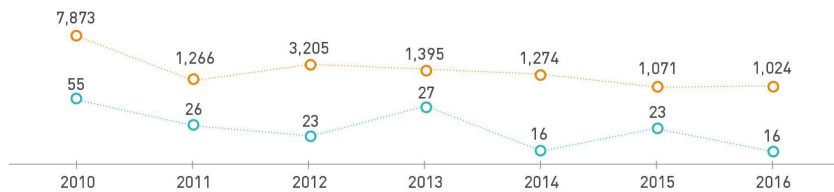
공연사업 | 2016년 9월 기준 ○ 기획공연수(회) : 209 ○ 관람객수(명) : 220,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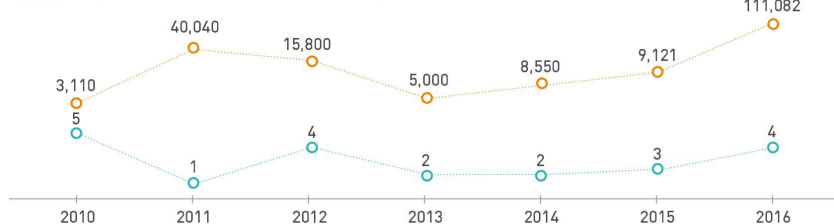
전시사업 | 2016년 9월 기준 ○ 기획공연수(회) : 37 ○ 관람객수(명) : 78,451 ○ 참여작가(명) : 457



문화교육사업 ○ 연도별 강좌수(회) : 125 ○ 연도별 수강인원(명) : 16,804



축제사업 ○ 연도별 축제수(회) : 21 ○ 연도별 참가인원(명) : 111,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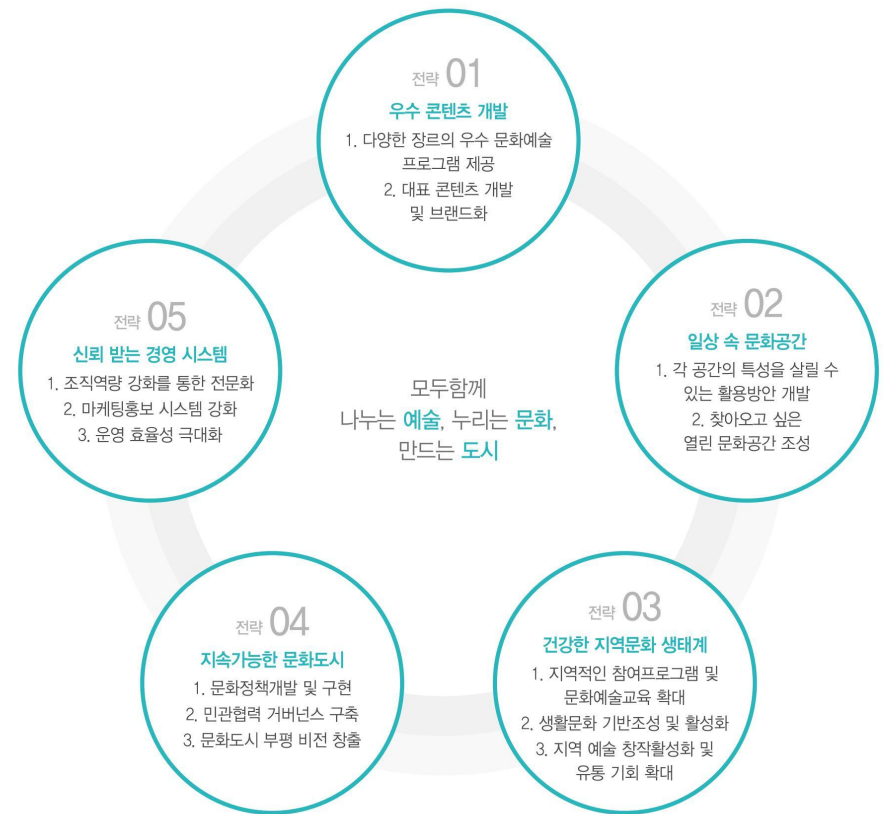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비전 및 추진전략

부평구문화재단은 예술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술은 모든 현실적 차이를 넘어 부평구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평의 문화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행복한 구민생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VISION 및 5대 전략



02

사업 발자취와 성과

1 우수 콘텐츠 제공 2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4 신뢰 받는 기관 경영



1 우수 콘텐츠 제공

다양한 장르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우수공연시리즈
신년음악회
브런치 콘서트
청소년음악회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 콘서트
호박데이트
부평구문화사랑방
포럼연극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
우수기획전시

우수공연 시리즈

세대와 장르를 아우른다



부평구문화재단 우수공연 시리즈는 지역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유명 아티스트와 예술 단체를 부평아트센터로 초청해 최고의 콘텐츠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민이 수준 높은 순수 공연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레, 연극, 클래식 등 질 높은 순수예술과 뮤지컬 등을 최소 연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클래식으로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적인 클래식까지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한국이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클래식계의 대표 스타 앙상블 디토,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한국 클래식 음악 무대의 성장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KBS 교향악단, 세계적인 카운트테너 안드레아 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의 거장 데이빗란츠와 유키구라모토, 떠오르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의 신예 윤한 콘서트까지 다채롭게 초청하였다.

연극으로는 한국적 정서와 애환, 신명이 담긴 손숙의 <어머니>와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 배꼽 빠지는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휴먼코미디>, 남녀의 심리와 사랑에 대한 따뜻한 감성연극 <옥탑방 고양이>, 2014년 대학로 최고 흥행작 <유도소년>, 탄탄한 스토리와 풍성한 음악으로 사랑받은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싱글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아동극으로는 해외 우수 매체에서 극찬 받은 어린이극 <강아지똥>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영상과 정교한 플라이 기술이 결합한 <구름빵>, 어린이들의 든든한 친구 <로보카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릭 칼의 <배고픈 애벌레>를 캐나다 극단의 내한공연으로 선보였다.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 시즌 스테디셀러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우수공연 시리즈는 부평아트센터가 공공 극장으로서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성 있는 우수 공연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연사업팀장 조현주



1 호두까기 인형 2 에쿠우스 3 손숙의 어머니 4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신년음악회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부평아트센터 개관 이후 해마다 1월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년음악회'를 연다. 초기에는 국악,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최고의 소리 명인 안숙선과 사물놀이 김덕수의 만남으로 깊고 맑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후에도 송창식과 윤형주, 함춘호, 모스틀리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여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윤형주의 낭만적인 미성과 송창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결합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는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음악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국악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안숙선, 장사익, 강은일, 송소희 등 국악계 최고 스타로 손꼽히는 아티스트들이 국내를 대표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등과 협연했다. 이에 국악 공연으로는 드물게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년음악회는 지역민에게 품격 있는 국악 공연작품을 선사하여 우리 음악의 가치와 감동을 의미 있게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공연사업팀 김경민



1, 2 국립국악관현악단 3 장사익

브런치 콘서트

커피, 다과와 함께
쉽고 편안하게 즐기다



평일 오전, 차 한 잔의 여유와 우아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는 2013년 오페라 공연으로 시작했다. 브런치 오페라는 오페라가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오페라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1 2015 브런치콘서트 2 오페라 마술피리 3 2016 브런치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리골레토>, <카르멘>, <사랑의 묘약> 등 제목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선뜻 관람이 어려웠던 오페라를 70분으로 압축하여 주요 장면을 라이브 연주와 성악가들의 연기와 노래로 임팩트 있게 전달해, 오페라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공연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4년에 선보인 <라트라비아타>는 오페라와 더불어 발레 무대가 결합하면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2015년에는 오페라에서 벗어나 인문학 클래식의 형태로 바뀌었다.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라는 주제로 펼쳐진 공연은 대문호들의 작품과 음악이 만나는 콘셉트로 셰익스피어, 괴테, 빅토르 위고의 훌륭한 문학작품과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거나 그 작품과 관련이 있는 음악을 소개하여 깊이 있는 음악과 문학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음악이 미술을 만나는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음악이 도시를 만나 새로운 미적 감각을 선보인 <예술, 런던을 만나다>, 음악이 문학과 영화를 만나 영감을 제공한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라는 작품을 통해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욱 알차고 신선한 구성과 주제로 관객의 만족도를 채웠다.

다양한 구성으로 쉽고 편안한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었던 브런치 콘서트는 클래식 공연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브런치 특색에 맞게 커피와 다과의 케이터링을 더하여 티켓 판매 다수 매진을 기록하였고, 패키지 티켓을 활발하게 판매하는 등 부평아트센터 마티네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향후 대중음악, 퓨전국악, 토크 콘서트 등 더욱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재편하여 주부들의 브런치 시간을 향긋하게 채울 계획이다.

공연사업팀 임정인, 김정민

청소년 음악회

수준 높은 연주와 눈높이에 맞춘 해설



청소년 음악회는 다채로운 공연 레퍼토리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청소년들을 만났다. 초보 관객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수준과 난이도를 맞추어 레퍼토리를 선정하였으며, 수준 높은 연주와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청소년과 관객에게 편안하게 전달해왔다.

세계의 다양한 악기를 이용하고 이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월드뮤직 콘서트, 3명의 베이스와 타악기 앙상블이 함께한 색다른 클래식 공연, 유쾌한 해설이 있는 시네마콘서트, 월드뮤직그룹 공명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퓨전국악 콘서트, 클래식 음악을 통해 떠나는 유럽 배낭여행 등 다양한 콘셉트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를 선사해왔다.

청소년 음악회는 해마다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풍성하게 채워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음악적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관객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앞으로도 독특하고 차별화된 공연을 기획해 청소년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음악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공연사업팀 임정인, 김정민

송년 음악회 'THE BEST' 공감 콘서트

클래식부터 뉴에이지, 대중음악, 인디음악까지



2016 양방언 Evolution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 콘서트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 관객을 만족시킬 풍성한 공연을 지향한다. 2010년 모스틀리오케스트라와 임태경을 시작으로 2016년 양방언까지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하는 음악회를 선보여왔다.

2010년 송년음악회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다양한 뮤지컬 무대를 휩쓸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이 함께하여 클래식, 영화음악, 팝페라, 뮤지컬, 네 가지 색깔의 무대로 연말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의 거장 양방언의 콘서트를 열었다.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일관 열광적인 호응과 기립박수 속에 감동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양방언 콘서트는 2016년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시 관객을 만난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스타 리처드 용재오닐과 임동혁이 부평아트센터의 마지막 공연을 장식했다. 오랜



1 임태경 모스트리필하모닉 2 김청완 밴드

친구이자 음악적 파트너로 교감해 온 두 사람은 완숙미와 우아함으로 2012년 클래식계 최고 이슈 무대를 보여주었다. 2013년에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로큰롤 밴드로 인정받고 있는 김청완 밴드로, 2014년에는 트랜스픽션, 로맨틱 펀치, 내 귀에 도청장치, 동물원, 해바라기가 참여하여 2030세대부터 7080세대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2015년은 과거의 향수와 추억에 젖게 하는 절창 듀오 윤복희 & 최백호의 공연으로 대중음악계를 이끌어온 대스타와 함께 하는 연말 공연으로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하였다. 송년음악회는 클래식에서부터 뉴에이지, 대중음악, 인디음악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지며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THE BEST는 앞으로도 최고의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깊은 감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신현태



2

호박(HoBAC)데이트

만나고 싶은 명사와 함께 하는 특별한 데이트

1 2015 극장, 책을 읽다 | 임진모
2 2016 극장, 책을 읽다 | 김난도

부평아트센터 2층에는 커뮤니티홀 호박이라는 공간이 있다.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거나 쉬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호박'의 명칭은 부평 예술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Heart of Bupyeong Arts Community의 앞 이니셜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호박(HoBAC)데이트는 이 커뮤니티 홀의 의미로부터 출발했다.

2010년에 시작된 호박데이트는 문화예술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 강연을 듣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이 명사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듯 구성하였다. 처음 초대 손님으로 송옥숙 배우가 관객과 대화를 이끌어 가며 한 편의 진솔한 인생극장을 보는 듯한 토크쇼를 완성했다. 두 번째는 한샘마 미술가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들으며 청중들이 미술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에는 유니버설발레 문훈숙 단장을 섭외하여 청중을 무대로 이끌어 전문무용수와 발레의 한 부분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청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어렵고 고루하게 느껴졌던 발레에 대한 매력을 알렸다.

이후에는 북콘서트의 형식을 반영하여 <극장, 책을 읽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문학 분야의 소설가와 시인을 초청했다. 소설가 신경숙과 시인 도중환을 초대하여 시대를 읽는 작품으로 삶의 지혜를 밝히는 작가들의 메시지와 책의 내용을 주제로 곡을 선정하여 책과 음악이 만나는 감미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제1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소설가 김훈,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디자이너 이상봉, <먼 나라 이웃나라>의 작가 이원복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삶에 대한 진한 스토리를 담은 강연과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는 공연은 관객에게 지혜와 감성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자리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멘토 김난도 교수가 관객을 만나 관객에게 청춘의 의미를 복돋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다. 앞으로도 호박데이트는 만나고 싶은 명사들을 초청하여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공연사업팀장 조현주

부평구문화사랑방

집 근처에 언제나 열려 있는 작은 공연장

‘부평구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은 2003년 문을 연 부평문화사랑방과 2008년 문을 연 부개문화사랑방 두 공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이전까지는 부평문화원이 위·수탁했으나, 이후 부평구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문화사랑방은 개관 이후 매주 수, 금요일 두 차례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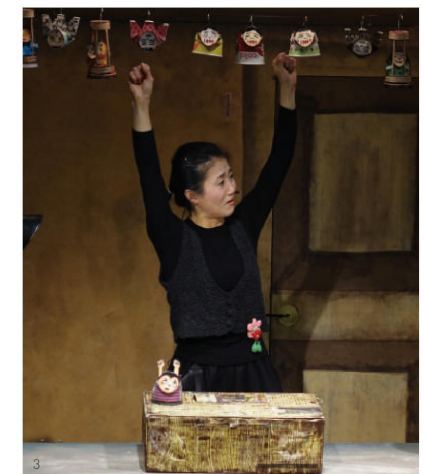
부평구는 애초에 권역별로 문화사랑방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부평1동과 청천2동 주민센터를 추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2003년 문을 열 때에는 단순히 영화 상영 공간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8년 부개문화사랑방 개관을 기점으로 지역 및 전문 문화예술인의 소규모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민의 문화예술 발표가 가능한 공간으로 역할 변화를 꾀했다. 또한 2014년부터 크고 작은 공연을 공모·기획·초청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해마다 40여 회의 기획공연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약 5만5000명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지역민이 생활 속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사랑방을 자주 찾는 관객들 사이에서 문화사랑방 공연은 운이 좋아야 본다는 말이 있다. 모든 공연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1만 원 미만의 부담 없는 관람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는 공연을 찾아 서울로 향하는 지역민들의 발길을 되돌렸다.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민들을 위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사랑방은 꾸준한 관람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1 2016 사랑방손님과 바로크음악 | 인천콘서트 챔버
2 2016 청문이 똑똑똑 3 2015 말대할아버지가 온다



포럼연극

내 삶을
리허설하다

브라질의 연출가이자 연극이론가인 아우구스토 보알이 창안한 '포럼연극'은 관객이 극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인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선택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문제해결을 찾으며 극을 완성해 나가는 연극 방식이다. 국내에서 '토론연극'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형식은 극의 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극 속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에 빚대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관객 스스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자인 '조커(Joker)'의 도움으로 "스톱!"을 외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액션!"을 외치며 극의 상황을 되돌이켜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관객들이 연극을 더욱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부평구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은 서울교대 김병주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예술단체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와 함께 2013년 조부모 육아문제를 다룬 <엄마 나 셋째 생겼어!>를 시작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럼연극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왕따 문제를 다룬 <유정아 괜찮아>는 갑산중학교와 함께 왕따를 주제로 한 시나리오 작성 과정부터 학생 워크숍과 면담에서 증언된 실제 이야기를 반영하였으며, 왕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학생뿐 아니라 주변 친구,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 가족의 적절한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되짚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기관의 수요자들과 매칭하는 관객 맞춤형 교육연극으로서 상업연극과 차별화된 문화 사랑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청소년의 경쟁과 왕따를 다룬 <나비효과 2014>,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다룬 <슈퍼우먼컴플렉스>를 진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포럼연극에서 연극 토크콘서트로 이름을 바꾸어 부부갈등 문제를 다룬 <선인장 꽃>, 양성평등 문제를 다룬 <저, 살림해도 될까요>, 2016년 한국의 다문화 이야기를 다룬 <조각보 가족>까지 진행하였다. 참여 관객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솔직하게 들어보면서 역할을 바꿔 생각해보는 소통과 인식개선의 시간을 마련했다.



1 2015 선인장 꽃 2 2014 유정아 괜찮아 3 2016 링위의 가족

교육적 의미가 담긴 포럼연극의 짜임새 있고 유익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참여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월 '포럼연극에 묻는다'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인천 전역에 포럼연극을 알리고 포럼연극을 진행하는 어려움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심포지엄 이후 진행된 공연에서 전석 매진 등 100여 명의 관객이 모이는 성과가 드러났다.

앞으로도 포럼연극이 문화예술을 통한 개인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소통을 이끄는 연극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

전통예술이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부평구문화사랑방에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는 아름다운 한국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 향유자와 전통예술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박제된 전통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을 재조명하여 지역민과 가까운 공연장에서 선보였다. 품격 있는 전통예술 공연을 지역민의 생활 속 가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예술분야의 전수자를 섭외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연자로 함께해준 최고의 기량을 갖춘 예술가들은 녹음된 음원을 거부하고 라이브 연주를 고집하며 우리의 문화가 고스란히 깃든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문화사랑방 특성상 예술가들이



1 2013 한국의 탈춤 2 2013 한국의 소리 3 2015 조선의 정재
4 2015 한국인의 얼굴 5 2014 한국의 춤

열성을 다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는 2013년 민속학자 양종승 박사 해설의 고성·봉산·안동·양주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을 볼 수 있는 '한국의 탈춤'으로 시작해, 판소리·민요 등을 한꺼번에 들어볼 수 있는 '한국의 소리', 2014년 '한국의 춤', 생황·양금·철현금 등의 '국악기의 재발견'을 공연하였다. 2015년에는 학연화대무가 펼쳐진 '궁을 나온 조선의 정재'와 '한국인의 얼굴 탈'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적 감성과 역량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유구한 한국 예술의 역사를 훑어본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는 2015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나 전통예술이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시도한 문화사랑방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한국의 미를 경험하고, 전통의 가치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획으로 변함없이 지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우수기획전시

미술문화 전반의 다양한 시도로 완성도 높은 전시 기획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는 시각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이를 통해 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창조기관으로서 역량 있는 예술가의 프로모션 역할을 담당하고 신진 예술가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예술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민이 현대미술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다양한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시 공간이 생생한 교류의 현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전시 기획으로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창조 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 특별전시 미디어파사드 〈품생품사 부평의 기억〉과 미디어아트 〈미디어物 사이間 展〉이 야외 광장과 갤러리 꽃누리에서 이루어진 뒤 다양한 시도의 기획전시를 관객에게 선보였다. 개관 후 4년여 동안 연간 기획전시는 체험전시를 포함하여 5회 개최했고, 이후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자체 기획전시는 연간 9회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전시 횟수를 늘리고 완성도 높은 양질의 전시를 개최하여 관람객과 예술을 통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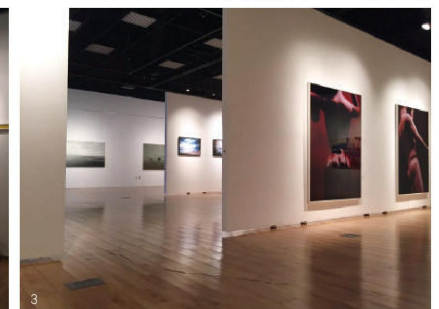
2014년부터 기획전시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내외 미술문화의 흐름을 읽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서울 중심의 전시 문화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시를 기획했다. 현대미술 아트신에서 한 획을 긋는 메이저 작가가 대거 등장하는 자체기획전을 개최했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국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폴란드 현대미술을 소개했다. 정통적인 경매 방식으로 풀어낸 미술품 자산경매 프리뷰전시와 애프터 세일을 위한 경매 후 전시를 진행했고, 공모전을 통한 선정 작가의 전시를 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는 현대미술 그라운드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굳혀갔다.

2014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한 〈행복한 우리가족展〉은 ‘부평키즈페스티벌’의 연계 전시로 진행되었다. 가정의 달에 진행되는 전시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낸시랭, 아트늄, 찰스장, 유영운, 김정민, 임만혁, 황주리 등 미술시장에서 블루칩 작가로 명명되는 메이저 작가의 작품이 포진된 기획 전시였다. 약 25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전시를 즐길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해 10월, 폴란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지역, 미술을 밝히다〉전이 기획되었다. 이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11인과 한국·인천을 대표하는 작가 10인의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시각 교차점을 발견하고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민간 외교를 통해 현대미술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대안적 표현 방법을 모색한 전시였다. 또한 ‘한국, 폴란드의 현대미술의 현재와 양국의 비영리 예술공간 운영현황’을 주제로 전시와 연계한 컨퍼런스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열렸다. 미술평론가 김성호 교수와 대안공간 루프의 디렉터 서진석, 폴란드의 유명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인 Anka Leśniak, 작가 Artur Chrzanowski가 발제자로 나섰다. 패넬로는 한국의 신언일, 정수모 폴란드의 Justyna Jakóbowska, Artur Chrzanowski가 참여하여 두 나라의 현대미술의 현재와 비영리공간 운영의 현황에 대해 뜨거운 의견을 나눴다.



1 2016 얼굴을 부탁해 2 2015 지역, 미술을 밝히다 3 2016 사진의 회화성



2014년은 새로운 시도의 전시사업을 진행해온 성과가 확인되었다. 전시기획 분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획전시 <잃어버린 풍경을 찾아서>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 부문에 선정되어 국고지원금으로 진행되었다. 현대미술 속 파장을 일으킬 만한 화두를 제시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6명의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중견작가부터 신진작가들로, 지역 내외로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작가군을 구성하여 깊이있는 탐색이 수반된 전시로 평가되었고, 21일 동안 2,900명이 관람했다. 국내 최대 인터넛포털 네이버(Naver)에 네이버 공연, 전시 부문 오늘의 TOP에 선정되어 부평아트센터의 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큐레이터와 도슨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해마다 양질의 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015년에도 완성도 높은 기획전시로 관람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월부터 진행된 <Wonderland, Neverland>전은 '현대미술 환상동화 전시'라는 부제와 함께 K-POP 아트신에서 독보적인 실험 작품들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들의 독특한 캐릭터들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윈드랜드를 탐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또한 쾌락과 부패가 공존하는 현대 소비사회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실재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동시대 문화의 성찰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넛포털 네이버(Naver)에 5월에 가 볼 만한 전시 오늘의 TOP에 선정되었다.

흙과 불로 탄생되는 도자기 작품과 나무로 이루어진 목가구, 자연의 색들로 입혀진 회화 작품이 한 공간 안에 펼쳐져 가을에 만나는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한 <생활의 발견展>이 진행되었다. 전시는 도자기와 목가구, 회화 등 시각예술의 가치뿐만 아닌 공간 속에 녹아든 작품들을 통해 자연친화적이며 기능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아름다운 생활 작품들의 효용성을 재발견할 수 있게 꾸려졌다. 전시기간 중 도예 작품의 탄생과정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도예 물체 시연과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1 2015 Wonderland, Neverland
2 2014 잃어버린 풍경을 찾아서 展 도슨트프로그램 운영

2015년 마지막 전시는 부평구문화재단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과 연계한 특별전시로 기획되었다. 전시는 <블루지 60's: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그리하여 지금도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기원이었던 음악도시 부평의 찬란했던 시절을 아카이브, 현대미술, 미디어, 인터랙티브아트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1960년대 부평의 사진과 수많은 아카이브를 통해 그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했고, 그 시절의 역사적 통찰과 애수를 담은 블루지(Blues)한 감성을 통해 재탄생되는 현대미술이 이야기를 더했다. 전시의 궁극적 목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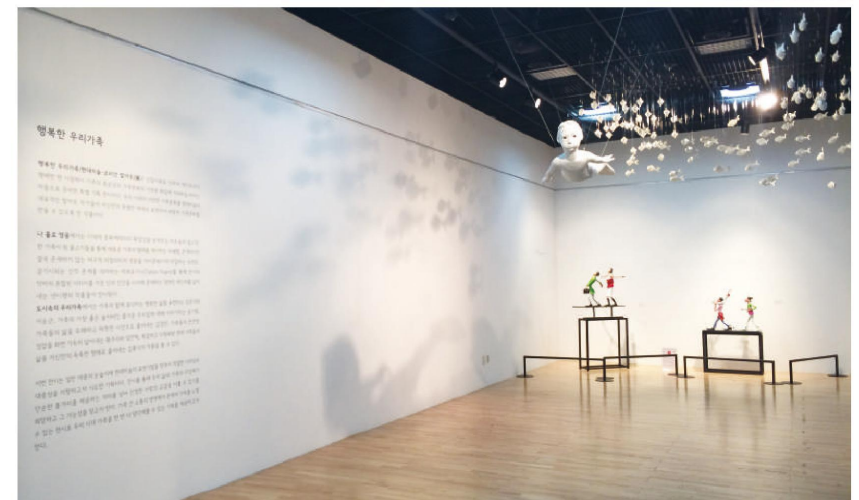
역사 속에서 잊혀지거나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관람자와 소통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행한 대중음악 곡들을 배경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이 영상화시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작품은 관람객을 1960년의 무대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얼굴을 부탁해>전은 국내외 현대미술 아트신에서 독보적인 작품들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기법으로 얼굴을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자체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친근한 우리 동네 미술관을 표방하며 부평아트센터의 공연·축제와 연계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의 브랜드 가치 확립을 꾀하였다. 특히 2007년 루게릭병으로 타계한 독일 현대미술계의 거장 '요르그 임펜도르프'의 '예술가들의 조상' 시리즈 작품이 공개되어 그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독일 동시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와 관람객의 관심을 자아냈다.

2015년 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전시 분야로 '사진' 장르가 채택되었다. 갤러리 꽃누리 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관람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장르전시 '사진의 회화성'을 개최하였다. 사진 장르는 저널리즘, 공적인 기록물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나 현대미술사의 흐름에서 충분한 미학적 고찰을 통해 매체로서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림 같은 사진, 사진 같은 그림'이라는 서브타이틀로 기획된 이 전시는 깊은 회화성을 발휘하는 사진작가 4명과 극사실주의 회화 작가 1명이 참여하여 평면 매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극사실주의 회화와 함께 회화적 질감으로 보여지는 사진 작품들로 채워 대비와 대조를 통해 어떤 것이 그림이고 사진인지 구분하는 역설적인 반문으로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도록 기획되었다.

지역문화사업팀 우사라

2014 행복한 우리가족 展



부평아트센터 레퍼토리 제작 공연

자체 제작으로 부평만의 대표 공연 브랜드 확보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누리는 문화, 만드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 콘텐츠 제작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재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이 예술작품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레퍼토리 제작 공연은 부평아트센터에 자체 프로젝션을 구축하여 특화된 우수 공연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고유문화 콘텐츠 및 공연 레퍼토리를 확보함은 물론 부평구문화재단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공연장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2011년 극적인 재미와 감동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은 <당신만이> 제작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주도의 설화 '할라궁이'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할라궁이의 모험>과 부평미군부대 애스컴(ASCOM)과 주변의 클럽을 배경으로 음악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정을 그린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제작하였다.

연극 <당신만이>는 대중적 사랑과 평단의 인정을 받은 위성신이 연출을 맡았고,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극단 십년후의 단원이 참여하여 관객에게 명품 연극을 선사하였다. 작품은 2011년 제작 이후 전국 순회공연 및 대학로 장기공연으로 이어져 많은 관객을 만나며 순항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라이브로 연주한 창작음악극 <할라궁이의 모험>은 제주 신화 속에 나오는 '할라궁이'를 주인공으로 한 수준 높은 음악극이다. 이 공연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3년간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부평의 역사적 자원을 재조명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2014년 11월 초연 이래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부평의 음악적 자산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음악도시 부평의 가치를 담아낸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1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우수한 예술경영사례 발굴·육성을 위해 전국 사례 공모를 진행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가치재창조,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주제로 우수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을 받았고, 우수사례 발표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수상하여 상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사례 추진을 위한 노력도, 사례의 독창성, 서류 완성도 및 추진과정의 합리성, 영향력 및 확장성, 지속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류 검토된 10가지 사례가 현장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무엇보다 900여개가 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부평구문화재단이 유일한 재단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자체 제작 공연을 통해 부평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가 더욱 활발히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임정인



1 2016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서울공연 2 할라궁이의 모험
3 2016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남녀 주인공

부평아트센터 야외 축제

문턱 낮은 문화예술, 가까이 다가가는 축제



2010년 ‘거리ya 놀자’를 시작으로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야외 축제를 진행해왔다. 거리극 페스티벌 ‘거리ya 놀자’는 부평아트센터 일원에서 진행하며 하루 동안 2만명 앞에서 거리극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저글링과 마임 등 국내외 10개 팀이 다양한 장르의 거리극 공연을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였다. 부평아트센터 내 놀솔원, 광장, 옥상 공연장, 호박홀, 달누리극장 등 곳곳에 공연을 배치하여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였다. 2011년에는 6개국 13개팀이 참여해 인천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거리예술을 맛보았다. 지역민이 부담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의 공공 복합문화 공간으로 생동감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축제다. 이후 거리극에서 벗어나 2012년부터는 피크닉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봄과 가을에 진행한 소소한 봄소풍, 가



을소풍은 아기자기한 공연들과 체험으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14년부터 봄에는 어린이를 위한 축제인 부평키즈 페스티벌 BUKIF로, 가을에는 음악을 즐기는 대형 콘서트 형식의 무료 야외 축제 피크닉콘서트와 부평밴드페스티벌로 진화되었다.

부키프(BUKIF) 초록누리 축제의 BUKIF는 Bupyeong Kids Festival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어린이날을 전후로 개최되는 축제로 5월 5일 당일에는 부평아트센터 전체 공간을 여러 마당으로 나눠 공연, 문화체험, 나눔 장터, 놀이마당, 야외전시 및 부대행사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문화 체험 부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평미술인협회, 손글씨 동아리, 부평구문화재단 위·수탁기관인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문화센터 등 지역의 기관과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임정인

1 2010 꿈꾸는 거리예술가 | 김찬수 마임
2 2016 초록누리 축제 | 부스 전시 모습 3 2014 피크닉 콘서트



부평밴드페스티벌

음악으로 삶의 여유를 회복하고 다양한 여가를 경험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부평밴드페스티벌은 부평의 음악스토리를 담은 음악도시 부평의 대표 축제다. 2016년에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규모와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부평의 음악 문화를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창조 공유 도시 부평’을 만들고자 한다.

1950~60년대 부평 애스컴(ASCOM) 미군부대 주변에는 대중음악 60년의 뿌리가 된 독특한 역사가 있다. 당시 미군 부대 라이브클럽으로 다양한 음악이 유입되면서 특히 스윙재즈, 록 등 밴드를 중심으로 한 장르가 성행하였다. 이를 소재 삼아 부평에서 과거에 활동한 음악인과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음악인, 현재 활동하는 신인 밴드를 총망라하는 부평밴드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세대가 소통·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음악축제의 경우 지역의 문화적 배경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부평밴드페스티벌은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역사를 역발상 소재로 삼아 부평의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았다. 부평이 지닌 변치 않는 가치를 부여하여 음악도시 부평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1 2016부평밴드페스티벌 | 데이브레이크 2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 부평올스타빅밴드

201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은 ‘Remember’를 주제로 부평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부평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객석 외 주변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펴고 가족, 친구 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면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출연진은 부평의 실력 있는 노장들로 구성된 ‘부평올스타빅밴드’, 부평에 연고를 두고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애스컴슈퍼밴드’, 모던 록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일렉트로닉 록 밴드 ‘THE KOXX’ 등이었다. 부평을 대표하는 음악인들과 최근 인기있는 대중음악으로 구성되어 부평밴드페스티벌이 세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었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은 앞으로 인천시 및 부평구의 음악인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아티스트 발굴 오디션, 음반 쇼케이스, 킥퍼런스, 네트워크 파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음악 축제로서 다양성을 갖고 부평 음악인들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그저 공연에 머무는 축제가 아니라 부평에 문화 예술 관객자의 유입을 유도하여 음악 산업 활성화와 음악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음악을 통해 삶의 여유를 회복하고 다양한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도시사업팀 박재은

우리동네 문화마실

5분만 걸어가면 공연을 볼 수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아웃리치(out reach)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연 '우리동네 문화마실(이하 문화마실)'을 선보였다. 문화마실 사업은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적은 지역민에게 부평구 내 주민센터나 공원, 부평구문화사랑방 등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평구민 모두가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운 이웃집에 마실가는 마음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연을 만난다는 의미로 사업명칭을 정했다. 사업 방향은 크게 가족친화형 문화향유 기회 확산, 지역 거점공간의 문화커뮤니티센터 기능 확대, 지역기업·예술단체·지역민의 문화공동체 파트너십 제고 등 세 가지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 기업회원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의 후원금이 보태져 운영되고 있다.



1 2016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2 2016 우리동네 문화마실 신성새마을금고 공연

문화마실은 2015년에 첫선을 보였고,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에 진행됐다. 부평1동 주민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개문화사랑방에서 우쿨렐레, 록밴드, 합창, 오페라, 풍물 등 다양한 장르로 모두 12번 공연을 펼쳤다. 처음 사업을 기획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생활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여 공연장소로 선정한 주민센터나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공연을 위한 공간 자체는 매우 좋았으나 기존에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서 공연 준비나 스케줄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연을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기 바라는 취지로 금요일 저녁으로 정했지만 관객 참여가 부족했다.

2016년에는 국가 문화융성 정책으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캠페인에 따라 수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부평구 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부평동, 삼산동에서 청천동과 부개동, 십정동으로 지역을 넓혔고, 횡수도 12회에서 16회로 늘렸다. 2016년 문화마실 장소는 부개문화사랑방, 피골문화회관, 신성새마을금고 강당, 부평공원, 나비공원이며, 우쿨렐레, 마임, 록밴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오케스트라에서부터 합창단, 오페라, 블루스밴드의 전문 예술가 공연과 시민 문화예술동아리 공연까지 아우르고 있다.

문화마실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관심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예술가, 공간운영자, 후원자 등의 여러 주체들과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더 많은 참여와 확산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사업팀장 최형주

로비음악회 12시 15분

자유롭게 오고가는 로비에서 누구나 즐기다



부평아트센터가 개관한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로비음악회 12시 15분은 말 그대로 12시 15분에 해누리극장 로비에서 펼쳐지는 60분 내외의 공연이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공연관람을 선택하지 않았던 지역민이 부담없이 공연장에 찾아와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여 점차 익숙해지도록 잠재 관객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1 2013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2 2013 로비음악회에 찾아온 관객 모습 3 신나는 섬

초반에는 매달 둘째, 넷째 주 '놀토'마다 해누리극장 로비와 놀솔원에서 펼쳐졌다. 500여명의 관객이 발 디딜 틈 없이 해누리극장 로비를 매워 지역 주민이 얼마나 문화공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클래식, 국악, 무용, 재즈 등 다채로운 구성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예술단체를 기용하였다. 또 지역문화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활발한 무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로비음악회는 편안한 공연장에서 멋진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 열린 무대다.

부평아트센터의 가용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비음악회는 앞으로도 클래식에 편중되지 않고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임정인





2015 Wonderland Neverland

2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지역 예술 창작활성화 및 유통 기회 확대
 라이징 스타 신인음악회
 부평영아티스트
 부평작가열전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부평예술축제
 부평구립예술단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부평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부평구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부평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

라이징 스타 신인음악회

지역의 떠오르는 별을 밝히다



라이징 스타 신인음악회는 부평과 인천 출신의 신인 음악인들 가운데 한국 음악계를 뚫어질 차세대 유망주들을 발굴해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첫선을 보였다.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현, 피아니스트 윤병화, 바리톤 정준식 등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 3명으로 선정하여 인천시향 협연으로 공연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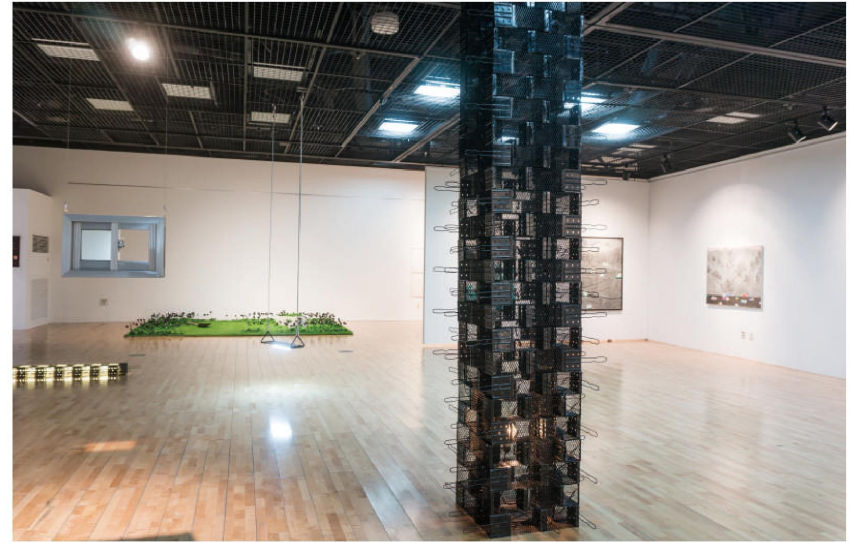
두 시간 남짓 혼신의 힘을 다한 지휘로 멋진 하모니를 이끌어낸 정치용 지휘자와 지역의 젊은 음악인이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여 관객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다. 이 공연은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문화 예술을 견인하고 공공 공연장의 역할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공연장에서 지역 출신의 음악가를 관객에게 선보이는 음악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부평문화재단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신진 예술인 발굴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김경민

부평영아티스트

인큐베이터로서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의 발굴과 프로모션 지원



2015 부평영아티스트 1기 선정작가전

부평문화재단은 한국의 젊고 유능한 현대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공모전 '부평영아티스트'를 시행하였다. 부평영아티스트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미래 전도유망한 작가를 선정하는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이다. 기초문화재단이 주관한 신진작가 공모전이지만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시켜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하고 있다.

수많은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 존재하지만 공모전의 오랜 역사나 수많은 상금과 혜택이 출품자들에게 필수적인 매력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출신학교와 배경 등이 공모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강박에서 작가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현대미술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모전이 배경보다 작가의 역량과 작품관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에 집중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가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타 공모전과는 달리 부평영아티스트는 선정 작가제 도입과 수상자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 부평영아티스트 1기 선정 공모전은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작품 프레젠테이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작가적 역량을 가늠하였다. 1차 서류 심사 에 출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심층 인터뷰를 거칠 작가 15인을 선정하고, 비평가, 회화 전공 교수와 미디어아트 디렉터 등을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작가별 PT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인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 선발된 부평영아티스트 1기 김윤희, 김수진, 김지신, 박재영, 장준호는 부평영아티스트 선정 작가전 <Perennial Inspiration>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작품력, 기획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작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관람객 투표점수와 심사위원 점수의 합계결과 최종 1인으로 선정된 김수진 작가는 그해 선정 작가전 외에 2016년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 전시의 1부 섹션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2016년 부평영아티스트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이 되었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로 선정된 김선우, 김원진, 다니엘경, 해순환, 박춘화 작가는 2기 선정작가전을 통해 관람객과 만났고, 앞으로 1년 동안 더욱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역문화사업팀 우사라

1 2016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
2 부평영아티스트 선정 심사장면



부평작가열전

지역미술 발전과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노력



1 2015 부평작가열전 | 부평망상불 展 2 2016 부평작가열전 | 고향의 봄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건인하는 매개자 역할을 통해 지역 미술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4년 시작된 '부평작가열전'은 해마다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의 첫 전시로 기획되어 자신의 삶과 조형성의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전시공간이나 기회의 부족으로 시민과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특색 있는 기획전시로 엮어내어 지역 미술전시의 정체성을 살려내고 진부성을 탈피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2014년 부평작가열전, 2015년 부평작가열전 <부평망상불展> 2016년 부평작가열전 <고향의 봄>이라는 타이틀로 부평 작가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부평 작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숭고한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고, 시민들의 지역 미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켰다.

지역문화사업팀 우사라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

미술품 자선 경매를 통한 신선한 감동



문화복지의 확대와 문화예술의 재생산을 목표로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평구문화재단은 미술품 자선 경매인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이하 부평옥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미술품 유통으로 미술과 지역예술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층위에서 이끌어내었다.

부평옥션은 작품 소장자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며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이라는 자선 경매 행사의 취지를 살려내었다. 지역과 기업, 작가가 지역 미술발전과 예술을 통한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는 지역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2014년 처음 시도한 부평옥션은 1부 메이저세일(Major Sale)과 2부 커팅엣지(Cutting Edge)로 진행되어 그동안 부평아트센터와 전시를 진행하였던 작가들 중 부평옥션의 취지에 동의해준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좋은 뜻에 동참하기 위해 작가들은 전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매 추정가로 작품들을 서슴없이 내주었고, 모두 32점의 소장 작품

이 출품되어 16점이 낙찰되었다. 경매 수익금의 50%는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예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창의적인 기부모델로서 예술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공익적인 의미와 가치를 만들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첫 번째 부평옥션은 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다. 2015년에는 경매의 포맷에 변화를 주고 작품 수를 늘려 더욱 많은 작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에서 추가된 3부 스페셜세일(Special Sale)은 시작 가격 15만원부터인 젊은 작가들의 작은 그림 경매로 28점이 출품되어 모두가 부담 없이 경매를 즐기도록 마련되었다.

미술품 경매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진행되는지 아는 일반인들은 드물다. 작품 관람은 익숙해도 작품 가격을 물어보거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어색한 일이다.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미술품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은 더하다. 시민이 경매에 응찰하지 않더라도 정통적인 미술품 경매를 관전하고 뜨거운 경매 현장에 함께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마다 이벤트처럼 캐주얼한 경매를 많이 진행하지만 미술품 전문 경매사가 정통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비용과 품을 들이지 않고 눈앞에서 쉽게 보기는 힘들다. 부평옥션은 미술품 전문 경매사가 진행하는 정통 경매 방식, 서면 응찰서를 작성하여 사전 응찰하거나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응찰, 직원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대신 응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 직접 응찰하는 공개 응찰을 원하는 고객들은 경매 패를 들고 직접 비딩(bidding, 응찰)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전문적인 미술품자선경매로서 해마다 다양한 포맷으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부평옥션은 더욱 정돈되고 진화하는 모습으로 지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나눔문화를 선도할 것이다. 부평옥션을 통해 지

역미술 활성화와 아울러 전반적 지역미술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문화사업팀 우사라

1 부평옥션 경매 장면 2 2016 부평옥션 포스터 3 2014 뉴스보도 이미지



부평예술축제

부평구 예술인과 부평구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축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부평예술축제는 부평구예술인회와 함께 부평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는 예술축제로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역 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판을 만들어 예술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민들이 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부평아트센터 공연장과 갤러리, 야외광장 전체를 오픈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다양한 공연 및 시각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로 만들고자 했다.

2015년 부평예술축제 첫회는 '함께 나누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사진, 서예 등 여러 장르의 부평 예술인이 참여하여 만드는 종합예술제로 꾸러졌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축제가 미뤄져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는 9월 초, 제1회 부평예술축제는 우쿨렐레 앙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야외광장에서는 재즈기타, 클래식, 성악 등의 음악공연과 더불어 시나위, 진도북놀이 등의 국악공연, 마당극 '남도 천지밥', 현대무용, 비버딩, 실버댄스와 퓨전 퍼포먼스, 부평구립예술단 전통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로써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예술인을 집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재단 후원회의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의 예술적 역량을 펼치는 교류 및 시민공유

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역예술인협회와 부평구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의견이 상충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협회 소속이 아닌 예술가들의 참여 저조와 야외무대 운영의 미숙함 등이 드러났다.

2016년 제2회 부평예술축제는 부평아트센터 광장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진행되었다. 각종 체험부스의 예술가와 다문화 활동가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주말을 즐기러 나온 지역민을 맞이했다. 이곳에서 베트남 농라모자와 중국 등을 제작하고, 반미샌드위치, 월병, 종주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잔디 앞 무대에서는 부평예술축제를 대표하는 공연과 프린지 무대가 펼쳐졌다. 1회 차 축제와의 차이점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공연 무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처음으로 부평구립예술단인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연합공연을 마련하여 무대에 올랐다. 축제 중반에 이르러서는 장구춤, 부채춤 등 무용공연과 경기민요, 모듬북 등 국악공연이 이어지며 신명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악과 연주곡 등 음악공연이 진행되면서 지역민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외에도 부평구예술인회가 참여하는 전시와 대한민국 마임 대표 3인의 공연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다문화 중심의 공연과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예술축제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기획부터 전반적인 축제 운영까지 매끄럽지 않았던 점은 반성하고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년 동안 이어진 부평예술축제는 부평구 내의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지만 불확실한 축제의 정체성, 운영체계의 구조적 어려움, 시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지역민과 지역 예술가의 단합을 이끌어내며 부평예술의 가치를 드러내는 축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문화사업팀장 최형주

1 2015 부평예술축제 | 부평구예술인회 국악공연 2 2016 부평예술축제 | 부평구립풍물단 공연



부평구립예술단 운영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부평구립풍물단,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순수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인다



1 부평구립여성합창단 2 부평구립풍물단 3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부평구에서 운영하던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평구립풍물단 등 3개의 예술단체를 위탁·운영하면서 순수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각 예술단체 여건에 맞는 지원과 전문적인 운영방식으로 각각의 예술단이 부평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평구립예술단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56만 구민들이 함께 나누는 생활 속 문화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대회 및 행사 참여를 통해 부평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문화도시 부평의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2000년 2월에 창단하여 세 개 예술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여성들의 문화·사회활동 기반 조성에 활동 목적을 두고 있다. 아름답고 세련미 넘치는 통일된 음색과 신비로운 화성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2015년도 유관순 음악제 대상 등 각종 합창대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수상하며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즐거운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부평구립풍물단은 풍물도시 부평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2007년에 창단되었으며,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는 부평풍물대축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하이스쿨페스티벌, 서울드림페스티벌,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의 개·폐막식 공연과 축하공연을 맡으며 전국을 넘어 세계로 부평 풍물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크루즈 관광객 축하공연, 외국인 관광객 초청 공연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평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초청공연을 통해 구민과의 만남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평의 대표 전통공연단체다.

2010년 창단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대회 수상을 여러 차례 거머쥐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합창단이다. 2011년 제10회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오키나와 초청공연으로 오키나와 지역 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한국 어린이 합창단 최초의 공연, 최고의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다. 20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FEST ART VIENNA 국제합창대회에서 영예의 그랑프리틀, 2015년 대교TV 코러스코리아 합창대회 대상을 차지했다. 동요뿐만이 아닌 뮤지컬과 고전음악, 종교음악, 한국전통음악과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양한 장르의 합창과 안무를 선보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문화사업팀 오인석

부평구립예술단 수상내역

부평구립여성합창단

- 2015.12.18.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의 날 페스티벌[자원봉사 재능공연 경진대회] 대상
- 2015.11.29. 2015 제4회 유관순 음악제 전국유관순합창경연대회 유관순상(대상) 수상
- 2013.08.28. 태백 전국합창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2011.06.30. 제3회 구미 전국새마을합창제 동상 수상
- 2009.07.15. 2009 제주국제합창제 장려상 수상
- 2009.05.22. 제6회 휘센 합창페스티벌 은상 수상
- 2009.04.09. 제6회 휘센 합창페스티벌 지역본선(서울경기) 우수상
- 2008.11.22. 제4회 창원전국그랑프리합창제 참가
- 2008.07.15. 2008 제주국제합창제 참가, 장려상 수상
- 2007.08.13. 제25회 태백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가, 동상 수상
- 2007.06.27.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은상, 최고 지휘자상 수상
- 2007.05.22. 제4회 휘센 합창페스티벌 전국 결선 동상 수상
- 2007.04.11. 제4회 휘센 합창페스티벌 지역본선(경기, 인천) 최우수상 수상
- 2000.10.04. 인천여성합창대회 대상 수상

부평구립풍물단

- 2016. 제8회 원주 전국풍물경연대회 금상 수상
- 2016. 제4회 전국충청웃다리경연대회 장원 수상
- 2013. 제2회 당진시장기 전국농악대회 장원 수상
- 2013. 제1회 전국 충청웃다리농악 경연대회 차상 수상
- 2009. 제8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타악 부문 장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08. 제7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타악 부문 머금상 수상
- 2007. 제11회 충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경연대회 참방상 수상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 2015.09.18. 2015 대교어린이TV 코러스코리아 대상 수상
- 2014.04.27. 2014 비엔나 국제합창대회(Fest Art Vienna) 대상(Grand Prix) 수상
- 2013.06.17. 2013 여수세계합창제 어린이·청소년합창부문 동상 수상
- 2012.10.26. 대교어린이TV 코러스코리아 결선 진출, 은상 수상
- 2012.05.04. 제1회 와글바글출판도시 예쁜말어린이합창대회 출전, 최우수상 수상
- 2011.01.17.~19.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 참가, 대상 수상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상호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를 확보하여 공연장 가동률과 관객개발 증진 효과를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다년간 지원으로 우수 예술프로그램 창작기반을 제공하여 수요자에게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인천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개관 초기부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극단 십년후'와 전문예술단체인 '구보댄스컴퍼니'가 부평아트센터의 상주단체로 활동했다. 부평문화사랑방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극단 MIR 레퍼토리', 부평문화사랑방에는 2015년 극단 (주)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상주단체로 활동했다.

극단 십년후는 1994년 창단하여 극단의 정서인 '사랑'을 담은 창작극과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을 제작·공연하는 인천의 대표 극단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의 상주단체로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인천 연극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극단으로 성장했다.

구보댄스컴퍼니는 2000년에 창단, 지역출신의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새로운 창작 작품과 다양한 레퍼토리 작품을 선보였으며, 공연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과 문화서비스로 지역과 소통하였다.

극단 MIR 레퍼토리는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연극인들이 모여 결성한 극단으로 예술로서의 연극, 살아있는 연극, 인간 영혼의 진보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 정신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작품완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레퍼토리 시즌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레퍼토리 교환, 상시 워크숍을 통한 극단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극단 (주)배우공동체 자투리는 고용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배우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소극장을 활성화하고 소통하는 연극공연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기존 예술단체에게 지원되었던 금액이 공연장으로 전액 지급되면서 공연장 측에서 공모하여 예술단체를 선발하게 되었다. 2016년 20여개 예술단체가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공모에 신청하여 그 중 '문화공작소 세움'과 '부평올스타빅밴드'가 새롭게 선정되었다.

문화공작소 세움은 2015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평점 만점 획득, 2015 한국대중음악상 2개 부문 노미네이트, 2015 PAMS Choice 선정,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축제상 수상, 2015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창작 부문 금상 수상 등 지역 음악단체로서 음악과 공연 제작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단체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2004년 부평의 음악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창단된 단체로 부평구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현충일 추모음악회, 부평풍물축제, 부평밴드페스티벌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한 실력 있는 지역 음악단체다.

2016년 부평아트센터의 상주단체로 선정된 이 두 단체는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과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부평구문화사랑방은 2016년부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주단체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공공연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사업팀 임정인, 신현태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1 구보댄스컴퍼니 2 극단 십년후
3 극단 MIR 레퍼토리 4 (주)배우공동체 자투리



부평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개관부터 지금까지 지역민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평아트센터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인 '어린이 연극학교'는 극장체험 콘셉트로 기획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연극으로서 연극, 음악극, 움직임 기반의 이미지극 등 다양한 창작극을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어린이들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뉘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모두 14회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모두 20회 교육과정은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연극학교는 토론과 연극놀이를 통해 공연 주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어 에피소드 대본으로 완성하고, 예술강사와 함께 연극적 움직임과 장치로 표현하여 창작극을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문 공연장 시설인 부평아트센터 무대, 음향, 조명 감독들의 도움을 받아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어린이 연극학교의 참여 연령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인 40명의 저학년과 고학년이 어울리며 선 후배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 또한 여타 교육연극이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결과발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것에 반해 어린이 연극학교는 마치 전문가 무대 같은 화려한 최종 발표 공연을 위해 연극이 만들어져가는 20회의 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나간다. 참여 어린이들은 무대 공간과 관객을 통해 공연을 완성하는 연극의 교육요소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는 가족 대상 합창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준을 나이별·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가족 단위 참여를 이끌어내어 대화 단절과 파편화되는 가족의 위기를 음악을 통해 이해와 화합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부평구민 1만 명당 1명 참여의 상징적인 의미로 56명의 가족이 참여하며 해마다 상·하반기 모두 네 번 운영한다. 2015년에는 각 15회, 2016년에는 각 10회 차로 지휘자와 반주자, 보컬 및 안무 강사가 한 팀을 이뤄 운영하였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기에 무엇보다 가족 참여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의 재미가 동반되어야 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뮤지컬 곡을 간단한 안무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연극놀이 워크숍을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참여자 성향에 따라 노래와 움직임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바꿔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기도 하다. 부평하모니프로젝트는 상반기 '부평키즈페스티벌', 하반기 부평아트센터 '로비음악회 12시 15분'에서 발표공연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엄마와 아이가 대다수이지만 부부 단위와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평소에는 바빠서 가족 얼굴 보며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합창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노래하며 치유를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합창을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 마지막까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은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 당시부터 무대 뒤 공간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연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공연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처음 부평아트센터 조경한 광장과 함께하는 콘셉트로 시작되었고, 음향, 조명, 무대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장치의 시연을 통해 공연 관계자들의 역할과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후 방학기간 중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하려는 지역민에게 부평아트센터가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민은 물론 문화예술기획자와 공연예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채워가고자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부평아트센터의 성인대상 아카데미 강좌인 '한국춤 아카데미'와 '통기타 아카데미'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당시부터 누구든지 쉽게 극장이라는 공간을 접하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턱 낮은 공연장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주로 중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국춤 강좌는 평일 낮 시간에 운영하여 한국춤의 기초적인 호흡과 움직임에 관한 수업뿐 아니라 창작 작품까지 완성하였다. 통기타 수업은 직장인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편성하여 통기타 기초 주법부터 작품 연주까지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초급, 중급반으로 나뉘어져 아마추어는 물론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편성·진행하여 2016년부터 아카데미가 아닌 자발적인 동아리로 발전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새로운 강좌로 사진 전문 작가와 함께하는 '일상을 찍다_사진과 이미지'라는 아카데미로 사진의 기초 메커니즘, 사진 찍는 법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기능 중심의 예능 연마 수업 형태에서 예술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나만의 관점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는 지역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지역문화사업팀 최은정

1 2015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 공연 2 2015 종화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부평구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Study 보다는 Play!



부평구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에서 처음 선보인 예술교육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을 활용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이야기 해결단'이다. 오감을 활용하여 책 읽기를 체험하는 독서 함양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관찰, 이야기, 표현, 몸짓을 통해 발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접수를 진행하던 당시에는 신청을 희망하던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며 5분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문화사랑방은 그동안 공연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몇 년 동안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12년 말부터 교육담당자를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늘려나갔다.

2013년 교육사업으로는 이야기 해결단과 함께 미술과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학 토크콘서트 '컬처 오디세이'를 진행하였다. 지역민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명을 정하고,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내용을 갖췄다. '힐링무비카페'는 힐링과 가족을 키워드로 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전문가와 정신과 전문가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GV(Guest Visio)방식으로 6회 진행하였다. '미술을 맛보다'는 미술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영상 속 미술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양미술사, 현대미술, 공공미술의 영역을 훑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6회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찾아오는 문화사랑방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춤을 추며 교감하는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춤추는 우리 집'과 유아와 엄마가 함께 독일 음악가 칼 오르프의 교육이론을 기반으로 리듬, 노래, 악기연주, 신체표현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꿈따리 오르프'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 이어 컬처 오디세이Ⅲ '클래식, 시대를 듣다'를 기획하였다. 문화평론가와 함께 클래식을 정치, 사상, 문학, 예술, 도시문화와 함께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4회 차에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토크콘서트로 마무리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에 관한 흥미로운 강의가 밀도 높게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2015년에는 참여 대상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 수와 장르를 확장하였다. 상·하반기로 운영된 '쌍쌍댄스'는 가족 대상과 성인 대상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포크댄스, 현대무용, 마임, 발레, 탈춤 등 다양한 무용 장르를 맛보기로 쉽게 체험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2인이 쌍을 이루어 춤추는 탭댄스, 왈츠, 탱고를 배웠다. 특히 하반기 프로그램은 부부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하였다.

2016년에는 3년 차에 접어든 꿈따리 오르프와 새로 신설된 탭댄스를 배워볼 수 있는 '렛츠 탭',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인형극을 만들어 실연하면서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사랑방 인형극단'을 진행하였다. 또한 '영화, 예술을 만나다'는 미술, 사진,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해당 예술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감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6회 진행하였다.

그 밖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평문화사랑방과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운영된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어디어디 숨었나'는 신체 감각을 깨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2017년부터는 부평구문화재단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예술로 만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사랑방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능동적인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사랑방운영팀 한송희

1 2016 사랑방 인형극단 2 2013 미술을 맛보다 3 2015 연극 나외라, 똑딱
4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5 2016 춤추는 사랑방 | 렛츠 탭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의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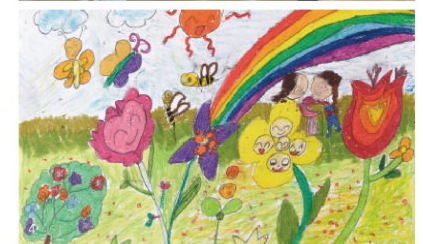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어린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놀이와 교육, 예술이 결합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체험전시를 선보여 관람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14년 모래와 빛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박진아 작가의 <모래랑 빛이랑>, 2015년 아이들의 감성을 높여 주어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얼렁뚱땅 색깔공장>, 2016년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놀이와 교육이 접목된 감성체험전시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는 유료 체험전시인데도 해마다 7,000여명에서 1만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 2016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2 2014 모래랑 빛이랑
3 부키프(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심사모습
4 어린이그리기대회 2015 대상 1 조민재
5 어린이그리기대회 2016 대상 1 김시현



또한 미술 영재 발굴 프로젝트인 부키프(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는 2015년 <나는야 아티스트!>, 2016년 <마음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매 회 약 350명 이상 어린이들의 참신함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출품되었다. 본 대회에 수상한 어린이들의 작품은 갤러리 꽃누리에서 수상작 전시되어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시할 수 있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하였다.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즐거운 도전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화사업팀 우사라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예술로 판을 만드는 청년기획자를 꿈꾸다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은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시대 예술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예술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지역 내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가 만나 인재육성-차세대 문화예술인력-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으로 구체적 내용과 형태가 바뀌어 왔다.

2013년 부평아트센터의 인재육성 아카데미 '씨앗'은 예비 문화기획자를 위한 기획실무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제작 프로세스, 기획서 작성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4회 차 강의로 진행되었다.

2014년 차세대 문화예술인력 양성 아카데미 '피어나라, 당신이 문화예술 전문가'는 모두 8회 차 강의와 1회의 현장탐

방으로 이루어졌다. 공연과 축제와 관련된 문화기획, 마케팅, 국내외 공연산업, 공연장 경영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조직통합으로 문화재단 본연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5년부터는 '기획자'에 초점을 두고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을 위한 '청년예담-청년, 예술을 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기획자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와 시각,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예비 문화예술기획자로서 앞으로 어떤 시대와 만나게 되는지를 조망해보는 10회 차 강의와 공연장 및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가 보는 2회 탐방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청년예담은 15회 차 과정의 개별 강의로 구성되었다. 강의의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담임 멘토제를 보완하여 담임 멘토가 각 강의가 가지는 연계성과 행위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면서 크게 독립출판, 지역기반의 전시기획, 파티기획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파티 실행으로 참여자들의 기획과 실행력을 이끌어내고 기획 워크숍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한 기획안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커리큘럼에 강의와 실행을 접목하여 10여회 차로 한정된 횟수의 교육을 보완하고자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 기획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과정 수료 이후 그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이 없다는 등 교육과정으로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설명 백수라 할지라도 매우 바빠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지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재단만의 이슈가 아니며, 다른 재단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대학 수업의 형태로 장기화, 실행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틀 아래 일방적인 단위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지역의 청년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다.

지역문화사업팀 최은정

1 2015 청년예담 2 2016 청년예담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가, 지역을 사유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2014년 'ONE PLUS ONE'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문을 연 아카데미는 문화정책, 저작권, 마케팅 기부금, 시각 및 공연 분야의 국제교류에 관한 6회 강좌로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로 지역 내 예술가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고, 예술가 간 네트워킹 구성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

2015년부터 '지역에서 예술하기'로 명칭을 바꾸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계 흐름에 어떻게 발 맞춰 갈 것인지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5회 차의 강의는 지역과의 소통과 지역중심 문화예술 지원정책, 홍보 및 마케팅, 재원조성 등 실용적인 분야와 동시에 현재 문화예술계의 흐름 및 국제교류와 단체에게 필요한 자생력을 이

떻게 키울 것인가를 짚어 볼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한 마지막 회차에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당면한 현안사항뿐만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조망하고 논의할 수 있는 만남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2016년은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회차별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자 간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였다. 또한 마지막 회차 시 합평회를 통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함께 작업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공유하였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개괄적인 내용보다 심화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획, 홍보, 재원조성 등 5회 차의 수업 안에 많은 것들을 담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부터 '연극인 재교육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역 내 연극인 대상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한 배우의 몸&공간 인식 확장이라는 프로그램을 2회 차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배우에게 있어 실제적인 테크닉_호흡, 발성, 움직임,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태도_존재, 인식(공간, 환경), 거리에 대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를 원할 정도로 연극인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 향후 장기 프로그램화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 예술가 재교육프로그램의 추가개설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 예술가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회를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예술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 예술가 상호간의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지역문화사업팀 최은정

1 2016 지역에서 예술하기 2 2016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부평생활문화센터 조성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언제나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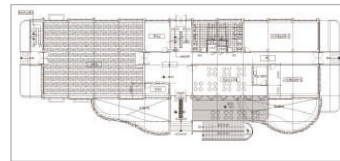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법 2조 2항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행·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일상성·지역성·다양성·대안성·공동체성·창발성·시민성의 속성을 가진 생활문화는 일상의 주체들이 스스로 어떠한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평의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는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이 중심이 된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시간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등 주민의 자율적인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부평지역의 문화예술 동호회, 문화자원 봉사, 마을공동체 등 자발적인 주민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부재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고 소규모 조직이 새로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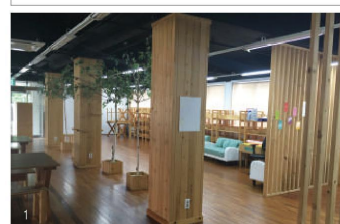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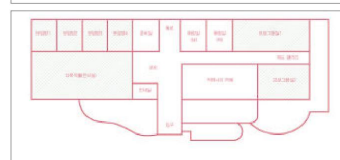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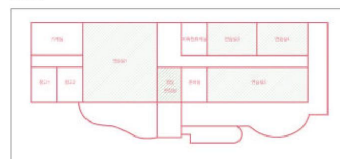
현재 부평생활문화센터로 준비되고 있는 부평아트하우스는 이전 송학사 통합막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운영하면서 창작연습실, 오픈스페이스,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6년 부평구문화재단이 관리운영 위·수탁을 이어감에 따라 2015년 10월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부평아트하우스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6월부터 주민욕구 설문 조사와 부평문화포럼,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을 통한 주민 면대면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부평아트하우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Before



After



아카이브실,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던 1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마추침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왼편에 원목으로 편안하게 디자인된 다목적홀이 보인다. 조도가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따뜻한 느낌이 배가된 다목적홀은 시야를 불편하게 가렸던 기둥을 중심으로 공간이 나뉘어 전시실과 작은 모임방 4개로 바뀐다. 남쪽 입구와 가까이 위치한 넓은 다목적홀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창의활동을 벌이는 공간으로 기획되어 전시나 세미나 등 열린 발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목적홀에 설치되는 무빙월은 전시벽이나 무대벽 등으로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사용될 것이다. 다목적홀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는 모임방은 소규모 모임이 다수 이어질 수 있도록 작게 나뉘어 설계되었다.

1층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걸을 수 있던 커뮤니티실에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동카페가 조성된다. 조명을 교체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야외 테라스를 활용하여 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늦은 저녁 밝게 비치는 조명 아래 통창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건물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음악에 위로받을 수 있는 주민의 쉼터가 될 것이다.

커뮤니티실 옆 복도는 갤러리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강의실과 비상구로 이어지는 긴 복도는 통로로만 사용되었지만, 여백의 미를 살리는 갤러리로 연출하여 시각 분야의 동호회 작품을 교체·전시하며 갤러리로 꾸러나갈 것이다. 방문하는 주민에게 생활 현장 가까이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호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계획이다.

1층 오른쪽 끝에 마련되어 있는 강의실과 다목적실은 그림, 공예, 독서, 회의 등 어떠한 창작활동도 모두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조성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물품으로 바꾸어 생동감 있고 색다른 공간을 연출할 것이다.

지하 1층은 지금까지 무용, 댄스, 연극, 풍물 등 다양한 동호회가 활동하던 연습실 2개와 남녀 탈의실 2개로 이루어

어져 있었다. 이 중 한 개의 연습실을 세 개로 쪼개어 모두 4개의 연습실을 구비하게 된다. 별다른 쓸모없이 존재했던 탈의실 두 군데를 미화원 휴게실과 준비실로 탈바꿈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영상편집실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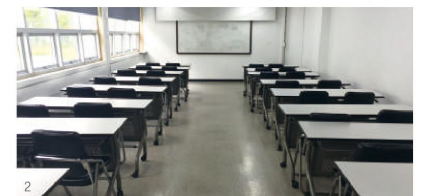
그동안 악기연주와 풍물연습과 같은 동호회는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면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다른 동호회의 눈총을 받았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된 것처럼 지하 연습실 공간에 방음시설을 갖추어 합주실을 만들 것이다. 이곳에 원목 마룻바닥을 새로 깔아 깔끔하면서 단조롭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전면 거울을 보강하여 자유롭게 움직임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공간을 살려 만드는 영상편집실에는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기록물로 남기거나,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동영상 편집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모던하고 심플하게 스타일링하면서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을 갖추어 쾌적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채워질 것이다. 또한 공간의 디자인이 질리지 않게 계절과 새로운 테마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 공간에 오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문화예술이 집콕된 일상의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한다.

생활문화센터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곳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적 삶의 현장이자 행복장작소라 할 수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사통팔달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려고 한다.

생활문화센터 담당 최성지

1층 아카이브실 2층 강의실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

동아리, 생활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한마당



부평구문화재단은 2012년 5월부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하 동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동아리 사업이 5년 차를 맞으며 동아리나 회원 수가 늘어났고, 다양한 활동실적들이 쌓이면서 향후 활동지원과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부평에는 2016년 기준으로 35개의 동아리가 재단에 등록되어 40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동아리들이 상호교류하고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이 만드는 부평의 생활문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동아리 사업이다. 동아리 사업은 동아리 간 정보를 나누고 워크숍, 발표회 등을 하며 생활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민들과 만난다.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해마다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민이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조자로서 시민문화예술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은 크게 동아리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워크숍 개최, 동아리 발표회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리 지원은 공모를 통한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의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동아리 운영위원회는 각 동아리 대표자들이 1년에 4회 분기별로 모여 지역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각의 활동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모여서 어떻게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지역 동아리 사

례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계속해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워크숍 활동은 동아리 간 네트워크와 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평구 문화예술 동아리 전 회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의 우수 축제와 문화시설을 탐방하면서 동아리 회원들 간 네트워킹과 친목을 강화하고,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의 동기부여와 창작활동에 기여한다. 재단 동아리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김제지평선축제 등의 축제탐방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워크숍에 참여하는 동아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직접 지원 방식의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재비나 재료비 등 학습활동 경비, 홍보물, 발표회, 장소 사용료 등 학습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경비, 혹은 부평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동아리 지원과 함께, 동아리 발표회를 마련하여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동아리 발표회는 1년 동안 진행해온 지역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만들어진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보이는 자리다. 지역민 모두가 생활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한마당으로 2012년부터 미술·사진·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과 전통춤, 기타, 하모니카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발표회를 진행해 좋은 환경의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는 기대감에 동아리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동아리 발표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경계 없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아리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접근성 향상,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동아리 사업은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지원의 타당성을 질문 받아왔다. 개인의 사적 취미활동에 해당하는 문

화예술동아리는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의 전체적인 문화정책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을 이끌어, 시민에 의해 꽃피우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리 사업은 공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더하여 이들의 활동이 공적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플랫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부평 문화예술 동아리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생활문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고, 부평 문화예술 동아리 또한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문화사업팀 조이경

2015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1 한국춤 아카데미 수강생 2 파란소리 팝스밴드 3 울 무용단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 사랑과 평화

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문화도시 부평 비전 창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문화정책개발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부평문화포럼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부평, 음악도시로 가는 길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부평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포함 모두 3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인천광역시와 부평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본 사업은 부평아트센터와 부평아트하우스 일대, 굴포천 복개 지역과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마켓 주변을 거점으로 음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인적·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창의적 재생산을 통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며 부평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부평에서 추구하는 음악·융합도시는 1980년대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된 도시를 일컫는 기존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1990년대 창조도시, 2000년대 공유도시를 거쳐 현대에서 강조하는 ‘문화 창조 공유도시’의 개념을 가진다. 문화예술인과 주민 협의체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향유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부평, 왜 음악도시인가?

부평이 왜 음악·융합도시를 추구하는지 당위성을 묻는 이들이 많다. 부평지역은 일제강점기에는 조병창(군수공장), 해방 후에는 미군 주둔지 애스컴 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 1973년 이후부터는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불리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었다. 부평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던 캠프마켓은 미군들이 자대 배치를 기다리며 대기하기도 했고, 각지에 위치한 미군부대의 물자를 조달,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덕분에 부평에서는 미국에서 갓 넘어온 세계 유명한 팝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최신 악기, LP판 등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캠프마켓 영내에는 12개의 미군 클럽이 있었고, 영외 주변에 23개 민간인 클럽이 영업을 했다. 재즈, 블루스, 팝, 로큰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팝송 번안과 통기타, 댄스, 발라드, 힙합 등을 거치면서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었다. 클럽에서 연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음악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부평 출신 가수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국내 1세대 록 가수인 신중현을 비롯해 배호, 현미, 한명숙 등이 부평 미군부대 영내 클럽에서 활동했고, 구창모, 최성수, 신지 등의 스타들의 고향도 부평이다.

부평 주민과 함께 걷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의 다양한 해의 사례를 연구하고 고민해 온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이 음악도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창의 인력이 모이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음악 산업을 꽃 피우도록 발돋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15년 사업 선정이 확정된 후, 부평구문화재단 주최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4회에 걸쳐 ‘2015 부평문화포럼 -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을 진행하는 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첫 번째 포럼은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를



1 Music Town 음악동네 만들기 | 라이브클럽 ROCKCAMP
2 Music Town 음악동네 만들기 | 문화의거리
3 라운드 테이블



Music Town 음악동네 만들기 | 배란다 컵케익

주제로 부평에서 진행될 문화도시 추진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의 이슈와 전략적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제안되었다. 두 번째 포럼은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부평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가치와 철학, 생태계 조성, 도시공간과 문화 계획의 통합적 접근, 민·관협력,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주요 논의 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포럼의 주제는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를 중심으로 부평 문화도시의 비전에 대한 검토와 부평의 문화예술 자원인 품물대축제, 미군 부대의 대중음악 역사를 융합하여 현재의 부평 음악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 정체성, 음악 관련 사업 형태, 지역민의 음악 활동 등이 결합되어 부평의 음악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를 주제로 문화 특화지역 사업이 제시하는 문화도시 브랜드에 대한 시각과 부평 문화도시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부평의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는 부평 시민의 생활문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나 인정, 상상,

참여할 수 있는 부평만의 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국내의 성공사례 모델로 삼은 음악 중심 문화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국내 음악도시 사례 지역을 방문, 연구해왔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례가 되고 있는 가평, K-pop 클러스터 및 음악극 축제가 자리 잡은 의정부, 음악창의도시 통영 등의 사례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부평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민·관이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평 음악도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최대한 많은 지역민과 문화예술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5년 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사업 계획은 음악산업, 음악교육, 음악동네조성, 콘텐츠 개발, 시민생활, 아카이빙 6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음반제작, 유통, 마케팅 등 음악 산업 관련 자원이 부족한 인천, 부평 지역에 ‘BP음악산업센터’ 구축을 통해 음악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컨설팅, 아카데미 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음악교육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삶의 여가로 즐기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동네 조성은 지역 구석구석 유흥 및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구축을 통해 일상에서 음악 및 예술을 즐기며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콘텐츠 개발은 부평밴드페스티벌 및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등 부평의 음악적 문화자원 토대로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민 생활 사업은 곧 개관할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분야는 그동안 깊이 있게 조명되지 못했던 부평의 음악적인 역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사라져 가는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분야의 사업계획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각 분야에 특화된 주제를 논의하며 부평에 실제로 필요하고 어울리는 음악·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추진기획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되고 추진 협의체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실무회의는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청, 부평구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방안을 검토한다. 주민의 생활문화, 지역적 특성, 경제 기반, 관련 법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바라보며 최적의 방향과 방법으로 적용되어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깝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는 의견을 제시한 문화예술인 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부

평이 음악도시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지역성 발굴과 자발적인 참여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생성과 전문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

음악도시,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2016년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해로 부평구문화재단 주관으로 6월 9일 ‘부평 음악·융합도시 포럼 -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를 열어가는 부평’이 진행되었다. 포럼을 통해 고유의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문화도시의 정책 수립 방향과 내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실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흥대 앞 문화 생태계 변화 과정에 비추어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성과 자생성에 주목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와 유통 플랫폼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음악도시 부평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를 주제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사업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10월 8일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Music Town - 음악동네 만들기’를 진행하여 부평 구내서점, 카페, 라이브클럽 등 5개소에서 부평 음악인을 중심으로 미니콘서트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지역민과 음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되어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음악동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0월 14일~15일에는 음악도시 부평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및 대중음악 밴드로 구성된 무대는 부평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다. 어떻게 부평의 매력을 살리고 구조화할 것인지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반환되는 60만㎡ 규모의 부평미군부대 부지와 도시의 구석구석이 음악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앞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음악산업의 물꼬를 부평으로 트고, 아이돌 위주의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화도시사업팀 박재은

부평문화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예술의 장

2016 하반기 부평문화포럼

‘부평문화포럼’은 부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다.

부평문화포럼은 2015년 이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재단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포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 통합 이전에는 부평아트센터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각각 포럼을 진행하여 포럼의 통일성이 부족했다. 명칭을 부평문화포럼으로 일원화시키고 해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전문가와 관계 단체들에게 부평의 정책적 조언과 전문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4월에 개최된 부평아트센터 개관기념 국제 심포지엄은 ‘아트센터 637개 시대, 지역 공공아트센터가 나아가길’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전국 민간 및 공공립 포함 637개 공연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비전

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그해 5월부터 아트센터 커뮤니티 홀 호박(Heart Of Bupyeong ArtsCenter)에서 착안하여 만든 호박문화포럼을 2회차 진행하였다. 1차 포럼은 ‘아트센터, 공간이 콘텐츠다’라는 주제로 부평아트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아트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운영해나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관련 전문가와 아트센터 관장이 발제자로 나서 아트센터 공간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1차 포럼은 지역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차 포럼은 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차 포럼은 8월 ‘기타큐슈 아트센터의 무대안전관리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외 선진운영 기관의 무대감독을 초대하여 아트센터 무대감독들과 지역의 무대예술인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2011년은 부평구문화재단 5주년을 맞아 2회에 걸쳐 지역 내에 문화기관과의 관계정립과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관계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 토론회는 부평의 문화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의 위상과 지역

내 문화기관과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역 외부 정책전문가로부터 지역 내 문화기관 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지역 관계자들의 이야기로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2차 토론회는 기초문화재단으로서 광역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경기 지역 사례와 광역재단인 인천문화재단 관계자에게 협업 가능한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단체 인사들을 토론자로 세워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 논의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대를 맞아 문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시대,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역할과 현재 재단의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제정, 조직, 운영과 관련한 회계전문가의 의견, 다른 문화재단과의 비교 등을 통해 다각도로 토론하였다.

2015년 재단 통합이후 새롭게 단장한 ‘부평문화포럼’에서는 포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문화정책 흐름 및 부평구 문화정책 현안과 이슈를 고려한 주제선정 등 기획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기획해나갔다. 2015년에는 2016년부터 진행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을 주제로 진행했다. 모두 4회로 1, 2차는 부평구가 음악·융합도시를 준비하는 다른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3차, 4차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소개와 부평이 왜 음악·융합도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부평의 미래에 대해 그려보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2015년도 부평문화포럼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부평활동가 및 예술가의 참여가 부족해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2016년에는 한 가지 주제로 4회 차의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차에 걸쳐 진행하고, 적극적인 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주었다. 포럼운영위

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포럼운영과 기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의미 있고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 포럼은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에 앞서 생활문화센터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생활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2차 포럼은 일반적 강의형 포럼에서 벗어나 집단으로 토의하면서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실사용자인 주민들이 모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었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재단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반기 포럼은 향후 부평구문화재단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회차별 다른 주제를 선정했다. 3차 포럼은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 지원과 지역문화자원의 홍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포럼을 통해 국내외 사례 파악,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하였다. 4차 포럼 주제는 ‘부평 문화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으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 등 생활문화와 더불어 현 문화정책의 주요사안인 문화다양성을 선정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 개념과 가치 확산을 위해 사례 중심의 발제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 청년상인, 장애인 등 부평의 유관기관에서 토론자를 섭외하였다. 현재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로 지역 내 기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이론적인 법적 설명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방향 제시와 관련된 실행사례와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부평문화포럼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기획조정팀 안효정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

예술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부평 문화예술계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부평구문화사랑방은 부평문화원에서 부평구문화재단으로 위·수탁 이관된 2012년 이후 해마다 '예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문화 활동가 등을 초청 손님으로 모셔 작품 활동, 문화운동 등 인천 문화예술 환경에 대해 듣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와인파티를 하는 등 지역의 문화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왔다.

2015년 재단 사무국,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 3개 조직 통합 이후 재단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서 재단 정책 차원에서 2016년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이하 상상테이블)을 기획하였다. 인천과 부평,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를 만들어온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생활문화 활동가, 청년문화기획자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평아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상상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예술, 생활문화, 청년문화 세가지 영역과 관련된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격식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당면한 문화이슈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인천·부평 내 문화예술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종종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견 수렴 이후 실제로 문화정책에 반영되는 과정과 결실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였고, 적용 여부에 대한 뚜렷한 후속 과정이 없어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는 참여자가 여럿이었다. 이번 상상테이블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전략적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파트너를 발굴하고 함께 부평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재단의 지원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참여 그룹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재단 사업에 관심을 표하여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분과 위원회에 합류하였다. 단발적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 정책과 사업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는 없었으나, 상상테이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의 열의와 참여 욕구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이 주요한 성과였다.

2017년부터는 운영 횟수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부평문화 상상테이블'로 이름을 바꾸어 정착시키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동부권 및 부평구의 문화생태계를 일궈나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다. 논의의 장에서 머물던 2016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인천·부평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상상테이블 기획운영단을 구성하여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고 공문화시킬 수 있는 문화키워드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통 과정에서 협력파트너를 합류시켜 시의성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하고, 나아가 이들이 재단의 기존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부평구문화재단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위한 지역 활동무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기획조정팀 노수진



1 모더레이터 진행 모습 2 테이블리더 그룹 토의 모습
3 상상테이블 진행 모습



2013 그대를 사랑합니다

4 신뢰 받는 기관 경영

마케팅 홍보 시스템 강화

정기간행물 '보다'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및 SNS

운영 효율성 극대화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림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 시스템 고도화

정기간행물 '보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각도에서 살펴 '보다'



1 2015년 8월호 2 2015년 12월호 3 2016년 8월호

부평구문화재단 (보다) 발간내역
www.bpct.or.kr/community/journal.asp

BO:DA 보다

부평구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문화예술 정기간행물 '보다'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조직 통합된 2015년 3월에 창간, 반기별로 제작되어 모두 세 권이 발행되었다.

'보다'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적 콘텐츠를 다각도에서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재단 사업을 소개하는 기관지이자 문화예술계 최신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하는 소식지다.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연, 전시, 축제, 문화정책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특집 기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리포트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슈를 고루 다루고 있다. 또한 '보다' 책자 C.I를 BO:DA로 새로 제작하였으며 현대적인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산세프리(고딕)체로 표현했다.

마케팅팀 이해진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및 SNS

문화 뉴스의 전달자로서 큰 몫을 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인천, 서울·경기지역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을 선정하였다. 2015년에 출범한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1기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 거주민과 다른 지역 거주민이 고르게 선발되었다. 발로 뛰는 기사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지역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문화 뉴스 전달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기자단은 문화콘텐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한다.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세대별 조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부평의 문화를 가장 빨리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취재 후 블로그 포스팅 월 1건 이상 작성 및 SNS 업로드, 월 1회 기획회의 참석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기자단 발대식 및 해단식 참석이 활동내용이다. 활동혜택으로는 월 포스팅 건수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원, 부평구문화재단 행사 참여 및 공연관람 기회 수시 제공, 우수 활동자는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과, 활동증명서 발급 등이 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사업안내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SNS 콘텐츠 기획·운영방안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시의적 주요 홍보 이슈 및 축제 키워드에 따른 월별 콘텐츠 계획 수립과 콘텐츠 제작이다. 최근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이미지 및 텍스트를 모바일에 맞춰 작성하며 온라인 유저들의 검색 이슈를 기반으로 관련 검색어 및 키워드 데이터를 검색엔진에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마케팅팀 이해진



1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단 1기 발대식 2 부평구문화재단 블로그

블로그 blog.naver.com/bupyeong_art
 페이스북 www.facebook.com/bpartcenter
 트위터 twitter.com/bpartlove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림

문화사업 활성화와 지역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조성



부평구문화재단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림’ 자원조성 사업을 기획하였다. 문화드림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구성과 ‘시민회원(CMS)’ 모집, ‘클라우드 펀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2015년 1월 15일 ‘창립총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후원회는 지역의 기업과 문화기관, 예술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후원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해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립총회 이후 본격적인 회원 모집에 들어갔으며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평의 문화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적극적인 후원회 활동을 통해 2016년 11월 현재 53여 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약 2억 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후원금은 ‘거점별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와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기획한 ‘부평예술축제’, 부평구문화재단이 제작한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등에 지원되었다. 또한 부평구립예술단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아노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1 2015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2 2015 후원회 운영위원 워크숍 |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관람 3 2016 후원회 운영위원 워크숍 | 전통문화연수원 선비체험



후원회 운영과 함께 소액 문화예술기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회원’제를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회원제는 CMS(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월 5000원부터 원하는 금액의 기부가 가능하다.

2016년 3월 29일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민회원을 모집하여 2016년 11월 현재 70여 명이 가입했다. 또한, 시민회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문화나비’ 제도는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나비효과

를 일으켜 부평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지역의 음식점이나 점포, 기업들이 시민회원으로 가입하고 문화나비 현판을 정문에 부착하여 대외적으로 문화드림 사업과 시민회원제를 홍보하는 방식이다. 문화나비 가맹점은 시민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문화드림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향후 기금이 확대되면 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외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역 예술가·예술단체 매칭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펀딩으로 유명해진 온라인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과 연계하여 매칭펀드 모금 시스템을 구축한 후, 문화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문화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이 직접 매칭펀딩에 참여하여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매칭펀드 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 및 예술단체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마케팅팀장 정영진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 시스템 고도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개선하다



2015 부평구문화재단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환경 반응형 웹 제작

2015년 조직통합에 맞춰 3개 기관의 특징을 살린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그동안 운영돼 온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 3개 기관의 홈페이지는 콘텐츠 부족, 노후화된 디자인, 관리시스템 문제, 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였다. 공연, 전시, 교육의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예술인 DB구축 및 다국어가 지원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웹접근성 품질마크도 획득하였고, 디바이스의 변화에 맞춰 어떤 사이즈의 해상도에도 대응하는 모바일 환경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여 모든 기종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강관리 및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나아가 구민 및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용자 위주의 편리하고 안정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업무시스템 전산화 및 보안 강화

2016 전자결재시스템 및 사내 메신저, 대장관리 프로그램 구축

부평구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시스템 개발언어 등의 문제로 2012년 부평구청 전산정보팀의 자문을 구해 공공기관 사용률이 높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스템의 문서는 이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룹웨어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이전 문서의 이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업무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및 사내메신저, 대장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축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연동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웹접근성을 향상시켜 최근 급변하는 SW환경에도 능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후 ERP 프로그램과의 연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보안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속도 증가

재단 초기에는 전자결재시스템 및 내부업무의 보안시스템 미 구축과 임대 보안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 부재로 해킹 및 보안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2012년부터 전산담당자를 채용하여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망을 분리 운영하고 방화벽(UTM, IPS, 웹방화벽 등)의 하드웨어 장비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다. 또한 업무망에 보안 스위치를 도입하여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부 자료의 유출방지 및 보안에도 힘쓰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네트워크 속도인 100Mbps에서 최대 1Gbps로 네트워크 속도를 증가시켜 내부 전산시스템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2017년 내부 스위치 장비를 기가 네트워크 지원 장비로 교체하여 실질적인 속도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3 전산 DATA의 안정적인 보관

업무의 전산화로 전산 DATA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3년 자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서버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자료 유실 대비가 가능해졌고, 전원문제로 및 비상 상황 시에도 안전한 테이프방식의 하드웨어를 구축함으로써 재단 DATA의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해졌다.

시설관리팀 박광림



03

특별좌담과 기고

- 1 지역과 상생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가능성
- 2 부평 문화생태계를 가꿔나가는 문화기관들의 노력
- 3 10년 차 원년멤버들이 말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초기 모습
- 4 부평 밀착형 전시프로젝트의 평가와 전망
- 5 문화도시 5인 5색,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미래상
- 6 재단 통합 이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교육의 발전방안
- 7 부평구문화재단 야외축제 평가와 향후 과제
- 8 열정으로 일궈낸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레퍼토리 공연

1. 지역과 상생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가능성

Ⅰ 일자와 장소

2016.10.5 부평아트센터 대표이사실

Ⅱ 취지

재단설립 10주년 및 기관 통합 2년 차를 맞이하여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흐름에 대한 대담을 통해 재단의 과거,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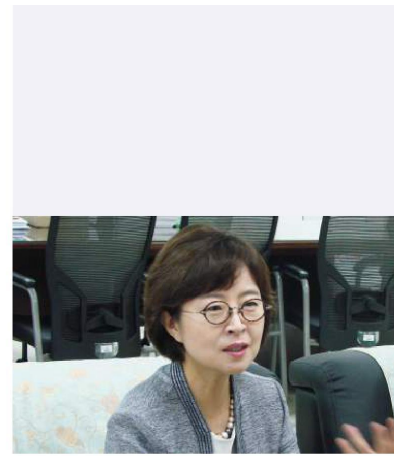
Ⅲ 참여자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갑섭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현식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표신중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0년, 기관 통합 이후 2년이 되었다. 2003년에 부평구에서 발주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수요 조사 및 시설 설치·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보니 부평구가 당시 55만 2천명의 규모로 인천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종합적 문화공간은 물론 단위 문화시설, 각종 체육 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이 급속한 공업화나 도시화로 인해 외부인구 유입이 빨리 이루어졌지만 수도권 변방으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고, 문화·환경·교육 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 시민들의 정주욕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부평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도시경쟁력도 매우 낮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다가 2006년 부평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위·수탁하는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문화재단으로 결정하여 이후 부평구문화재단의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재단 업무가 시작되었다. 짧막하게 설명 드린 부평구의 현황과 문화시설 운영 조직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심갑섭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아트센터에 대한 갈증이 무척 팽배되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역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많은 이유가 지역 문화시설의 관리 때문이다. 당시 부평에는 문화시설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밖에 없었고, 부평구립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해 두 개 있었지만 수요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아트센터에 대한 갈증이 무척 팽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당시 부평아트센터 건립을 반대했다.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 한창 논의되고 있었고, 이전 후 부평시내 중심에 아트센터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 우면산 기슭에 있는 예술의전당 위치가 법원 검찰단지의 위치와 바뀌었다면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평아트센터의 위치 설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군부대 이전까지 제대로 준비해

“부평구문화재단이 있어야 아트센터든 도서관이든 시설의 설립단계부터 전문성을 발휘하여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다.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기무부대 부지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사들여 아트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의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백운역 철로 옆에 콘서트홀이 지어지면 진동이 전달되는데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한 정치인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데 진동이 무슨 상관이나고 할 만큼 전문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부평의 여러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논의 당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이 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있어야 아트센터든 도서관이든 시설의 설립단계부터 전문성을 발휘하여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현식

당시 부천, 고양, 성남, 서울 중구 외에 눈에 띄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없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충무아트홀을 만들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한 경우인데, 지금도 여전히 기초문화재단은 성남아트홀이나 고양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다. 지금은 광역·기초단위 문화재단이 전국에 72개 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기초문화재단이 18개고, 광역단위에서 남은 경북, 울산, 세종도 설립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방금 박옥진 대표님께서 부평구 현황과 재단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잘 말씀해주셨다. 내가 인천발전 연구원에 소속되어 부평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부평지역에는 풍물축제가 발달하면서 부평 문화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생겨났고, 척박한 부평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부평구 여건에서는 문화재단 조직을 만드는 작업이 시설을 짓는 것보다 빠르다고 판단하여 설립을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나의 관점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초기에 조직다운 모양을 갖추기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재단의 경우 자기 조직 안에서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추나갔던 반면 부평은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되면서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위·수탁 운영하며 존재하다가 아트센터 설립 이후에도 재단 밑으로 통합되지 않고 위·수탁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 기간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과 아트센터 관장이 따로 있고, 이런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재단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표신중

특이할 만한 점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시설운영 이전에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역량을 모으는 기구로 출발했고 정책적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아트센터 설립과정에서도 재단의 역할이 컸다. 현재 아트센터의 위치에서 공연장이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고, 크고 작은 설계변경을 24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은 시설운영 이전에 지역의 의견과 역량을 모으는 기구로 출발했고 정책적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 당시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분리된 채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공연장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 구조이므로 재단은 비록 조직이 작아도 독립재산제를 바탕으로 정책기능과 지원기능을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기구로 만들어 공연장 사업과 별도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도 속제다. 성남문화재단이 240억으로 예산이 가장 많았던 때도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예산은 7억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남아트홀과 같은 문화시설을 갖게 되면 주요 평가기준이 시설 쪽으로 이동해 버리므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문화지변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 주목받게 된다.



박옥진

10년 전, 부평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위·수탁 관리해야 하는 주체의 필요성,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일궈낸 부평풍물축제를 선순환 구조로 끌어가는 체제의 요구, 인구 56만의 거대한 부평구의 문화적 담론도 형성하면서 정책화시켜야 하는 의식에 의해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면, 일을 추진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인력 세팅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시설 운영을 위한 직원으로 한정되어 문화정책 관련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갑섭

초반에는 대표이사 체제가 아닌 상임이사 체제였다. 그 이유로 정치적 견제도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기관장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없으니까 역사박물관도 같이 운영하게 되어 역사박물관장이 재단 상임이사였다.



이현식

재단 인건비를 비롯한 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의 의지로 재단이 설립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구청의 행정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자치시나 군과는 다르게 재정이 훨씬 열악하다. 자치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사업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신생 재단에 역 단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과 구 의회의 설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다. 1년에 주어지는 몇 천 만원의 사업비와 적은 인력으로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박옥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장 건립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모두 소진한 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영화를 상영하거나 대관 중심으로 운영이다. 공연장의 존재 근거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듯이 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어떠한 정책 사업이 절대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현식

맞다. 최근 트렌드로 시설설립에 따른 재정·운영 부담으로 인해 작은 군·구 단위에서 문화시설은 설립하지 않지만 눈에 명확히 결과가 보이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으로 재단 설립이 논의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성이다 보니 재단 직원이 지역에 맞는 현실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없다.



박옥진

“출범 당시 작은 두 문화기관
위·수탁으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12개의
많은 문화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작은 두 문화기관 위·수탁으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12개의 많은 문화시설과 기관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통합 이후에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부평구립풍물단 세 구립예술단이 재단의 식구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중 가장 의미 있던 지점은 2010년 부평구문화재단이 자기 몸집보다 큰 부평아트센터의 위·수탁하게 되었던 때이다.

예전 도시재생 사례인 영국 게이츠헤드 도시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알다시피 철강 산업으로 부흥을 누리다가 쇠퇴한 도시다. 도시공동화가 일어났던 도시인데, 조각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수입으로 공연장을 짓게 되었다. 이 공연장이 부러운 점은 작은 소도시인데도 주민들이 1년에 20~30만 명이 들락날락한다. 끊임없이 아카데미를 다니고, 여기에서 악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용객이 늘어나다보니 그곳은 문턱 높은 아트센터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위한 센터인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여전히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오는 메카로서의 훌륭한 공연장 기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공연장이 재단법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철저하게 재정자립도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큰 축이 정량적 평가다. 몇 명이 왔고 수익이 얼마 났느냐를 철저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기초지자체 공공극장의 기능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수익률 증가보다 지역사회 속에서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성과 중심의 한국 현황에서는 게이츠헤드의 공연장처럼 공공성이 강화된 주민 생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제약이 크다. 부평아트센터가 재단으로 포함되었으니 기능과 역할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부평아트센터가 단독적인
재단법인으로 있을 때보다
기초문화재단 안의 공연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공성 확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부평아트센터의 모든 사업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수익성과 경영효율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평아트센터가 단독적인 재단법인으로 있을 때보다 기초문화재단 안의 공연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공성 확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연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무료공연, 야외축제의 횟수를 늘려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준 높은 다양한 예술장르 기획의 전시사업도 시민, 예술가 등 다양한 대상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문화재단이 아티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예술가·단체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문화마실이라는 찾아가는 공연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이전에는 부평아트센터 BTL과 관련하여 수익성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부평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합류되면서 예술가 지원, 예술진흥, 시민과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확대 개발됐다. 문화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공공 공연장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하기에는 유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재단은 현재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립도서관 6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성문화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 2개, 부평아트하우스까지 12개의 시설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많은 문화기관들이 한 재단으로 묶이다 보니 재단의 주요한 정책방향이나 사업 기능을 제대로 잘 잡아가는 것이 주요한 책무로 여겨져 재단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는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여러 기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중심축을 잘 가져가기 위한 조건을 해달라.



심갑섭

기관들이 재단 안에 들어와 있지만 독립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재단에서 종합적인 관리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터득 속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운영 전략도 자체적으로 짜되, 재단과 의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갑섭



박옥진

기관별 전략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각 기관의 대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들여 설명하자면 우리는 부평관내 주민들에게 부평아트센터의 이미지를 묻는 이미지맵 분석조사를 하고 있다. 내가 2013년 7월 말에 재단 대표로 취임한 이후 그해 설문결과를 보니 부평아트센터 이미지에 대한 답이 모두 시설, 공연장 등 하드웨어더라. 이런 결과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의 주력 사업, 주요 사업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대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브랜드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도 설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음악, 신년음악회, BUKIF 초록누리축제 등 콘텐츠로 답변이 되더라.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결과였다. 이처럼 부평구문화재단이 목표하는 이미지로 가기 위해 주요 사업, 주요 전략, 주요 콘텐츠 개발을 세우는 것이 기관운영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인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과 같은 음악극과 부평 음악자원을 총집결할 수 있는 ‘부평밴드페스티벌’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이 향유자를 넘어 능동적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현식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유사 사업은 연계해서 굵직한
사업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현식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재구조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이 몇 배로 늘어 너무 사업이 많아 백화점 나열식이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과감하게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마다 의미가 있어 그게 쉽지 않더라.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유사 사업은 연계해서 굵직한 사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전략일 것이다.



심갑섭

동의한다. 전략이 5개라고 했으면 5개만 가져가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밀고 가라. 그것이 성공해서 자연히 굴러갈 때 그 분야에 매진해서 안정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 부평구문화재단은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표신중

“유럽에서 문화수도를 만든
배경도 문화가 다른 나라의
중공업과 같은 역할을 해내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표신중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도시를 이념화하거나 슬로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원래 문화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유럽에서 문화수도를 만든 배경도 문화가 다른 나라의 중공업과 같은 역할을 해내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기반이 풍부한 도시는 성공했지만, 아닌 곳은 오히려 재정적자 때문에 2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때문에 많은 도시가 문화전략을 포기하거나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새로운 진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지표로 측정·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 할 것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옥진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린츠 시 같은 경우는 성과 목표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몇 명의 이용자를 늘릴 것이며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맵이 있다.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단지 이미지로 브랜드를 만드는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지표로 측정·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 할 것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현식

연구팀과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민공청회, 자문위원회를 진행해 보완해 나가겠다. 추진협의체를 거쳐서 시민과 만나는 과정도 거칠 것이다. 말씀하신 점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



심갑섭

한마디 덧붙이면 한 가지 색깔로 가져가라. 그러면 빨리 성공할 것이다.



박옥진

음악도시로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리라 본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본 영국의 게이즈헤드와 이태리 베로나 시의 주민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하더라.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 작은 공공기관일지 모르지만 지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직원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방향을 만들어내겠다.

2. 부평 문화생태계를 가꾸아가는 문화기관들의 노력

Ⅰ 일자와 장소

2016.9.21 부평아트센터 VIP회의실

Ⅱ 취지

재단 소속 기관들이 따로 또 같이 사업을 일궈내고, 부평의 문화·복지·평생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Ⅲ 참여자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광경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부평구립도서관장 이희수

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주정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소영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광경전

“부평구문화재단 본부는 부평아트센터, 부평·부개문화사랑방, 내년 부평생활문화센터로 바뀌게 될 부평아트하우스 등 4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경전

부평구문화재단 본부는 부평아트센터, 부평·부개문화사랑방, 내년 부평생활문화센터로 바뀌게 될 부평아트하우스 등 4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위·수탁기관으로는 부개·삼산·부평 기적의도서관과 갈산·부개 어린이도서관 등 6개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 이 자리에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기관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부평 전역의 문화생태계를 가꾸아가는 과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우선 각 기관의 설립 초기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이희수

부평구에 구립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었던 2003년 당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부평구, MBC '느낌표'가 진행한 어린이전문도서관 만들기(기적의도서관) 운동에 6만 명에 가까운 부평구민이 서명을 했다. 민·관이 협력하여 부평 기적의도서관을 만들게 되었고 건립 후 부평구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 1년 동안 부평 문화원에 위탁되었다. 이후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기관들이 개관되면서 부평구문화재단에 속한 시설이 늘어났다. 처음 재단 설립 당시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고위 목적사업이었지만, 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단 정관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구립도서관은 위·수탁기관이 되었다. 2015년 재단 통합 이전까지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재단 본부 소속이 아니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소영



신소영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이론과 교과 중심 성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체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체험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2007년부터 전국 여러 곳의 성문화센터들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도 2011년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 속해 함께 개소하였다. 인천의 290만 인구 중 영아를 제외한 유아부터 19세 미만의 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이 15% 정도 된다. 당시 인천에는 성문화센터가 한 곳밖에 없었고, 부평구에 한 곳이 더 필요했다. 2013년 3월, 수련관에서 성문화센터가 독립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던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된 배경이 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부평구의 숙원사업이었다. 따라서 운영주체를 정하는 데 심사숙고하여 2011년 10월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부평을 열어가자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된 10만 부평구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인천시 청소년의 20% 이상이 부평구에 있다. 즉 부평구의 59만 인구 중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있다는 뜻으로 이들을 위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은 절박했다. 2011년 11월 23일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은 부평문화재단이 수탁하여 공공성을 중요시하며 운영될 수 있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개방성을 더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민간위·수탁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지켜나갔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회계와 구청의 협조적인 지원, 청소년지도사들의 노력 등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해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닐까 한다.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4월 개관했다. 부평아트센터 개관 전, 부평지역에 문화시설로 부평문화원과 도서관 한 두 개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아트센터 설립과 건립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미군부대 이전을 예상하여 미군부대 부지가 위치적으로 제일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부평아트센터가 당시에 개관되지 않았다면 59만 거대 도시 부평은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채 삭막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부평아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6년 기적의도서관 개관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도서관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평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과 위주 운영방식이 도서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화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이 점은 방금 청소년수련관장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강조한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아트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은 시설관리 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문화사업과 공연은 공공성 위주여서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로 인해 괴로워한다. 문화회관은 당연히 적자다. 혹자라면 공공영역에 둘 필요도 없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올해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 생활문화예술은 문화예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대두되었다.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한다는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발현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자체 생활문화 지원이 의무가 되었고, 부평구로부터 위·수탁받아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부평아트하우스 건물을 올해부터 우리가 위·수탁 받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받게 되었다.

다음은 부평의 문화서비스를 담당하는 문화시설별 특징과 영역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도서관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지식정보센터다. 부평구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평생교육의 장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대학 졸업장으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학교 이후의 교육을 책임지는 도서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어릴 적부터 문화적 소양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성장하여 주체적인 문화 향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도서관은 문화소양을 닦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일반적인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고등학교들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도서관을 찾는 어린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프로보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능을 나누는 경험을 쌓게 되고, 언니, 오빠, 누나, 형으로부터 친



이희수



고동희



곽경진



이희수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주정연



고동희

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주정연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개방성을
더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하는 민간위·수탁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지켜나갔다.”

“기초문화재단의 아트센터는
필연적으로 지역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고동희

근하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도 이다음에 동생들을 위해 재능을 나누어 주고자 마음먹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부평구립도서관의 대표적 사업으로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이 있다. 이 사업은 부평 대표도서 한 권을 주민 추천과 투표에 의해 정한 후, 함께 대표도서를 돌려가며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책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사업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학교, 아파트, 도서관뿐만 아니라 올해는 부평 지하상가 204곳의 상인들과 연결해 책을 읽고 있다. 또한 군부대, 다문화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트센터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기초문화재단의 아트센터는 필연적으로 지역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부평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범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 기억난다.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당 도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관객이자 아마추어 공연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예술가, 예술단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부평에 위치한 문화기관과 함께 사업을 병행하는 등 여러 결합방식이 지역 속으로 접근하는 데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가지 들자면 우선 부평구문화재단이 직접 제작한 레퍼토리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발원지인 부평의 문화적 자원을 공연 콘텐츠로 만든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2014년 초연 후 3년째 완성도를 높여 공연하고 있다. 부평의 이야기를 담 아낸 작품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인들이 제작에 참여한 의미가 있으며, 올해 국립극장 공연을 계기로 해외 및 지역순회 공연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국악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도 3년째 이어온 제작공연이다.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래설

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생생한 전통음악연주가 곁들여진 좋은 공연을 만들었다.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이 합창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했다. 전시의 경우 ‘BUKIF 초록누리축제’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 그리기대회’도 응모자가 300명이 훌쩍 넘었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부평 영아티스트 공모전’도 지역 안팎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그림경매를 공공재단에서 시도하여 올해 3년 차다. 미술작품의 유통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될 수 있고, 판매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포럼연극’은 청소년, 주부, 다문화가족 등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고민하는 바를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고 무대에서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감사하게도 후원회에 지역 기업가들이 참여하여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신소영

우리 성문화센터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교육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나 찾아가는 성교육이 중심사업이지만 그 밖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이 있다. 2012년부터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위탁 특수학급 학생들과 부모, 교사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 계약구청의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 장애, 비장애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방학과 토요일을 활용한 참여프로그램, 학교 축제 지원, 상담, 캠페인 등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극을 활용한 성교육으로 인형극이나 상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친숙하게 만나고 있다.



주정연

청소년수련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1999년 인천 인연동 화재사건에서 드러난다. 화재로 호프집과 당구장에 있던 10대 청소년들이 사망했다. 청소년 문화의 부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제기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의 속도가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관은 안전한 청소년기관으로 청소년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참여, 청소년 문화공간, 진로 자립, 지역사회 공감의 네 영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 조직의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부평구 청소년 참여예산활동을 하고, 청소년 문화공감을 위해 공연하고 전시하는 예술동아리 활동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영상미디어 활동, 청소년 한마당 축제, 초등학생들의 일일문화체험, 수험생 즐기고 풀고, 꿈을 찾는 진로활동, 별자리캠프, 청소년 토래 문화를 형성하는 토래기행의 사업이 있고, 진로자립을 위한 창의공작플라자와 대학생 전공 실습, 청소년 진로 활동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공감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가족 1박2일 캠프, 지역사회참여활동, 학교연계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지역 간 교류활동, 함께해서 좋은 세상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인 문화사업은 ‘토요일은 피크닉’으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10개 이상의 학교 소속 동아리가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토요일 오후 가족의 건전한 여가시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쌓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행사다.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당 도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신소영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삼산동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지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간이용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삼산동, 부개동 아파트 지역 아이들과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이다. 특히 중학생부터는 일시체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가까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온다. 교육관 성교육은 어쩔 수 없이도 극을 활용한 성교육이나 아동안전지역 찾아가는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우리 기관에서 먼 지역을 우선 배려해서 심정동, 산곡동, 청천동, 부개1동, 부평2, 3, 6동 등에 먼저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는다.



주정연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도 삼산동, 부개동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 축제 지원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있다.



박경전

재단 본부가 위치한 아트센터는 삼산동이 멀다. 부평권역을 4개로 나눠서 권역에 속한 동이나 학교들을 연계하여 사람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신소영

부평구문화재단의 아트센터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이 부평구 곳곳에 위치한 점은 훌륭한 장점이다. 작년부터 우리 성문화센터도 방학특강이나 동아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트센터의 호박홀이나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정연

우리도 혜택 분배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삼산1동과 부개3동이다. 즉 청소년이 많이 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동을 배제할 수 없어서 청소년 비율에 맞게 동별 인구수를 배정하여 신청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전

생활문화센터가 개관되면 초·중·고 학생들과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인 사용자가 대부분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초기에 생활문화센터를 신청할 당시에는 생활형 생활문화센터로 계획했다. 그러나 중앙의 컨설턴트들이 부평아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치적으로 외곽에 있고, 부평구가 워낙 넓으니 부평아트하우스를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부평구 곳곳에 생활형 생활문화센터와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공간과 협력하여 그 근처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직접 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연승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 삼산동과 청천동에 아는 공간에 제안도 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제도적으로 넓혀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동아리, 공장과 회사에서 운영되는 사내동아리, 다양한 음악동아리, 풍물패 등 여러 형태의 지역 동아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문화축제로 결과를 모아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러 형태의 지역 동아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문화축제로 결과를 모아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수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클럽 조성과 BP음악산업센터 개관을 들 수 있다. 과거 부평 신촌의 클럽을 재연하기 위해 클럽 5개 오픈을 목표로 클럽운영 경험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BP음악산업센터에서 운영할 음원유통사업을 집중 논의 중이다. 또 한 가지 음악경험자가 배출되어 실연자와 감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음악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와 부평의 많은 실용음악학원을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음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지금까지 음악교육은 보통 클래식이었으나, 우리는 대중음악을 가르치고자 한다.

3년 전부터 도서관에서는 5명에서 10명 안팎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문화아지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동네 취미 모임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대여 공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배우는 곳으로 생각하는지 학습 관련 모임이 주로 대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여 다채로운 색깔의 소파를 가져다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굳이 문화아지트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도서관에도 이런 장소가 있으니 재단에서 생활형 생활문화센터를 지정할 때 도서관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주정연

한꿈카페 1층에도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놓았다.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간식을 먹을 수도 있다. 우리도 역시 문화아지트로 꾸며 나갈 생각이니 생활문화센터 지정 시 이 공간을 함께 고려해주면 좋겠다.



이희수

만약 생활문화센터가 곳곳에 생기게 되면 악기 연습을 주로 하는 공간, 미술을 주로 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마다의 특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박경전

성격이 다른 각 기관의 차별성을 엮어 연관 짓는 방법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달리 생각하고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주정연

재단의 많은 문화인력과 청소년들을 연결하여 직업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 일정에 청소년 동아리 지도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논의 중에 있다. 잠재적 문화기획자인 청소년들이 공연기획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어린이날 부키프(Bupyeong Kids Festival) 초록누리 축제에 참여하는 위·수탁 기관들의 홍보도 함께 부탁드린다. 재단 산하기관이 함께 부키프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디에도 부각되지 않았다. 단순히 산하기관이 부스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재단과 산하기관 전체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희수

도서관도 해마다 함께하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점이다.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연계사업을 하는 실무협의 회로 함께 모여 기획 아이디어를 모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각 기관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문화사업본부의 ‘극장, 책을 읽다’와 도서관의 ‘북콘서트’의 경우 두 기관이 서로 협업하면 더욱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전시기획의 경우도 도서관 공간이 작아 원



부평구립도서관장 이희수

화전시나 책 전시밖에 하지 못하는데, 지금 회화나 미술에 국한되어 전시하고 있는 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입체적인 독서와 관련된 기획전시를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예전에 인천문화재단에서 현대 동화작품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모하며 이를 전시한 적이 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엄마와 아이들이 전시를 관람했다. 만약 아트센터에서 그런 전시를 기획한다면 도서관과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동네 문화마실'같은 사업을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기관끼리 함께할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무궁무진하다.



고동희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간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사실 사업계획부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점이 많지만 각 기관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기관별로 경직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곽경진

질문을 바꾸어 보겠다. 조직 전문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동희

조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관료화될 시기에 와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분야 특성상 민간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경제적 활동이 보장된다면 민관 순환이 쉽겠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지 않다. 문화기관 입사 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팀장에서 정년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창의적

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행정의 틀 안에서 관료화된다면 면피사업만 기획하는 조직으로 고정되고 관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단본부의 경우, 지금은 생활문화센터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생기면서 담당 인력이 보충되고 있지만, 이후 사업의 변화나 신규인력 정원 없이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조직을 역동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순환보직이 불가능하지 않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욕심을 내거나,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겠지만, 공연기획 담당과 전시기획 담당이 바뀔 수 있고,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담당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곽경진

순환보직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을 때 전임자가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업무가 짙어져 있어서 시도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변화를 통해 조직에 자극을 줘야 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희수

도서관에서도 직원들에게 사서의 프로그램 기획업무와 행정의 업무를 함께 겸하게 했다. 하지만 직원 간의 불만이 생겼다. 사서 측은 왜 우리 영역을 행정 직원에게 넘기느냐 불만을 표하고 행정은 우리 일

“지금은 생활문화센터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생기면서 담당인력이 보충되고 있지만, 이후 사업의 변화나 신규인력 정원 없이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



고동희

이 아닌 것을 왜 시키느냐는 불만이었다. 당시에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기획이 전공에 따른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고려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도 이처럼 업무교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과 전시, 교육의 영역이 분명한 아트센터는 직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재단은 채용하는 직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직원들을 업무 로테이션시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사업 또는 기관운영의 성과를 지금 당장으로 볼 것이냐 미래를 놓고 볼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인데 기관장이 미래를 보는 관점으로 여유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희수

도서관의 사서나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증 소지자로 특수한 업무를 한다는 선입관이 있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동희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 일반 기획자가 무대기술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서로 영역을 구분하여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만스럽고, 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북한 상황은 조직 전체로 봤을 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곽경진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나 재단에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신소영

성문화센터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직원, 성문화 활동가, 동아리, 청소년 등 사람이 남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자주 모여 일하고, 꾸준히 역량강화를 하면서 우리 센터의 이미지가 전문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기쁘고 보람된다.



이희수

내가 근무를 시작한 2010년에는 부평지역의도서관 한 개 관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후 5 개의 구립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어 5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51명으로 그 규모도 커졌다. 현재는 6개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2개의 교육청 소속도서관, 16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함께 '책마실' 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평구민에게 다양하고 확대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 보람이 크다.



주정연

문화감수성을 위한 직원프로그램들이 인상 깊다. 함께 영화 또는 연극을 보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직원연수프로그램은 각 일터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화해주는 느낌이다.



고동희

관객은 공연무대나 전시물을 통해서 만족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기획자들은 관객들을 보고 감동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 사업을 하면서 애를 먹고, 제대로 일이 안 되기도 하지만 별려놓은 행사에 많은 관객이 와서 환호해 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닌가 싶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점은 문화재단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문화는 없고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열심히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 보상, 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가 채워지길 바란다.

3. 10년 차 원년멤버들이 말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초기 모습

Ⅰ 일자와 장소

2016.10.12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C

Ⅰ 취지

10년 동안 근무해 온 재단 원년멤버들이 재단의 초창기의 사업을 떠올리고, 직원으로서 재단에 바라는 점과 비전에 대해 나눔

Ⅰ 참여자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설관리팀장 이재홍

부개도서관 총무팀장 최인호

갈산도서관 운영팀장 이미영

부평구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고훈영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김유정



김유정

우리 재단은 2006년 12월 법인 등기가 완료되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이 자리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원년멤버 여러분과 함께 재단 설립 초창기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마련했다.

201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문화재단은 모두 72개이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 중 기초문화재단이 5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재단은 11번째로 설립되었다. 이른 시기에 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그만큼 부평지역에 문화적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국, 역사박물관, 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지금은
도서관 6개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재단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부평지역의 여러 문화예술 원로들을 중심으로 재단설립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2005년 3월 재단 설립 용역연구를 시작으로 그 해 12월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었다. 발기인 총회가 다음 해 2006년 10월에 진행되었고, 12월 4일 법적으로 재단 설립허가가 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져서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3월 9일 박물관 개관식과 함께 재단선포식을 같이했다. 처음에는 도서관, 박물관을 부평구로부터 수탁운영하면서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하면서 관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시작했다. 당시 13명이었던 조직이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118명이 되었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커지고 예산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재단 사무국이 아닌 정책기획실로 운영되었다가 1년 정도 뒤, 사무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관광기념품, 삶의 문화상 정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사무국, 역사박물관, 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지금은 도서관 6개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첫 채용공고가 난 시점이 2006년 10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원서를 제출하러 왔을 때, 지금의 인천 여성가족재단 앞에 7호선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이 떠오른다. 당시에는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생소했지만, 나는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의 업무를 할 것이라 여기고 입사지원했다. 아까 말했듯 초기에는 직원이 적어서 역사박물관과 기획의도서관, 사무국이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초기의 추억을 떠올리면 재미있던 일들이 많았다. 여기 계신 이재홍, 최인호 팀장과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 삼산유수지를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려 무릎 가까이 물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 박물관 한국·터키 수교 50주년 기념 국제미술교류

전, 단오축제 그네뛰기 전국대회 등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난다. 2009년 부평아트센터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당시 직원 13명보다 많은 인원이었던 20여 명을 힘들게 채용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이 지금처럼 커졌고, 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과 각오로 재단에 근무하고자 했는지 묻고 싶다.



갈산도서관 운영팀장 이미영



이미영

나의 경우는 문화재단보다는 부평 기적의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채용된 후, 문화재단 안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고, 방금 말씀해주신 역사박물관 개관행사, 단오행사, 유수지에서 한 행사를 접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진행한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부평구립도서관이 지금은 6개관이 있지만 처음 기적의도서관만 있을 당시 도서관이 왜 성격이 다른 문화재단에 속해 있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도서관의 추세가 예전처럼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공연, 문화강연, 영화상영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직을 만든 워런의 판단이 선구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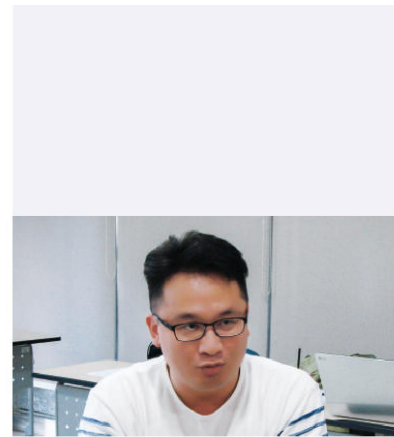
고혜정

디자인 전공을 한 나는 문화재단에 입사하면서 행정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부평구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은 초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단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지켜보면서 부평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우리 재단이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부평에서 거주하는 내 입장에서 재단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느끼시듯 초창기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여겼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아쉽게도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근무할 직원들에 대한 애무를 신중 쓰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예전처럼 뭉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영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같이 밤도 썼다. 한 번은 추석 때 비가 많이 와서 삼산사거리까지 잠겼다. 기적의도서관 천장이 무너져 내려 비가 새고 소장도서가 다 젖었다. 그 당시 여기 계신 이재홍 팀장님과 최인호 팀장님이 김장용 비닐을 구해와 물길을 뚫어주셨는데, 만약 지금 도서관이나 아트센터 어딘가 물이 새면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뛰어나와 줄까 생각이 든다. 내 일이 아니어도 먼저 도와준 일이 진심으로 고맙웠다. 지금까지 그런 희망을 갖고 근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부개도서관 총무팀장 최인호



최인호

나는 재단에 들어오기 전 리서치 업무를 했던 터라 입사하여 문화 분야 고객발굴을 할 줄 알고 거창한 꿈을 갖고 왔다. 하지만 박물관 회계와 재단 회계 두 가지를 하게 됐다. 회계업무를 처음 하느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청에 몇 번씩 가서 묻고 확인하면서 구청과의 유대관계도 끈끈하게 쌓았다.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직접 나와서 봐주었다. 내가 기대한 업무와 차이가 있긴 했지만 남부끄럽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일을 해냈다. 하지만 계속 모르는 문제가 나와 힘들었다. 직원들보다 파견 사무국장이 와서 기를 먼저 잡았으면 재단이 체계를 갖추고 일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다.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토요상설공연이다. 예술단체와 문화향유자를 이어주면서 재단의 최소한의 기능들을 적절히 잘하지 않았나 싶다.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박물관 개관식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인원을 통제할 일이다. 그날도 비가 무척 많이 왔다. 왜 그렇게 도서관이나 박물관 개관행사에 눈이나 비가 올까.



김유정

고생한 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화제를 바꾸어 재단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말해볼까 한다. 처음 사무국에 파견 나온 공무원은 남찬우 국장, 이용구 국장이 있었고 2011년에 민간인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강영구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심순영 차장이 있었다. 아트센터는 개관 전부터 이진섭 팀장과 김상범 주사가 있고 남찬우 국장이 있었고 지금 부평구 평생학습과의 유정남 팀장, 지금 의회에 있는 이순실 팀장이 아트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다. 수련관에는 김동진 예산팀장과 최선주 팀장이 있었다. 8명 정도 각 기관에 함께 근무하면서 행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등 재단의 기틀을 잡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단들이 조직의 기틀을 잡기 위한 공무원 파견이 1~2년이 계속 되었다. 지금은 익숙해진 문화재단에 전공자들이 채용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는 과도기가 아니었나 싶다.



최인호

공무원 파견 사무국장이었던 남찬우 국장은 설립 이후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왔다. 초창기 사무국장을 모집하다가 채용이 되지 않아 구청 공무원 파견 사무국장으로 대체되었다.

임원 인건비가 없어 대표이사도 아닌 상임이사도 재단 운영을 모두 했다. 그마저도 상임이사도 역사박물관장으로서 함께 두 개의 기관을 운영했다. 상임이사도 사무국장이 재단의 비전이나 사업의 당위성을 만들어야 했으나, 공무원이 파견직 사무국장으로 배치되면서 재단의 추진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 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파견사무국장이 재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을 따오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으며 사무국장의 발언 권한이 많지 않았다.



고혜정

얼마 전에도 핸드시계를 새로 구축하여 낡아 결재시스템이 편리해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사무 결재를 받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역사박물관에 있는 상임이사님께 가서 결재를 받았다.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사님께 결재를 받아야 했다. 비 오는 날에 갈 때는 결재판이 비 맞지 않게 뽁뽁 싸매고 다녔다. 회계 업무를 하는 최인호 팀장과 나는 장부를 수기로 쓰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연필로 쓴 후 그 위에 펜으로 썼다. 펜이 또 틀리면 도장 찍고 붉은 줄을 그었다. 그 이후에 발전한 것이 엑셀

을 사용하는 것이다. 처음에 행정직들은 다른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라 도서관에 모여서 스티디를 하면서 업무를 했다. 예전 일을 생각하면 전차결재가 생겼다는 사실로도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르겠다.



이재홍

나도 시설관리 업무를 생각하고 입사했으나, 막상 와 보니 행사를 지원하는 멀티업무였다. 초창기 인원이 적다보니 행정담당자를 따라 벤치마킹도 다니고 행사 협조도 하다 보니 시설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조직이 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 중 가장 떠오르는 에피소드로 2008년쯤 구청에서 진행하는 신년 산행을 위해 계양산에 막걸리를 짊어지고 엄동설한에 올라간 일이다. 눈이 와서 미끄러운 산행 길에 광목으로 무거운 막걸리 말통을 메고 올라갔다. 지고 올라간 우리 직원들은 막걸리 한 잔도 못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먹고 마셨다.



이미영

부평풍물축제에 처음 참여했을 때도 생각한다. 그 당시 대표님이 도로 통제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해서 금요일 밤 12시에 나가서 지켜봤다. 2011년까지 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솔직히 나는 부평에서 나고 자랐지만 풍물축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입사한 후에야 알았고, 부평에서도 이런 큰 규모의 축제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김유정

풍물축제와 관련된 추억이 많다. 풍물축제 기획단에서 체험파트를 담당했을 당시 체험부스가 양쪽 인도에 놓여 있는 형태였는데, 대규모 행사 경험이 없어 고생을 하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노점상과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난다. 노점상과 타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최인호

나는 입사 후에 문화에 관한 소양을 쌓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많이 다녔다. 교육에 참석했을 때 우리 재단에 대해 소개하면 부평구에 문화재단이 있었느냐며 놀라는 반응이었다. 우리 재단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다. 하나는 일찍이 부평구에서 선구자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구나, 반대로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었다. 우리 재단은 도서관과 역사박물관을 위탁하고 있고, 나중에 아트센터가 건립될 거라고 말하면, 구 단위에서 문화정책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되느냐고 의아해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럴 때면 과연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문화시설의 정책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후 구로문화재단 등 구 단위 재단이 생길 때 우리 재단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위상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문화시설의 정책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



김유정

재단의 역사 중심에 아트센터 건립이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태동기라고 한다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성장기로 생각할 수 있다. 아트센터 개관했을 경우,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듯 규모가 작은 재단이 자기 몸집보다 큰 조직을 운영하는 형국이었다. 아트센터를 통해 재단의 외연적 확대가 이루어졌고, 안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정,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며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5년 조직통합 이후에 비로소 문화재단의 모습을 갖췄다. 문화재단이 10년 동안 지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미영

도서관은 독서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아직까지 도서관에 공부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명한다.



김유정

지역에 미친 영향을 나의 업무 중심으로 말해보자면 우리 재단이 여러 지자체에서 재단 설립을 위한 롤 모델이 되고 있어 여러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산 금정구, 전라도 순천 등의 기초단위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인천지역에 있는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재단설립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재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최인호

우리 도서관에도 시설공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 측에서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바꾸기 위해 묻는 경우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평가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어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보인다고 들었다.



김유정

지금까지 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앞으로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갈무리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우리 조직에 마케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든 좋은 콘텐츠를로 수요자에게 포장하여 보여줘야 하는데 홍보역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가 싶다. 프로모션에서도 마케팅의 다양한 기획과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데 여건상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안타깝다.



부평구문화재단 시설관리팀장 이재홍

“재단의 공연이나 대외 행사를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홍보를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짜보면 어떨까.”



이재홍

우리 재단의 공연이나 대외 행사를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홍보를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짜보면 어떨까. 내가 늘 생각하던 홍보 아이디어로 12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 중 50%가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할 때, 사업홍보 스티커를 달아서 일정 기간 동안 다닌다면 지역 곳곳에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면 홍보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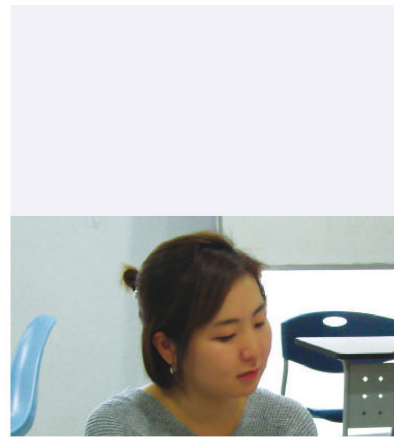
최인호

우리 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처럼 문화예술 지원과 사업부분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기금,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난다. 즉 우리 재단은 구에 종속되어 책정된 예산 안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천만 원, 이천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일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금의 독립성을 띠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재단이 더욱 지역에 밀착되어 발전될 수 있게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

나는 부평구의 문화정책은 조금씩 차차 젖어 들어가듯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편리해진 후로 인천지역 주민이 서울이 아닌 부평에 있는 문화시설을 방문할 만한 강력한 매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갖춰나가야 하겠지만, 애항심을 호소하며 재단의 시설들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차차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덧붙이는 말로, 재단 조직이 좀 더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 역사박물관의 위·수탁 해제, 재단본부와 아트센터, 사랑방의 조직통합도 있었지만 본부에 속해 있던 도서관은 위·

수탁기관으로 떨어져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갑자기 신규 입사 직원들의 임용계약 조건에 위탁 종료 시까지 단서가 붙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뿐만 아니라 위·수탁 기관장들은 재단의 일원으로서 재단 경영과 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큰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긴 안목을 가지고 안정화되어야 한다.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큰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긴 안목을 가지고
안정화되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고혜령



고혜령

말씀해주신 점에 모두 공감한다. 우리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 친절한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관이므로, 내부 분위기는 외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문화재단 종사자에게 필요한 BP창의경영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매달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절교육도 진행하였다. 또한 업무 외적으로 동료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동호회 지원제도도 있다. 이처럼 내부의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직 내 갈등이 드러나는 점이 안타깝다.



이재홍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 지역 주민, 예술가, 유관단체와 협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려나가기 바란다.

시설팀장으로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시설부분은 원래 해마다 건축비의 2%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뒤야 하지만 우리 재단은 예산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커녕 수선하는 데에 급급하다. 충분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이 미약하다. 일단 예치금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도 수선충당금을 두는데, 우리 재단은 못하고 있다.



고혜령

우리는 예산의 독립성이 없다. 예산 독립성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청 예산계정에 없는 우리만의 예치금 예산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김유정

여러 의견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가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주제로 우리가 이룬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기 바란다.

4. 부평 밀착형 전시프로젝트의 평가와 전망

Ⅰ 일자와 장소

2016.10.4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Ⅱ 취지

재단 사업영역 중 전시분야의 경우 담당자 1인체제로 기획·운영되어 사업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미술·전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부평 특화 프로젝트의 의미와 성과를 조명하고자 함

Ⅲ 참여자

한신대학교 교수 공주형

독립큐레이터 채은영

부평영아티스트 참여작가 김수진

부평작가열전 참여작가 김윤희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참여작가 김이슬

부평구문화재단 큐레이터 우사라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노수진



노수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노수진



우사라

부평구문화재단 백서 발간을 앞두고 그동안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부평아트센터의 전시 사업이 방향성을 가지고 잘 움직였는지, 개선의 여지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부평아트센터 담당 큐레이터가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가 분들의 참여 소회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전시프로젝트는 한 해에 기획 전시를 포함하여 10개가량이 진행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범위를 세 가지 프로젝트로 좁혔다. 혹시 말씀 나누는 가운데 다른 전시에 참여하신 경험도 함께 덧붙여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부평영아티스트' 프로젝트로 작년부터 시작된 신진작가 공모전이다. 여기 계신 공주형 교수님 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주셨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인터뷰할 3배수 이상의 작가를 선별하고, 2차 인터뷰를 통과한 작가들 중 개인별 PT와 심사위원 인터뷰를 진행해서 5명을 선별한다. 관람객들이 주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객 투표제를 도입하였고, 공모전이 미술 전문가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부평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2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근소한 차이로 김수진 작가가 최종 선정이 되었고, 올해 개인전을 마련해서 다음 주부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진행된다.

“소소하게 사람들이
미술을 쉽게 즐기고 구매하면서
예술을 통한 나눔을 누릴 수 있도록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평작가열전'이다. 부평에서 이뤄지는 그룹전과 개인전은 참여 작가가 한두 작품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작품과 작품의 사이즈를 키워 집중 조명할 수 있는 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까지 3회째 진행되었다. 여기 계신 김윤희 작가가 부평작가열전에 참여했다.

세 번째로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은 2014년 시작해 올해 3회째 진행될 예정인 미술품 자선경매 프로그램이다.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고 간극을 줄이고자 3부 스페셜세일을 마련하여 작은 그림 경매를 진행했다. 여기 계신 김이슬 작가의 작품이 2부에서 두 점, 3부에서 세 점 모두 판매된 것으로 기억한다. 일단 옥션의 포맷을 다양하게 구

성해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부평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표방하는 큰 비전은 미술시장 확대와 판로 개척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소소하게 사람들이 미술을 쉽게 즐기고 구매하면서 예술을 통한 나눔을 누릴 수 있도록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진

부평영아티스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기관의 전시나 공모전과 달리 작가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 작가들끼리는 전시를 같이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만나고 헤어진 후 서로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점이 보완되었다. 관람객이 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 작품을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알 수 있던 점도 좋았다. 하지만

부평영아티스트 참여작가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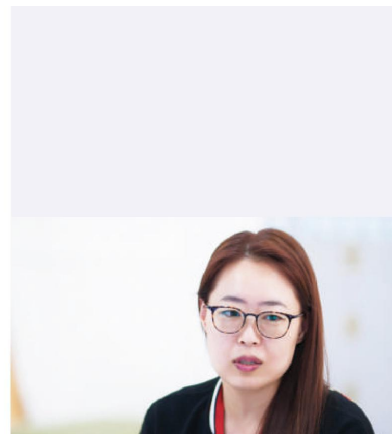
내가 최종 득표를 받게 되어 개인전을 열게 된다는 결정 이후 개인전을 위한 팔로우가 잘 이루어져 전시 작업실에 대해 조언 받을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전 전시는 작가들과 콜라보가 되어 들어갔지만, 개인전에는 큰 전시공간에 내 작품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라 작가로서 욕심과 함께 막막함도 있었다.



김윤희

부평작가열전에 참여면서 진행사항에 대해 담당 큐레이터가 미리 안내해주는 점이 좋았다. 이러한 사전 공지는 작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꼭 필요한 부분이다. 프로젝트의 취지가 부평작가의 기회증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부평미술인회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부평작가열전 참여작가들의 밸런스를 조절한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부평미술인회에 속해 있지 않은 내가 프로젝트에 어우러질 수 있어 상당히 좋았다. 미술인회 작품 중 신진작가 그림이 들어있음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부평의 작은 동네미술잔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협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작가들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아트센터에서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가들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어 좋았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평작가열전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 장르가 참여하는 기획을 시도하면 좋겠다는 점이다. 이차피 지역 협회에서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면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등 여러 분야를 섞어 진행한다면 시도만으로도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가 부평의 작은 동네미술잔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협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작가들도 느꼈을 것이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참여작가 김이슬



김이슬

담당 큐레이터가 작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기관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느낌이 확연히 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인전과 교류전, 옥션 화이트세일에 참여할 때마다 담당 큐레이터가 작가를 대하는 느낌이 좋아 이곳에서 전시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점은 늘 관람객 수다. 이 정도의 퀄리티로 서울에서 전시했으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관람하거나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나의 활동지역은 주로 서울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활동할 때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인천 문화소비자의 저변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맛집은 거리가 멀어도 사람들이 굳이 찾아다닌다. 이처럼 좋은 프로젝트를 SNS로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이벤트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발걸음을 행사장까지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부평옥션이 진행되는 과정은 작가로 참여하는 나로서도 재미있었다. 사람들이 경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림이 판매되어 더 좋았다. 다음에는 그림 경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 기회제공의 측면에서 그림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짧게 덧붙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향유 기회제공의 측면에서 그림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짧게 덧붙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노수진

관람객의 부족은 부평아트센터만이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역 갤러리 모두가 치한 문제다.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부평아트센터까지 굳이 찾아와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다. 작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전문가 두 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주형

김윤희 작가의 설명대로 부평작가열전이 부평구문화재단의 취지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평작가열전이 부평 작가를 한정된 대상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에 에너지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평의 작가들을 확장하려면 영아티스트전에 공모했던 사람들과 전시로 거쳐가는 사람들까지 부평작가의 개념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영아티스트 공모전을 통해서 부평아트센터에 좋은 작가들이 거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한 신진 작가들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드문 일인데, 이곳의 전시에 부평 작가들의 참여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처간 작가들의 네트워킹이 잘되는 것도 필요하다.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는 일반 갤러리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큐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1인 큐레이터가 일 년에 세 가지 방향의 기획을 하는 것도 대단하다 여겨진다. 부평작가열전의 기획이 보장되어 경기도미술관처럼 기획전에 참여해보지 못한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미지로 부각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부평아트센터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규정되지 않을까 싶다.

갤러리 꽃누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한신대학교 교수 공주형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을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자연스럽게
합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채은영

“작가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있도록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작가에게 적절한 전시를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비평의 피드백을 주는 뒷받침이 제공돼야 한다. 인천의 작가지원제도는 많지 않지만 전국 단위 공모전은 넘쳐난다. 작가들이 공모 지원을 통해 받는 혜택은 두 가지로 상금을 확실하게 많이 주거나 작가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정도다. 전자가 어렵다면 후자 측면에서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작가가 활용 가능한 소스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작가열전은 부평아트센터에서 가장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40대 전후의 작가들이 참여하면

척 좋은 공간으로 여겨진다. 재단 사업을 전시와 연결시키면 자연스러운 기획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아카이빙된 내용을 전시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을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자연스럽게 합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평에서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취지는 미술시장 유통구조의 개척을 위해서지만, 미술시장과 구매자의 저변 확대라는 의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획자가 보는 부평은 모호하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자체에 볼 것이 많아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인천 남구, 연수구, 남동구 사람들은 부평까지 안 온다. 여기는 중간, 딱 경계선이다. 인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로 진입하지 못한다. 관람객도 남구, 중구 쪽으로 가지 굳이 여기에 오거나 머무르지 않고 서울로 건너가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이므로 관람객을 지역주민과 전문작가 두 층위로 봐야 한다. 즉 대중적인 전시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거나, 전문 작가를 양성하고 그 전시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전시 관람률이 낮다면, 인천 부평아트센터에 좋은 작가가 전시한다는 점을 토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천에 제대로 된 갤러리나 전시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평아트리스트 신진작가 공모가 처음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를 따로 하고, 부평아트리스트 공모전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신진작가를 보여줄 수

좋은 것 같다. 40대 전후의 애매한 작가들이 많지만 그들은 전시할 공간이 없다. 마흔이 넘어가면 신진작가 지원을 신청하기도 모호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40대는 젊은 작가 층에 속한다. 지역에서 적어도 35세~49세 정도까지 허리에 해당하는 작가들을 백업해줄 수 있는 발걸 전시나 기획전을 진행하여 작가의 작품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전시를 연다면 1년에 두 번씩만 해도 2년이면 네 번이 된다. 이렇게 쌓인 작가와 작품은 이후 부평의 관계를 시작으로 다음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처럼 공공기관에서 판매 전시를 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고생하며 일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적다. 이런 프로젝트는 외부 게스트 큐레이터나 이벤트식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 미술장터’ 사업과 연결해 예산을 가져와 외부 기획자와 신규 콘텐츠를 섞는 것이 좋겠다. ‘화이트 세일’ 사업명은 아직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으니 브랜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부평 작가로 포함시켜야 할까.



노수진



채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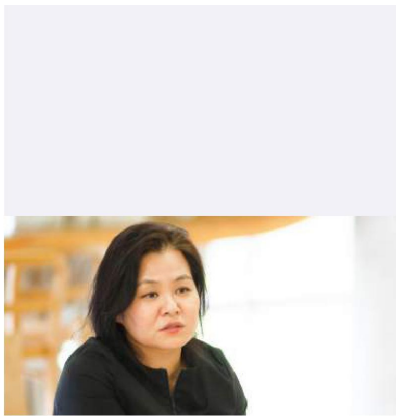
주민등록등본, 거주자 증명, 재산세 등 무엇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준은 결국 모호할 뿐이다. 모든 프로그램을 지역작가 위주로 기획할 수는 없다. 상징적으로 지역작가를 타깃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나머지 여러 개는 관계망을 넓히는 전시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 신진작가 프로그램에서도 작가들이 지역을 바꿔가며 계속 돌고 도는 문제가 있다. 작가 역량이 쌓이지 않는 채로 지역에서 프로젝트 위주로 그때그때 소비된다면 지역의 미술시장은 고인 물이 된다. 공공기관의 전시기획에는 지역 대상의 타깃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지켜보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준 높은 전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관람객인 지역민과 참여하는 지역작가는 상관하지 않는다. 역량 있는 기획이나 프로모션을 해줄 수 있느냐, 지역을 넘어서는 관계망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포지셔닝이 다를 것이다.



우시라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갤러리 꽃누리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좋은 전시가 있어야 지역 주민의 보는 눈이 높아지고, 참여하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수준도 점차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 작가 수를 줄이고, 제출 작품의 기준을 100호 이상, 두 점 이상으로 두어 제출된 작품 중에 선택했다. 지역의 작가들이 부평아트센터에서 전시하면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공신력을 쌓고, 젊은 작가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게 하려고 기획했다.

“지역의 작가들이 부평아트센터에서 전시하면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라는 공신력을 쌓고,
젊은 작가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게 하려고 기획했다.”



독립큐레이터 채은영



채은영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전시를 지역에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전시기획이 좋아 외부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역으로 나중에 지역 작가들이 그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싶게 된다. 백화점 나열식의 문화예술회관 전시와 차별화 되려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 전시를 하거나, 작가들이 제도적으로 작품에 대한 백업을 받고 이슈화시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 공공 갤러리에서 이를 위해 전체 디렉터, 에듀케이터의 역할이 나눠져야 일을 양껏 해나갈 수 있다.



공주형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한계점이다. 부평지역을 배제하고 아트센터의 존립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1인의 큐레이터가 기획 전략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부평에 비중을 둘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가를 엮을 것인지, 서로 부딪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혼자 고민하면서 일을 해낸다는 것은 그저 현상유지만 할 수 있거나 제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수진

여기는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시도 아니고 부평구다. 따라서 어떤 예술가를 구 안의 지역으로 한정짓고 했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역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부류가 전문작가가 아닌 취미활동하듯 협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내가 참가한 부평영아티스트 프로젝트가 내 이력에 남게 되므로, 내가 앞으로 부평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나도 부평 작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주어진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의 활동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좋겠다.



채은영

부평지역의 작가를 뽑는 것보다 지역연고 프로젝트를 뽑으면 어떨까. 지역을 시각예술콘텐츠로 바라보고 작가들이 지역을 테마로 한 연계전시 작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안팎 어느 작가든지 부평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리서치하여 자기 작업으로 콘텐츠화시킬 수 있다. 또 부평을 주제로 계속 작업을 양산할 수 있게끔 한다면 부평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들춰볼수록 다른 지역과 다른 매력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부평지역 작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든 부평의 콘텐츠를 시각예술화시킬 수 있는지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 리서치한 자료들이 아카이브로 남게 되고, 그것을 이후에 다른 연구자가 와서 공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즉 지역을 리서치로 한 기획이나 창작이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플랫폼이나 LAB처럼 콘텐츠를 축적한다면 재단 측에도 무척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리서치하는 지역소재 학교는 없지만 부평의 자료를 이미 축적한 민간전문가와 연결하여 기존 것을 재맥락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민속학적으로 접근한 자료가 있다면 예술가가 민속학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료를 토대로 시각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결이 부평에서 이루어진다면 공공미술로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주형

내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서울 작가라는 조건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2010년 이후 인천에 와서 기획단계에 인천작가라는 기준을 두는 것을 보게 된다. 인천 작가, 부평 작가를 규정해서 가뜰이나 부족한 작가들이 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방금 말씀처럼 부평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규정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특히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으로 5년 동안 음악에 매진해야 되니 작가들에게 아예 카테고리를 주고 리서치하는 기회를 주면서 부평의 자원들을 꼬집어내어 향후 음악과 융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부평으로 한정되게 좁히지 말고 열려나가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채은영

만약 음악을 큰 테마로 간다면 미술계의 요구와 관심 있는 사운드아트 등으로 특화시키거나 국내 좋은 전시를 교류전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된다. 그것도 전략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우시라

실무자 입장에서 늘 예산과 인력의 부족문제에 시달린다. 조직 안팎에서 원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늘 달라져서 새로운 사업을 원하지만,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더라도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전시는 다른 재단, 다른 아트센터의 사업 구성과 비교해 특화시키거나 독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와 가치로 부평옥션과 부평영아티스트 같은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해내기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채은영

전시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야 한다. 예산이 적다면 인력이 보충해야 한다. 어차피 전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홍보가 잘 안 되거나 뒷심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다. 전시를 하루 만에 준비해서 열 수도 있지만 벌여 놓는 것은 쉽다 그것을 홍보하고 관계 맺으며 피드백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매개하는 것이 재단 큐레이터 역할인데 그러한 주요 업무를 놓치고 가게 된다.



노수진

부평 옥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우선 담당큐레이터의 사업설명부터 들어보자.



부평문화재단 큐레이터 우시라



우시라

부평옥션의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이 경매로 수입을 잡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부를 하는 자선 경매로 진행했다. 일단 정책적으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부평아트센터를 거쳐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모았다. 시장가, 전시가, 경매가는 다르기 때문에 추정가를 이 세 금액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낙찰될 경우 수익금의 50%를 작가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를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옥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나 판매 루트를 모르거나 여러 이유로 작품의 판매가 어려운 지역의 신진·중견작가를 위한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는 기획한 담당자 로서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옥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참여 작가들 역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했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나 판매 루트를 모르거나 여러 이유로 작품의 판매가 어려운 지역의 신진·중견작가를 위한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는 기획한 담당자로서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경매 진행과정을 쉽게 보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 전문 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하고 응찰자들은 비딩을 하는 경매를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부평옥션 구매자들은 개인인 경우가 많았다. 긍정적인 점은 작품도 소장하고 기부도 하는 방식을 통해 미술 컬렉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술품을 한 점이라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세은영

나는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기획사가 나서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평아트센터가 유통을 한다면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잠재된 컬렉터 양성이 중요하다. 부평옥션에서는 이벤트로 끝나는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애호가, 잠재적으로 컬렉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답사, 지역작가 스튜디오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유통을 하는 경우 투입한 예산에 비해 판매 수익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100만원짜리 작가의 작품이 팔린다 하더라도 작가의 형편이 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매경험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진

부평옥션을 상업적인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섞여 있는데 그에 비해 구매층의 시각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변 확장을 위해 판매과정을 교육하는 취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민이나 예비 구매자에게 작품 감상하는 법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장터와 달리 누구나 와서 자기 작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교육과 접목시켜 소개하고 옥션에 내놓는 것이 어떨까.



공주형

상업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조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획자이고, 조연에는 추천한 사람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작품 구매자들은 100만 원짜리 가방과 100만 원짜리 작품을 다르게 생각해서 작품을 되팔 때의 가치가 오르기를 바란다. 따라서 전문가의 충고를 받아들여 작품을 샀을 때, 이것이 지불한 비용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200만 원짜리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 구매 이후에 대한 조연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은영

판매로 끝나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이다. 자기 작품을 내놓는 작가가 스스로 자기 작업에 대한 개런티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합리적인 작품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맛보기 형태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벤트성 옥션은 가능하겠지만, 장기화 프로젝

트로 가져갈 때에는 여기 아트센터에서 정말 팔고 싶은 작가의 작품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콘셉트를 분명히 해서 젊은 작가들의 현대작품 판매를 시도하는 실험적 마켓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유사라

기획단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여 반영했다. 2015년 경매의 경우 1부 메이저세일(Major Sale)은 부평옥션 구성을 중견 지역 작가의 작품이었고 말씀하신 젊은 작가의 작품이 2부 컷팅엣지(Cutting Edge)였다. 2년차부터 시작한 3부 스페셜세일(Special Sale)은 대중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작은 그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입찰해볼 수 있는 포맷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있었다. 컬렉터를 형성하여 미술판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기업 등의 VIP 판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구성해 나가겠다.



공주형

나는 100만 원이라는 경매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다. 지역에서는 왜 100만 원짜리 그림만 사는 컬렉터를 양성하는가. 제대로 소비할 사람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사라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다.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것에 익숙한 일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금액 100만원 선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다. 올해는 프리미엄세일(Premium Sale) 파트를 만들어 추정가의 상한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은영

예술가의 창작과 지역민의 향유를 지원하는 것과 작품의 유통은 전혀 다른 결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 좋은 작가 풀이 쌓이고, 재단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다음에 유통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거나 작가들에게 오픈갤러리와 같은 유통매개체를 소개시켜주는 것은 어떨까.



노수진

좋은 지적 감사하다. 작가님들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다. 작품활동 중에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갤러리, 미술관을 많이 거쳐 보셨지 않나. 만약 다른 기관이나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부평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이슬

2014년쯤 부평시장이나 골포천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듣고난 뒤, 골포천과 주변 환경을 그림으로 작업하기 위해 리스트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다. 부평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어 개인적인 작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재단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평작가열린 참여작가 김윤희

“부평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는 더욱 역량있는 작가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브랜드화일 것이다.”



김윤희

덧붙이자면 광주 신세계 갤러리 프로젝트가 비슷했던 것 같다. 미술, 문학, 시인이 함께 며칠 동안 특정 지역을 여행하며 아카이빙한 것을 모아 전시를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평작가열전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좋은 작가들 선정하기 위한 좋은 기획력이 뒷받침된다면 '부평'이 붙은 프로젝트들이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작가가 지역 안에 국한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작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1기에 선정된 작가들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좋은 작가들이 많이 선발되어 부평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는 더욱 역량있는 작가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브랜드화일 것이다.



김수진

재단에서는 작가들에게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작가들이 계속 모이고, 외부의 기획자들이 전시를 들여다볼 수 있거나, 재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할 수만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채은영

올해 인천문화재단의 시각예술부분 전시지원 36개 중 50% 이상이 인천아트플랫폼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곳 작가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미술계 인사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전시를 했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고 리뷰는커녕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은 채 지인들만 알음알음 오는 전시가 된다면 고인 느낌이 들 것이다. 사실 미술계 인사가 오게끔 하는 것, 전시를 열고 홍보를 하는 것까지가 큐레이터 일이다. 사립 전시와 달리 공공전시는 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안공간이나 신생공간처럼 빠른 전환의 전시를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은 지역이지만, 부평아트센터는 공공기관 갤러리로서 준 미술관의 역할인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 이곳을 공유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시를 여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도 되지 않는다.



유사라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부평아트센터는 공연장이 있어서 주말의 경우 공연관람객이 와서 보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그러나 해가 지나갈수록 평균관람객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전시를 장기간으로 가져가서 세밀하게 기획하고 작가와 전시의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전시가 진행되는 중간에 두세 가지 기획을 함께 해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채은영

“개인적인 바람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가
중장기적으로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가 중장기적으로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다.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기능과 교육기능이 필요하다. 미술관에서 필요로 하는 작가, 에듀케이터, 학예사 등의 지역 전문인력을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도슨트로 활동하는 지역 분들의 자부심도 크다.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 경력이 인정되어 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지역의 젊은 서포터즈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들이 홍보의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가 될 수 있고, 부평의 콘텐츠를 만들고 전시기획

도 하면서 지역에 남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이다. 또한 소장품이나 연구기능이 있다면 지역작가들의 작업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문화사업에 연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인천에 현재 등록된 현대미술관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평아트센터가 미술관의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작품을 사 주면 된다. 재단이 지역 미술관으로서 공신력을 가지고 개런티해주는 작가의 작품을 지역 기업이나 작품컬렉터가 사는 것이 쉬워진다. 또한 공립미술관이 될 때 국가 정부 기금이나 프로그램 혜택이 많으며, 갤러리에 비해 상징성이 크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관이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공주형

여기 전시기획의 가장 고민이 부평이라는 지역인 것 같다. 부평이라는 말이 진부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지역성을 놓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평에는 미술인보다 비미술인의 욕구가 더 크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부평을 차별화하는 미션을 수행하되, 운영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두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부평을 선두에 앞세우는 전략보다는 A는 부평이고, B도 부평이고, 그래서 A, B가 모두 부평이다, 하는 부평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좋은 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러 오게, 작가들이 참여하고 싶게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수진

긴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지금까지 전시와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담당 큐레이터의 고민이 일부분 해소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며 도약할 부평아트센터 전시프로젝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5. 문화도시 5인 5색,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미래상

1 일자와 장소

2016.10.24 부평아트하우스 1층 사무실

2 취지

부평 음악·융합도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철학과 이상적인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 나눔

3 참여자

부평울스타빅밴드 단장 정유천
몬스터레코드 대표 이강민

사운드네트워크 대표 박준흠
부평구문화재단 전 문화도시팀장 최성지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유세웅



부평구문화재단 전 문화도시팀장 최성지



최성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1년 차에는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부평구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이 함께 매칭되어 있다.

그동안 부평은 주민주도형 부평품물축제 등을 통해 전통 품목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20년 동안 치러진 품물축제 외에 도시 전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부평의 도시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음악을 선택하였고, 주민과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음악 향유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정책을 설계하여 부평 음악·융합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부평 애스컴(ASCOM) 미군부대 기지촌에서 성행한 라이브클럽은 대중음악의 중요한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 사실 외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부평뿐만이 아니다. 외항선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하며 술집과 라이브 클럽이 발달했던 중국 신포동도 마찬가지로 합주실, 음반가게, 음감회, 고등학교 밴드, 콜라텍이 과거에 성행했지만 지금은 클럽 세 개만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에 대중음악의 발원지가 더 있다 하더라도 예전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는 장소에 정책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동안 단발적인 이슈몰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외면적인 모습만을 베껴 만들어진 흉물이 남겨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에 맞는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과거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라이브클럽의 생리와 시대적 환경에 대해 고찰하고, 문화산업시장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 건강한 음악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사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올해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1년 차에는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현재에 맞는 전략과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어 개방성을 유지하고, 논의된 내용을 시민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예술가 및 전문가들과 상호협력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주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

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의 세밀한 선택과 성공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악동네-클럽 조성 파일럿 프로그램, 부평밴드페스티벌 외에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없지만, 4명의 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이상적인 윤곽을 그려보려고 한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다. 그 성과여부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잠재적 요구에 부합된 전략을 제시한다면 분명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음악·융합도시는 단 7년 기간 동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단계별 실행과 작은 성공을 통해 증명해 갈 것이다.



부평울스타빅밴드 단장 정유천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일환인 음악동네 클럽조성도 예전 그대로를 재현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현재에 맞는 음악·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정유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된 곳이 미군 부대 애스컴(ASCOM)이다. 하지만 부평이 음악·융합도시가 되는 것이 예전 미군부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일환인 음악동네 클럽조성도 예전 그대로를 재현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현재에 맞는 음악·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옛것을 자료로 삼으면 좋지만 너무 그것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전 자리인 부평3동에 클럽을 재조성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져 클럽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 옛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인 음악동네 분과에서 5개 내외의 클럽조성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부평지역에서 클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음향, 조명, 악기, 무대 등 시스템을 마련해주어 클럽화시킬 수 있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클럽조성을 한 뒤, 매달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평의 클럽문화를 육성하고자 한다.

인디음악의 메카 홍대에도 올해 5~6개 정도 문을 닫은 클럽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한 실패 경험이 있는 운영자

“클럽을 만든다는 것은
부평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점을 삼는다는 것이다.”

들이 직접 만나 그들의 요구에 대해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부평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클럽은 매주 밴드를 섭외해야 하므로 클럽운영 노하우와 밴드와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적정선의 지원을 하되, 최소한 5년 이전에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등의 조건으로 그 친구들을 유치한다면 클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클럽이 인디문화를 양산했다. 제작자들의 기획에 의해 움직이는 메이저와 달리 인디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곡, 장르, 스타일 등 그 어느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100% 할 수 있다. 최근 11년이 된 라이브클럽 타가 문을 닫으면서 잡지에 인터뷰를 했다. 문을 닫게 된 원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꼽을 수 있지만, 그보다 주요한 원인은 클럽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밴드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인디레이블에 소속되면서 돈이 되지 않는 클럽공연은 하지 않아 클럽에서 유망한 밴드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과거에는 크라잉넛, 자우림 같은 유명한 밴드들이 클럽공연을 많이 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클럽이 아닌 방송으로 향한다.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인디씬(SCENE)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평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도 가능할지 모르는 우리나라 음악시장을 뒤집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부평이 음악·융합도시가 되기 위한 작은 움직임, 파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클럽을 만든다는 것은 부평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점을 삼는다는 것이다. 클럽이 생겨서 음악가와 밴드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언론매체나 SNS에 클럽 얘기가 오가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민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클럽이 조성되면 형상화되어 드러나는 공간이 1년 365일 부평 곳곳에 박혀 있으니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축제 같은 행사는 행사가 끝난 후에 그 이슈와 관심이 소진되지만, 클럽처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보여지는 유형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악인들이 기타를 들고 오고 가는 모습만 주민들 눈에 자주 띄어도 충분하다. 클럽을 오픈하여 그 중 한두 개만 잘되어도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클럽을 만드는 데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클럽을 어떠한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려갈지는 클럽 운영자의 선택이다. 공간은 콘텐츠가 아니므로, 클럽 조성 이후에 자율적으로 운영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지원할 당시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계획의 배경을 과거 서양의 팝, 재즈, 록 장르가 미군부대를 통해 전파되었던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근거로 설득을 했다. 따라서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장르는 대중음악인 셈이다. 하지만 다른 장르의 음악이나, 다른 예술장르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두고 융합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부평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대표 사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평'이다. 재단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부평 문화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늘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의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의무가 아닐 수 있다. 부평 원도심이 활기를 띌 수 있는 시발점을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유입되고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이어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조성사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해서지만, 그 중심에는 부평의 발전을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음악·융합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며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5~7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에 선정된 7개 지역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민간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지원예산이 끊긴다면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음악을 토대로 문화정책을 구상한 것이 어제 오늘날만은 아니다. 이미 부평보다 인천이 음악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먼저 진행한 적이 있다. 201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주요 이행 과제로 '사운드 시티(Sound City), 인천' 프로젝트를 내세워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사업을 중심으로 음악, 소리, 악기와 관련된 연구, 체험, 전시, 산업 클러스터를 계획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부평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대표 사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얼마 전 강진군 전남음악창작소에 가서 느낀 바가 크다. 인구 3만의 도시에서 음악창작소를 유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과정부터 지켜봐 온 곳이다. 음악창작소의 잔디마당, 공연무대 등 시설조성도 잘되었지만, 전국에서 밴드팀이 몰려와 매주 공연을 하고 음반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 밴드의 앨범을 발매하는 등 프로그램

램도 알차게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녀온 밴드마다 좋은 경험이었다는 후일담을 전하고, 담당자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런 긍정적인 입소문을 토대로 전남음악창작소는 운영구조를 제대로 갖춰 나가고 있다. 우리 부평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준호



사운드네트워크 대표 박준호

“음악클럽은 뮤지션들의
공연 공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악소비자들을 상시적으로
유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음악 장르에 대한 혼선이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음악은 대중음악이기 바란다. 대중음악은 산업영역에 있고, 순수음악은 예술영역에 있다. 물론 대중음악이 예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정책 부분에서도 산업은 진흥정책을, 순수예술은 지원정책을 편다. 우리나라 정책기관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나뉘는 것이 근거이다. BP음악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을 다루는 센터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진흥정책을 계획해야 한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음악은 홍보마케팅과 유통기반의 산업영역이며 순수예술과는 다르다.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을 산업센터 안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결이 다르다.

처음 부평에서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기획할 때의 핵심은 도심재생사업과 음악인의 자생성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후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산업베이스를 거론한다면 이것은 민간의 비즈니스 영역이다. 일례로 우리가 음악클럽을 5개 운영할 때, 음악장르에 대한 강제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각 클럽의 수익을 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더욱 대중음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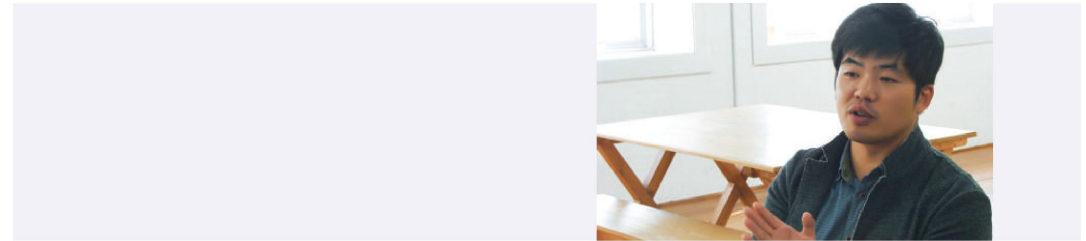
인디뮤지션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TV 방송출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략 2009년 슈퍼스타 K, 2011년 나가수, TOP 밴드 방송 시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이 시점부터 홍보마케팅의 유효한 수단이 TV매체로 몰입되었다. 인디 뮤지션의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수익창출의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거나 인프라가 있다면 굳이 TV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영미권 뮤지션은 아이돌부류가 아니라면 굳이 TV에 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U2가 굳이 TV에 나가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음악인들의 자생성, 즉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특히 홍보마케팅과 관련된다. 음악인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 소비자가 필요하다. TV공중파 너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있으니 기대심리 때문에 TV에 진출하려는 것 아닌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끝단은 이 안에서 얼마만큼의 상시적인 음악소비자를 키워내느냐일 것이다. 음악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음악가를 볼 수 있는 근거지가 클럽이다. 부평에 음악클럽이 조성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음악행위를 했을 때 공연을 관람하고, 음반과 머천다이징을 사고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음악클럽은 뮤지션들의 공연 공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악소비자들을 상시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부평에 국한된 음악소비자를 키워내면 안 되고, 적어도 인천, 수도권 쪽의 소비자들이 부평 음악클럽에 올 수 있는 기획이나 클럽 영업이 무척 중요할 것 같다. 과거 홍대 클럽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더 강력하고 신선한 기획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BP음악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뮤지션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BPM 서포터즈 사업과 서포터즈를 계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음악산업 아카데미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카데미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만 만들어내고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기획자와 아티스트가 절묘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두 축 중 하나가 기울어지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부평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을 기획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관이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나뉘져 있다고 본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으며, 사업적인 이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 인프라를 만들거나 시장을 키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국가나 관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평의 음악 인프라를 만들고 음악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음악사업 기획자, 음악산업 연구자, 음악정책가를 양성하기 바란다. 그동안 대중음악 양성정책이 다분히 켈리터 높은 실연자를 양성하기 위해 흘러왔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기획자와 정책가, 연구자를 양성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이런 아카데미를 이끌어간다면 분명히 외부적으로 음악·융합도시가 달리 평가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성과를 낸다면 훗날 인천시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비예산을 받고 2020년에 끝내지 않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로서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작업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2018년 정도에 이런 노력을 기울여 BP음악산업센터가 독립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유세운



유세운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것을 초반부터 기획하여 준비해나가되, 현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그 중에서 리스크가 큰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문화공작소 세움의 음악은 순수예술, 실험음악에 가깝다.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으며, 다양한 장르가 뭉쳐진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 장르만 클럽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대중음악만을 기준으로 강조하여 클래식과 재즈, 실험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제안된다면 이들은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자구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부평 주변의 실력 있는 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장르가 대중음악으로 너무 치중되는 느낌이다. 실험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클럽, 클래식을 토대로 한 도시마케팅 등 기획단계에서 온리원(only one)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장르로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음악을 토대로 한 기획들은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이므로, 후발 주자로 들어갈 때 어떻게 색다른 변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기존에 시행되었던 기획과 아이디어를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 예컨대 흥대 인디션을 부평으로 옮기는 발상보다 클래식, 사운드아트, 미디어아트 등의 모든 실험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모든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논의가 대중음악을 기준으로 한 산업과 유통의 전제를 깔고 간다는 점에 우려가 된다.

세움은 인천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왔으며 올해부터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부평에 안착했다. 하지만 우리 단체 역시 인천보다 서울에서의 활동이 더 많다. 우리의 마니아층이나 공연지역의 비율을 봐도 인천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상 인천공연의 모객이 가장 힘들다. 인천 내부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기도 하다. 우리처럼 부평 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지역 내 예술가들의 동의를 얻어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계획이 스타뮤지션 발굴과 함께 이루어지기 바란다.

문화사업을 통해 협력할 예술가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시장에 이미 진출한 예술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인천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많은데도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한다는 취지하에 기존 활동예술가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지역 내 예술가들은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여겨서 인지는 몰라도 늘 규모와 수익이 작은 사업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오픈 세리머니에서 지역 예술가와 작업하지 않고 외부에서 모두 끌어왔다.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에서도 헤드라인 라인업 외에 인천 팀을 올려달라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과 기획자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콘텐츠가 제대로 노출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지만, 지역의 공무원과 문화행정가들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석과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데, 포장지만 보고 내용물을 궁금해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

반대로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인천·부평출신 예술가를 찾아내어 이수마케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과 부평에서 A부터 Z까지 음악가를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외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부평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붙여준다면 지역의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오히려 유통을 사업화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에서 유통을 할 때 수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부평에서 소비자를 만들기보다는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것을 초반부터 기획하여 준비해나가되, 현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그 중에서 리스크가 큰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강민

대중음악의 도시인 홍대에 편중되어 있는 음악인과 음악 수요자들을 부평으로 끌어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한다. 사람들은 좋은 음악에 끌려서 음악가를 쫓고, 음악가가 활동하는 클럽을 찾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난해하거나 어려운 음악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익숙한 콘셉트의 음악들이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서 다뤄지기 바란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대중음악가와 기획자들에게 건강한 토양을 제공해 주는 기획의 땅이 된다.

“또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음원판매, 공연 콘셉트 등을 기획하는 기획자들도 양성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획자들이 음악인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음악으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희귀하고 신선한 발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도시도 음악으로 브랜드화 된 곳은 없다. 국내의 음악도시가 없는 것이다. 선례가 없는 이유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녹음실을 만들고 공연장을 늘리고 음반가게를 만든다고 해서 음악도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음악인들은 자체적으로 음악 제작과 디지털싱글화 작업을 쉽게 해낸다. 그만큼 홈 레코딩의 기술력이나 저가형 녹음실들이 많이 생겨났고 자신들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녹음과 제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넘쳐나는 음악인들의 디지털싱글과 무분별한 학과과정으로 배출된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포화상태로 인해 대중음악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현실적인 산업 컨설팅과 음악을 유통, 마케팅, 기획, 네트워킹, 브랜드화 등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다. 재단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엮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음악인들이 재단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또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음원판매, 공연 콘셉트 등을 기획하는 기획자들도 양성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획자들이 음악인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인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평이 음악·융합도시라는 브랜드를 얻고 홍대와 같은 음악거점을 떠나 부평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언제나 음악하기 좋은 도시, 부평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될 것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인 중에서도 국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어두운 이들이 너무 많다. 도움이 필요한 신생 단체나 어렵게 시작하는 청년밴드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알려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역 예술가들은 먹고살기 힘들다. 하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살기 위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며, 지역 안에서 매몰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음악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넓고 포괄적인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애항심의 도를 넘는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 음악가 모두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진흥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사업을 기획하고 어디까지 진흥할 수 있을 것인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사업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모이느냐가 성패를 가름할 주요한 변수일 것이다. 지역의 일부 예술가들을 위한 나뉘먹기 파티가 되지 않게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을 변별해내야 한다.

몬스터레코드 대표 이강민

6. 부평구문화재단 문화교육의 발전방안

Ⅰ 일자와 장소

2016.10.28 부평문화사랑방

Ⅰ 취지

부평아트센터와 부평구문화사랑방에서 기획·운영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을 점검하고 재단 통합 이후 신진기획자 양성, 예술가 재교육 등 교육내용과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재단 문화교육의 현재와 발전방안을 짚어보고자 함

Ⅰ 참여자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이정원

구물구물문화학교 대표 윤종필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교육담당 한송희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교육담당 최은정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장 이미숙



이미숙



한송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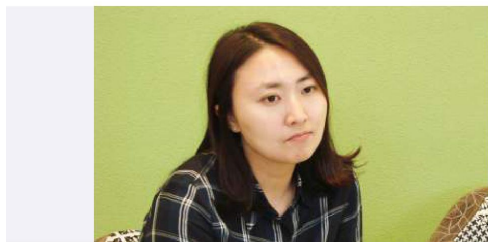
부평구문화재단 본부에는 교육 담당자가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의 공간별로 각각 한 명이다. 서로 의지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각 담당자가 관심 있는 소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을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재단이 통합되면서 교육담당자들이 각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평 전역으로 교육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한 고민 지점을 인천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인천문화재단과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나누려고 한다. 각 담당자가 지금까지의 문화교육 성과를 말해 달라.

부평문화사랑방은 2003년 개관하여 공연사업 위주로 진행하며 초·중·고 학생 대상의 여름·겨울방학 연극놀이와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네 깊숙이 위치한 공간의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 2012년도 12월 교육담당자를 채용하였다. 2013년에는 '컬처 오디세이'라는 성인 대상 영화·미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상반기 영화 프로그램은 '힐링무비카페'라는 서브 타이틀을 달아 음식·문화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6회 진행했다. 하반기 '미술을 맛보다'는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가볍고 알기 쉬운 선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양미술사, 현대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강좌를 6회 진행했다. 이후에도 방학 연극놀이교실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문화사랑방에 주로 방문하는 가족, 엄마와 자녀 등 대상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춤추는 우리집'은 초·중·고 학생 자녀와 부모가 참여해 커뮤니티 댄스로 소통하였고, 리듬, 음악, 악기가 섞여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곰따리 오르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컬처 오디세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성인대상 강좌 '클래식 시대를 듣다'를 운영하였고, 마지막 회차에 레크논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움직임 교육을 확대하여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쌍쌍댄스'를 상·하반기로 운영하였다. 포크댄스, 현대무용, 마임, 발레, 탈춤 등 다양한 춤을 엄마와 아이, 성인, 부부, 친구 등 폭넓은 대상층이 참여하도록 운영하였다. 참가자 수가 부족하긴 했으나,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외에 유아 연극놀이 프로그램 '연극 나와라, 똑딱'과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그동안의 짝박한 단발성 프로그램에서 탈피하고자 과정 수료 이후에도 기수별로 재능기부까지 가능하도록 '사랑방 인형극단'을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움직임 프로그램으로 '렛츠 댄'이라는 탭댄스 프로그램을 초등, 성인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성인 인문학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미술, 음악, 사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영화, 예술을 만나다'를 개설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교육담당 최은정



최은정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크게 예술가·기획자 대상, 일반 시민대상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예비 문화예술기획자 대상의 양성과정은 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는 ‘청년예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역량강화아카데미를 시작하여 ‘지역에서 예술하기’를 올해까지 운영하였다.

역량강화아카데미는 예술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6년부터 장르별 집중 심화교육인 ‘연극인재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한 바 있다. 기초문화재단으로서 문화교육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강의식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 접목한 완결형태로 가져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대상 아카데미는 부평아트센터 개관해인 2010년부터 시작해 초창기에는 기타, 크로키, 민요, 요가, 손글씨, 북아트 등 종류가 다양했다. 차츰 사진, 한국춤, 통기타로 수렴되어 2015년까지 성인대상 강좌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평아트센터의 공연장과 공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마지막 발표 공연을 올리는 ‘어린이 연극학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종필

예전에 부평문화원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기능하면서 웹진을 발행할 때 부평의 골목, 로터리 문화를 주목하거나 생활문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했다. 취재한 생활예술담인은 명화다방 주인장, 청천동 세탁소, 부평동 모녀떡볶이 아주머니, 부원중학교 옆 전파사 주인 등이었다. 이런 기록이 지속되면 부평 생활문화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여겼다. 당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미시적으로 지역을 파고들어가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이후 인천문화재단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맥이 끊겼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특성화사업을 공모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나갔다. 공모 초반에는 지역 특성과 대상을 문화예술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시도가 있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일반대상의 문화강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역에 맞물려 들어가는 과정과 연구도 필요하다.

“부평아트센터의
초창기 역량강화 교육은
공공극장이 커뮤니티아트를
지향하면서 공연장과 관련된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박수 받을 만한 시도였다.”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윤종필



최은정

기획자는 다양한 기초적인 삶의 경험이나 예술적 경험을 통해 문제의식이 발현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뀔 보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획자 양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참여하고 진득한 교육커리큘럼으로서 오래 가져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문화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특화된 사업을 고민하면서 주력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문화기획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기획자 양성교육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예담은 문화 분야로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모르고, 알고 싶어도 대학원 진학이 아니고서는 기획을 찾을 수 사람들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예담이 대학 학위과정도 아니고, 15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예담을 통해 완벽한 기획자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예담을 통해 실제 본인의 기획에 반영하거나 점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획자 양성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직접적인 관계성을 찾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기획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기획자 양성과정이 있지만, 인천에서도 청년예담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커리큘럼의 경우, 지역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이분들과 지역 안에서 연계성을 갖고 네트워크를 하다보면 청년예담 수료자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펼쳐나가는 기획 프로젝트들과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종필

청년예담의 방향성에 대해 최은정 담당자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과정이 진행된다면 부평은 무엇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올해 청년예담은 3년 미만 문화예술 종사자 대상으로 출판기획, 전시기획, 파티기획 카테고리 묶어 3주씩 진행하도록 수준을 맞추어 설계했다. 또 중간 과정이나 마지막에 수업의 주요 부분에 대해 담임멘토가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기획 입문자들은 문화기획을 축제와 같은 행사기획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을 바꾸는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사례도 덧붙여 강의를 줬다. 나아가 실행과정이 개설되어 참가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정원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이정원

“이러한 단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진행양상을 파악하고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공공은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아무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처음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재단의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과정에서는 300만원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성공의 경험이 아닌 실패의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디딤돌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에서 과감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과정을 기획해야 하는 점에 동의한다. 실제로 그러한 역할은 재단 교육 담당자보다는 부평에 뿌리내린 문화예술단체들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진행양상을 파악하고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 입장에서 지역 내 기초와 역할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구 단위 기초문화재단이 인천에서 한 군데 뿐인 현실에서는 지역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부평구를 제외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없으므로 문화원을 협력자로 세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초문화재단과 단체들의 공모 경쟁이 아닌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초문화재단은 단체의 프로그램 지향정보보다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 정립은 확실히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집중도나 연속성과 같은 호흡의 조절이 필요하다. 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문화예술기획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지만, 공공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으며 시장형성의 조짐이 충분하다. 실제 공공재원의 공급대비 실행 가능한 기획자가 없는 현실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재단 교육담당자는 말은 교육과정을 잘해내고자 하는 이상적 바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적으로 일하기 쉽다. 각각의 과정을 설계하면서 고민의 흔적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담당자들은 당장 그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일을 추진할 수 있어 거시적인 문화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것은 관리자의 역할인 것 같다. 몇 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과정을 지켜보면 완전한 기획자는 아니더라도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두세 명이 유입되더라.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 두세 명 건진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성과겠지만, 투입된 자원과 시간에 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사실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획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수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얻는



한승희



이정원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급급하여 참여자 수와 수익률에 연연하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과 주민, 지역단체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교육은 주어진 공간에서 잘 이끌어왔다.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임무는 상당하고 조직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나. 그동안의 문화교육 흐름은 그동안의 기초대로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지금처럼 해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연속된 흐름이 보이지 않는 고민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위해 따로 연구와 네트워킹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내에서 하나의 중심점이 필요하다. 기초문화재단의 문화교육 예산은 늘 풍족할 수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광역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문화기획, 예술지원과 같은 다른 영역에 비해 지역에서 소외되지 못할 정도로 과하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밀착 기획예산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때, 부평 외에 다른 지역도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싶다. 인천 각 군구의 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천 전체가 잘되는 것이므로 광역에서는 기초단위의 뒷받침을 잘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한승희

간혹 학교나 돌봄센터에서 무료교육이나 재능기부를 요청해 온다. 재단 교육담당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러한 요청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 생각되지만 지금의 여건으로는 공간에 발이 묶여 찾아가는 교육은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도 기초문화재단으로서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과 연계된 예술교육을 발굴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흡수시키고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역과 연계된 예술교육을
발굴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흡수시키고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교육담당 한승희



윤종필



한승희

그런 사업을 해야 외연이 넓어진다. 자꾸 우리 센터나 문화사랑방으로만 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합류할 수 있는 강사나 단체들도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정원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문화교육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면 좋겠다. 부평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의 교육담당자 간 소통이 잘되어 다행이지만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서로 이끌어주고, 서포트해주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소통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기대해 본다.



최은정

통합 이후에 외부에 나가 진행하는 교육을 개발하거나 그런 용도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예산은 거의 변함없고 기존의 사업라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는 상황에 한계를 느낀다. 적은 예산, 한정된 인원으로 고민만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자 대상의 교육과정과 지역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다.

“적은 예산, 한정된 인원으로 고민만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자 대상의 교육과정과
지역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다.”



이정원

공간마다 교육담당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인천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미술관, 트라이볼에 교육담당이 있지만 문화교육팀이 따로 있다. 이를테면 문화교육팀이 교육지원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브레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공간 내의 교육은 그 안에서 움직이되,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환기작업이 이루어져야 지속시킬 수 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교육담당자를 묶어 팀이 생기더라도 공간 내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며 완결구조를 가져가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팀 단위보다는 공간단위로 사업이 기획될 것이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팀이 생긴다면 브레인, 연구, 네트워킹, 순환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윤종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 없으니 부평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단체, 기획자 풀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므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지역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돈값없이 맞아 들어가는 기획이 생긴다. 좋은 기획은 난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닌 좋은 기획을 한다는 것은 비평적 관점이 남아야 한다.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의가 남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정원

결국 하나의 완결구조 모델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파편화되고, 단편적이 된다. 우리도 문화예술교육을 10년 진행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결과집만 남고 실제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완결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호흡으로 안정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상 PD역할을 한다. 있는 것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울 수 없다.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곳과 완결성을 가진 밀착된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을 놓치고 갈 수 없다.



이미숙

궁금한 점이 있다. 예술적 체험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사고가 단단해질 수 있는 자기성찰의 베이스 작업을 문화사랑방에서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측정하려면 10~20년이 걸린다. 진로탐색을 위해 주어지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문화적인 접점을 만들어주고 싶다. 광역문화재단이 교육청과 협업하여 자유학기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원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접근하기보다는 학교를 컨택해서 신뢰관계를 쌓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로 들어가면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위주의 저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숙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자유학기제 교육이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엉망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화재단이 기획을 하는 경우, 교육 퀄리티는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한승희

100% 무료교육을 진행할 때 정보력 빠른 어머니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또다시 수혜대상이 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재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는 데 대해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정원

원론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대상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료 교육에 대한 수혜자들의 태도가 문제되기도 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기술적 정책적으로 참가비를 도입했다가, 올리거나 낮췄다가 하는 시행 이후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장은 문화교육 담당자들의 이중적 미션이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담당자 개인이나 공간운영측면, 부평구문화재단 차원의 장기적 문화교육 정책은 기존에 비해 조직과 업무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2~3년 동안 지역의 관계와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을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교육팀으로 구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간 교육담당과 부평구 지역문화교육을 나눠 역할을 구분해야 하지, 한 명이 두 영역을 다 관장하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간다면 이후 공간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결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은 결국 조직과 사람의 문제다.



이미숙

“내년에 도서관이 재단 본부로
통합되고 생활문화센터가
팀으로 분리된다면 조직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내년에 도서관이 재단 본부로 통합되고 생활문화센터가 팀으로 분리된다면 조직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교육기능이 재단본부에 포함된다면 문화교육 조직 구조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는 해결하고, 공간의 특색을 살려 협력하는 기획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케팅팀이 재단 전체의 마케팅을 기획하며 도서관이 가진 주민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의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교육 담당자들이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나가겠다.

7. 부평구문화재단 야외축제 평가와 향후 과제

시사인전 사장 이승희

부평의 정체성 살리면서 독창적인 축제 만들려 노력
다양한 시민 참여방안 발굴로 지역 문화역량 키워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05년 12월 4일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듬해 10월 2일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설립 허가와 등기 절차를 마친 건 그해 12월 4일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현재 부평아트센터, 구립도서관(6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부개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 설립 초기엔 부평역사박물관도 운영했으나, 부평문화원에 운영권을 넘겼다. 그 대신에 부평문화원이 운영하던 부평·부개문화사랑방 운영을 맡았다. 모두 부평구와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2015년부터 부평구립예술단(구립소년소녀합창단·구립여성합창단·구립풍물단)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발전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지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15년 3월 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재단은 여러 사정으로 ‘문화적 내용’보다는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제는 부평구 산하 여러 기관이 재단으로 통합돼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려 한다. 이제 재단의 제2기이자 도약기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박 대표이사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문화’라는 화두가 지자체 문화재단에 부여된 이상, 우리 재단에도 지역문화 진흥이 지상의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시설 운영·관리뿐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에서 펼쳤다. 여기에서는 ‘야외축제’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야외축제’란 야외에서 벌이는 축제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방을 가리지 않은, 건물의 바깥’인 야외(野外)에서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해 벌이는 대대적인 행사’인 축제(祝祭)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 대부분 입장료 또는 관람료가 없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턱 없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나눔, 문화 복지’차원의 접근이다.

그동안 부평구문화재단이 펼친 야외축제로는 피크닉콘서트, 부키프(BUKIF,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부평예술축제,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있다.

‘거리극축제’에서 ‘피크닉콘서트’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야외축제는 2010년 4월 2일 부평아트센터 개관을 기점으로 활성화됐다. 부평아트센터는 4월 2일 개관행사와 함께 4월 3일 국내의 거리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거리극축제 ‘거리야! 놀자’를 간치처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개관행사를 축소하고 거리극축제를 연기했다. 이 거리극축제는 6월 5일 부평아트센터 야외 마당에서 펼쳐졌고, 5개국 17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이어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부평아트센터 놀솔원에서 ‘꿈꾸는 거리예술가’라는 제목으로 공연의 진수를 선보였다. 주요 공연으로 음악극·코믹쇼·퍼포먼스·마임극·서커스·광대극·난타 등을 선보였다. 당시 부평아트센터는 “양질의 문화공연을 발굴해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 시민에게 다양하고 부담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며 “전문 아티스트 공연을 특성화한 야외 상설무대로 만들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극축제 ‘거리야! 놀자’는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5월 28일 열린 거리극축제에는 2006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오키나와 출신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다이치와 한국의 마린보이가 다시 찾아왔다. 또한 2007년 ‘시즈오카 거리극 월드컵’ 챔피언인 니노 코스트리니가 공연을 펼쳤다. 이밖에 ‘사람냄새 나는 비누방울 마임’의 오쿠다 마사시(일본), 화가 인지 댄서인지 분간이 어려운 유진코 아키라(일본), 일회용 테이프를 이용한 거리 벽화미술의 창시자 에리카 두치(뉴질랜드), 국악과 아프리카 리듬의 만남을 선보인 쿵바야(코트디부아르, 한국), 안데스와 라틴음악의 향연을 펼친 가우사이(에콰도르), 국내 대표 공중 퍼포먼스 팀 프로젝트 날다(한국), 석고상 마임의 살아있는 정원(한국), 국내 캐리커처의 최고봉 째름 캐리커처가 참여했다. 특히 피날레공연 ‘불꽃쇼’가 대미를 장식했다.

이 거리극축제는 많은 시민이 지역 문화 살롱의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부평아트센터를 맛보는 기회가 됐다.

부평아트센터는 2012년부터 야외축제인 ‘피크닉콘서트’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를 위해 부평아트센터 광장 한쪽에 잔디도 깔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잔디무대에서 첫 행사를 치렀고,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공연을 열었다. 국내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7월 21일엔 클래식, 8월 11일엔 보컬, 9월 15일엔 재즈와 어쿠스틱으로 무대를 꾸몄다. 코리아팝소악제트라(지휘 이상근)와 테너 류정필, 바리톤 우주호, 소프라노 3인조 그룹 라뮤즈, 카운트 테너 루이스초이, 남성보컬그룹 스위트소로우, 어쿠스틱밴드 이바디, 색소포니스트 대니정이 출연했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 이 피크닉콘서트는 주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피크닉콘서트는 2013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피크닉 소(笑)소(疎)한 봄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5월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렸는데, 어린이날에 맞춰 주요 관객대상을 어린이에 뒀다. 공연마당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햇님공부방 청소년밴드 ‘골목길 밴드’ 등의 출연이 눈에 띄었다. 다양한 체험마당은 물론, 아나바다 장터와 소소한 미술가게(미술작가들이 소품을 전시·판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함께 만드는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평아트센터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2012년 10월 18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 공연장 관객 개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공연장이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만날 것인지, 지역과 공연장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혁찬 설엔컴퍼니 이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공연장은 전문 예술가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공공극장은 전문가가 아닌 지역 아마추어 예술가를 확산하는 역

활을 해야 한다. 지역 극장은 지역민의 눈높이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극장”이라며 “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극장이 공공영역으로 자리 잡을 때, 공공극장의 의미가 살아난다. 공공극장을 지역민이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는 “시민들은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을 좌시하고서 즐거운 문화 향유가 가능할까? 공공극장은 위로하고 대안도 생산해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지역의 문화공간은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크닉콘서트에서 부키프 초록누리축제

부평구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2014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코필하모닉소년소녀합창단 내한 공연, 제작 공연 ‘할라궁이의 모험’, 북미 아동극단 머메이드 씨어터(Mermaid Theater)의 ‘배고픈 에벌레’ 등(이상 유료 공연)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이나 달누리극장 무대에 올리는 것 이외에, 야외에서 초록누리축제를 열고자 했다.

특히 이 초록누리축제는 2001년부터 ‘어린이날 큰 잔치 어깨동무 내 동무’를 부평공원에서 열어왔던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부평아트센터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취소됐다. ‘어깨동무 내 동무’와 결합한 행사는 그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은 이듬해 5월 부평키즈페스티벌을 재단에 소속된 부평아트센터·부평구청소년수련관·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립도서관과 협력하여 치렀다. 초록누리축제는 무료 야외공연과 체험행사 등으로 꾸몄다. 금관 5중주의 스피릿양상블, 부평아트센터 가족합창단인 부평하모니합창단의 합창, 버블쇼 등을 공연했고, 페이스페인팅·머그컵 만들기·환경미술체험·캘리그래피 체험·부평역사에 관한 글쓰기대회 등을 진행했다. ‘어깨동무 내 동무’는 5월 3일 부평공원에서 따로 열렸다.



‘2016 부평키즈페스티벌’도 2015년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재단 소속 기관 이외에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미술분과가 미술체험마당을,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인 문화공작소 세움이 국악체험마당을 운영했다. 그밖에 몇몇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폭을 확장한 것이다.

‘어깨동무 내 동무’는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고, 공공기관에서 월등한 자본력과 인력으로 대규모 행사를 여는데, 민간단체들이 힘들게 준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가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연무대는 재단이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는 민간단체들이 준비하는 식의 협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하나 되는 ‘부평예술축제’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 지역문화 진흥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부평예술축제’를 열었다. 재단은 이 축제의 상을 지역의 예술성과 시민과 나누는 장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예술가들이 공연과 전시 분야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마당으로 지역예술의 소통을 확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 부평의 예술을 소개하고 지역 간 예술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공연과 예술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고자 했다.

부평아트센터 실내 공연장과 전시실도 사용했기에 온전한 야외축제라 할 수 없지만, 야외 특설무대와 부스에서 미술·서예·사진·공방 등을 전시하고, 야외광장에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 분야의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2016 부평예술축제’ 야외공연에선 구립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여성합창단·풍물단)과 부평구문화예술협회 음악·무용·국악분과가 무대를 함께 꾸며 눈길을 끌었다.

‘2016 부평예술축제’는 지역의 예술역량을 펼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했고, 구립예술단의 첫 연합공연을 선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부평에 거주하거나 부평에서 활동하는, 또는 부평 출신의 예술 자원의 출연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축제를 재단과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가 공동주관하면서 축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전시·체험행사의 경우, 전시 설치부터 협회의 미술·서예·사진분과가 전시 방식과 위치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을 보였고, 재단과 협조나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 시작과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전시 종료일 정오 무렵에 모든 작품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협회 소속 이외의 다른 부평 예술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지역의 예술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장인 ‘부평예술축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시민예술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형태를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부평 술아술아 음악제’

“지역 축제의 주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해당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다. 따라서 지역 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공동이념, 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축제가 고유의 개성을 갖고 축제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이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잘 풀어낼 때만이 성공적인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아진다”

(2015 인천문화예술연감 110쪽)

부평구문화재단이 2016년 5월 21일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 연 ‘2016 부평 술아술아 음악제’는 부평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야외축제라 할 수 있다.

부평은, 1950년대 미군부대 에스컴 시티(Ascom City)에서 발전한 클럽문화가 우리나라에 서양문화를 들여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곳으로, 국민가수라 칭송받는 조용필이 이끈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 김청산, 재즈 1세대 신중현, 미8군 쇼 무대에 출연해 명성을 얻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가수 현미 등 쟁쟁한 음악인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곳이다. 또한 부평은 1970~80년대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노동가요의 산실로 민중가요 ‘아침 이슬’로 유명한 작곡가 김민기가 1977년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노래 ‘상록수’를 작곡한 곳이다. 특히 민중가요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의 원작시 ‘술아 푸른 술아 - 백제6’을 지은 시인 박영근(1958~2006)의 시비가 부평구청 옆 신트리공원에 세워져 있다. 박영근 시인은 1985년부터 20여 년간 부평에서 지내며 노동문학 활동을 했고, 부평구는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비를 세웠다. ‘2016 부평 술아술아 음악제’ 무대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안치환,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의 노래를 찾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의 김목경 밴드와 싱어송라이터 조동희가 있다. 또한 미군부대에서 연주했던 원로 음악인이 주축이 돼 구성한 부평울스타밴드,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인 문화공작소 세움, 부평구립여성합창단과 부평구립풍물단도 가세했다.

부평이 지닌 대중음악사적 의미와 민중가요를 기반으로 음악제를 개최, 기성세대들이 청년시절에 듣고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모아 꿈과 추억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음악도시 부평을 열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 데서 의미가 있다.



지역 문화자원의 창의적 재생산 '부평밴드페스티벌'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2015년 5월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3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여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부평밴드페스티벌을 기획했다. 1950~1960년대 부평의 에스컬 주변에서 시작해 대중음악 60년의 뿌리가 된 부평의 독특한 음악 역사를 기억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 부평밴드페스티벌은 2015년에 첫발을 뒀다. 10월 16~17일 부평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열린 '2015 야외축제 부평밴드페스티벌 오리지널&탑밴드'는 과거 부평에서 음악클럽이 번창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원로 연주자들과 현재 인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밴드가 함께 무대를 꾸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리멤버(Remember)'는 10월 14~15일 이틀간 부평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당초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안에서 열려고 준비했으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논란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다. 14일에 부평올스타빅밴드·사랑과 평화·정성조 재즈오케스트라·말로 밴드가 출연했고, 15일에 스트릿건즈·에스컴슈퍼밴드·락스더 모노톤즈·데이브레이크가 무대를 꾸몄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은 과거부터 부평에 미군부대가 있었던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민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부평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부평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적 에너지로 성장하게 하는 게 향후 과제다. 그러기 위해선 부평밴드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고,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한다.

재단이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음악동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미니 스테이지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포맷의 음악 공연을 지역 공간과 연계해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고, 지역 내 신진 음악인 발굴하겠다는 취지가 좋다.

시민 참여 부분은 미흡한 편이다. 시민 참여란 홍보 강화로 많은 관객 동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쳇말로 '잘 나가는' 밴드의 공연엔 관객이 몰리기 마련이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은 지역의 음악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개최나 아마추어 밴드 지원 공모사업 등도 결합했으면 한다. 부평밴드페스티벌 본무대에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팀을 세워, 유명한 초청 밴드들과 한 무대에 서는 기회도 제공하면 좋겠다.



부평밴드페스티벌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진대현



전국 각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업도시 부평에 찾아왔고, 정착한 이주민들에 의해 부평 신촌이 형성되었다. 광복 후 신촌은 미군부대, 에스컴(ASCOM)의 영향으로 피난민, 영세민, 위안부, 군노무자, 상인 등 이농 영세민이 모여드는 유흥업소와 외래품의 암시장인 즐비한 기지촌이 신촌의 대표적 이미지가 되었다. 부끄러운 역사적 과거와는 달리 미군 에스컴 부대 주변은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대를 풍미한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만이 갖고 있는 대중음악의 역사성에 착안하여 기지촌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부평 음악·융합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부평밴드페스티벌을 추진하였다. 2012 인천부평구 문화지표 연구에서 부평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부평의 자연환경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꼽아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이기도 하다. 어두운 역사적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근원지라는 미래지향적 방향과 연결시키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부평구문화재단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2015년 부평밴드페스티벌은 1950~1960년대 에스컴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실존하는 밴드뮤지션, 부평출신 지역밴드, 신예밴드가 함께 어우러져 부평아트센터 구름마당과 늘솔원에서 주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을 올렸다. 대중음악의 성장 거점이자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가 됐던 부평의 음악 스토리를 과거와 현재로 나눈 '오리지널밴드'와 '탑밴드' 구성으로 보여주었다. 첫째 날 '오리지널밴드'에는 혼성 8인조 브라스 밴드 '블루

스 챔버', 부평지역의 연주자들이 중심이 된 실력 있는 노장들의 '부평 올스타 빅밴드', 대한민국 대표 여성가수 현미, 탁월한 보컬과 연주 실력으로 한국밴드뮤직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랑과 평화'의 공연이 있었다. 둘째 날 '탑밴드' 공연은 부평 밴드페스티벌에서 구성된 프로젝트 밴드인 '에스컴슈퍼밴드'와 전통 타악팀 아작, 한울소리와 전통 풍물음악 단체 비류, 인천을 대표하는 록그룹 디아펜테가 협연하는 퓨전밴드 'X-Line', '신촌블루스'의 보컬 정경화, 뛰어난 음악성을 보인 핑크 락밴드 '더핑크'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외에 사전 공모 심사를 거친 5팀의 프린지 공연은 부평밴드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 일조하였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을 기획하기에 앞서 페스티벌의 정체성과 공연 포맷을 설정하기 위해 음악기획자, 음악평론가 등 음악전문가들로 구성된 '부평밴드페스티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거 부평에서 시작된 음악적 역사를 기억·발굴하며, 현대 대중음악과의 소통을 통해 일상에서 음악 및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도시 부평을 지향하는 취지로 'Remember'라는 부제를 달았다. 당초 2015 부평밴드페스티벌 장소였던 부평아트센터 야외무대를 떠나 에스컴 미군부대 부지에서 공연하기로 계획했으나, 미군부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부평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캠프마켓이 반환되면서 조성된 신촌 외곽에 위치한 부평공원은 밴드페스티벌의 장소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널찍하게 개방되어 있는 위치적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이용계층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공연 첫날에는 1950~60년대 에스컴 부대 주변에서盛行했던 재즈와 스윙 중심의 음악이 주로 공연되었다. 오프닝 공연은 블루스, 재즈, 모던, 핑크 등 다양한 장르를 브라스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라카자파오'가 진행했다. 뒤이어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정성조의 음악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정성조 재즈오케스트라'와 부평지역의 노장 연주자들이 중심이 된 '부평 올스타 빅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스캇의 여왕, 가장 한국적인 재즈 보컬인 '말로 밴드'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

며, 마지막 피날레 공연으로 탁월한 보컬과 연주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공연으로 흥겨운 막을 내렸다.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 인디 신 로커빌리 장르의 대표 밴드 '스트릿건즈', 2015년 부평밴드페스티벌에서 구성되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에스컴슈퍼밴드', 일렉트로닉 개러지 락으로 폭발하는 댄스 유발자 '각스'와 조선 핑크의 반향성에 완속함을 얻은 '더 모노톤즈', 경쾌한 궁정, 파스한 낭만 에너지로 우리를 '들었다 놔다' 하는 매력적인 네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공연이 있었다.

부대행사 'MusicTown-음악동네만들기'는 부평음악·융합도시 사업 중 음악클럽 조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부평 문화의거리, 부평 지하상가, 카페, 썬크빅문고, 라이브클럽 락캠프 등 다섯 곳에서 열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나만 알고 싶은 공간, 매일 듣고 싶은 음악을 만난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음악동네 만들기는 부평 곳곳에 음악축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음악클럽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부평풍물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손꼽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동별로 풍물패를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이 향후 성공적인 음악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공연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부평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음악 생태계를 일궈나가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대중음악 교육을 들 수 있다. 구내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밴드음악 및 브라스밴드 악기 연주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밴드음악 및 악기연주 교육 범위를 시니어 세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교육기간 이후 자유롭게 음악활동을 즐기거나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자선공연을 한다면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동시에 부평음악·융합화도시가 구현될 것이다. 향후 인프라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전문 음악밴드와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자원 연계와 주민참여 확대

국내 음악축제는 대중가요, 인디 락, 재즈, 팝, 월드뮤직, 포크,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도가 있는 축제로는 서울재즈페스티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 울트라뮤직페스티벌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인천이 2006년부터 11년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운영한 배경에, 80~90년대 한국 락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인디 밴드를 배출하는 등 음악적 토양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인천 부평의 역사적 자원 중 음악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음악으로 지역이 하나 되는 부평의 페스티벌을 인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문화·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 콘텐츠로 개발된 부평밴드페스티벌은 다른 대규모 음악축제에 비해 1/10가량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경쟁적으로 축제를 대형화시키지 않고자 한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공연 위주의 관람형 축제의 경우 관객들이 소극적 관람자로 남고, 그것으로 만족하여 자발성이 부족하고, 활기를 느끼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매년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공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악순환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평밴드페스티벌은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객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신명나는 축제 본연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평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에서 비롯된 서사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덧붙여 나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음악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엑스컴 미군부대 부지 사용

향후 5년 이내에 부평밴드페스티벌의 발상지인 엑스컴 미군부대 부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란다. 미군부대 장소가 내포한 역사적 상징성은 부평밴드페스티벌의 가치와 의미를 돋보이게 할 것이며, 넓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장점은 부평주민, 음악예술가, 기업, 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형 부대프로그램을 꾸리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부평밴드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8. 열정으로 일궈낸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레퍼토리 공연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할락궁이의 모험>

공연사업팀 조현주 팀장, 임정인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린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찬란했던 음악도시 부평을 그린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직접 제작한 대표 레퍼토리 공연이다. 지난 2014년 초연과 2016년 재연에 이어 2016년에는 서울 국립극장과 부평아트센터에서 각각 11월과 12월 무대에 올랐다.

2014년 초연 당시 많은 우려 속에 제작되었지만 막상 무대 위의 공연은 눈시울이 붙어질 정도로 관객들의 가슴에 아련함을 전했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제작한 창작음악극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레퍼토리로서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1950~60년대를 살았던 지역 원로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 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듯 수차례 회의를 거쳐 스토리를 보완하고 음악, 무대, 의상 등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해누리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2016년,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 국립극장으로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작품은 2014년 초연 당시 부평아트센터 소극장인 달누리극장에서 11월 1일부터 9일(월요일 제외)까지 총 8일간 8회의 공연을 진행한 반면, 2015년에는 대극장인 해누리극장에서 12월 17일부터 27일(월요일 제외)까지 총 10일간 10회



로 공연 횟수와 규모를 키웠다. 그리고 올 해 2016년에는 부평뿐만 아니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도 선을 보이며 서울과 수도권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했다. 초연 당시 1,980명의 관객으로 76%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출발을 한데 이어, 대공연장으로 옮긴 2015년은 6,122명으로 관객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객석 점유율은 82%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도에는 국립극장과 부평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진행한 가운데 정치적 격랑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으나 68%의 객석점유율을 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공연 제작비는 자체예산금 이외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제작개발 지원사업>에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초연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년 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가 2015년에 발족되어 문화재단의 대표 레퍼토리 사업에 대한 후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6년에도 2,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작품은 아직 태생기에 불과한 터라 협찬은 쉽지 않았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작비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각고의 노력이 더하여져 지역의 대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었다. 덴스플로워, 무대 세트 제작비 일부를 협찬 받으면서 기업과 문화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도 형성되었다.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다.

지역 뿐 아니라 중앙의 언론에서도 작품의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가치재창조’, ‘부평구 넘어 인천시 대표할 브랜드’, ‘1950년 음악도시 부평을 되살리다’ 등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일궈낸 부평구문화재단의 역량과 가치가 주목받았다. 평론가들도 ‘지역 콘텐츠를 넘어선 음악도시 부평의 성공’, ‘지역 문화재단 및 공공 극장의 창조적 역할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 라고 평했고 특히 평론가 윤중강은 ‘부평구를 넘어서 인천시를 대표할 브랜드’라는 타이틀로 “이 작품은 앞으로 부평이란 지역성을 더욱더 의미있게 전달하며 대형뮤지컬로 성장하리라고 본다. 이른바 지역을 소재로 한 ‘컬러 콘텐츠’로서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했다.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미군이 주둔했던 1950년대 부평의 에스캅 부대를 배경으로 전쟁의 상처를 음악이라는 희망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이다. 대중음악 60년 뿌리를 시대별 음악과 함께 풀어내면서 부평이 지닌 특수성과 휴머니즘적인 보편성을 담아냈다.

작품의 문화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부평은 한국전쟁이후 주한 미군 전체의 물자를 보급하는 주한미군지원사령부(ASCOM)의 주둔지로 변모하여 당시 부평의 신촌 삼릉은 미군을 상대로 한 각종 부대산업이 꽃피었고, 특히 신촌 지역에는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될 정도로 성업을 이루었다.

에스캅은 우리 음악가들의 공연활동 무대이면서 타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을 했고 이곳을 통해 스탠더드 팝과 로큰롤(rock'n'roll)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음악사의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배경지라 할 수 있다.

부평 예술인들의 근거지로서 배호, 한명숙, 최희준, 현미, 이철호 등과 같이 많은 아티스트 등이 생활했고 현재 글루미씨티스, 씨드스톤, 거즈 등의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이 음악활동을 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1950~60년대 부평 에스캅 부대 주변에 성행하였던 음악클럽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중음악 발전의 시초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작한 공연이 바로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인 것이다.

작품은 공연을 넘어 부평의 문화 정체성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작품이 1950년대와 60년대를 주름잡는 팝음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지는 작품인만큼 이러한 음악적 태생을 기반으로, 공연의 연계 사업들이 기획되었다.

우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부평울스타빅밴드'를 선정함으로써,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음악적 배경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20인조 빅밴드의 무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로비음악회, 호박데이트, 부평밴드페스티벌 등 작품의 사전 공연을 실시하였고 이 중 울스타빅밴드는 2015년과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더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부평구 음악·융합 도시 선정 및 '부평밴드페스티벌' 운영은 레퍼토리 공연과 함께 주목할 사업들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구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특화 지역조성(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부평밴드페스티벌>의 모티브가 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제작한 공연 콘텐츠가 포괄적 문화연계사업으로 'MusicCity 부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시 분야와의 연계사업도 진행했는데, 공연과 시기를 맞추어 2014년 <1950... 부평...>은 부평구청, 부평역사 박물관과 협조하여 1950년대 부평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전이였다. 2015년은 <블루지 60's>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부평이 음악도시로서 가장 화려했던 1960년대를 되짚어 보고 그 의미를 만끽해내는 전시를 진행하였다. 1960년대의 부평의 모습과 의미를 사진, 사운드, 미디어, 서적 등의 시각 자료와 그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현대미술 미디어 아트가 함께 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부평의 모습들을 그려낸 의미 있는 전시였다. 2016년에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지난 10년과 문화도시 부평의 이미지를 접목한 특별전 'Special B'가 공연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이처럼 작품의 가장 큰 의의는 도시의 재발견, 공연을 통한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도시가치의 재창조'이다. 과거 대중음악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부평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여 지역성을 의미 있게 전달하고, 지역 공연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지역의 '콘텐츠'로 브랜딩한 점이다.

지역문화재단이 제작하면서 지역 예술가의 참여와 지역 기업의 제작 지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도 형성되었다.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배우 및 스태프들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굳이 서울의 대학로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문화자원 재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후원회 및 지역의 대표 기업을 통해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기업과 문화 재단이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전달하고 부족한 제작비의 한계를 극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성공적인 평가는 부평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지역문화재단이라는 어려운 제작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물을 만들어, 무대 공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 향후 고유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가치는 기치촌이 있던, 뿌연 연기의 공장들이 즐비한 가난한 도시 부평이 아니라, 케이팝으로 발전한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로서 대중음악 1세대들이 전쟁직후의 폐허에서 일궀낸 음악적 자긍심을 담긴 부평임을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앞으로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인천시 부평구 고유의 대표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공연도시, 산업도시 부평이 아닌 음악의 중심지이자 공연예술의 메카임을 알릴 것으로서 도시로서의 이미지맵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지역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 도모하며 지역 문화 재생산하여 부평의 지역성을 의미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로써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지역의 특수성을 토대로 공연 작품을 제작하여 레퍼토리화 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부평구문화재단의 특별한 선택! 국악 라이브를 더한 창작 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제주도 설화를 바탕으로 국악연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창작 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공연한 부평구문화재단의 대표 콘텐츠로서 우리의 정서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한층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신화가 아닌 제주 토속신화 속 '할락궁이'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그렸으며 국내 최고 스태프를 영입하여 우리 전통음악의 색채를 담은 공연을 선보이면서 국악과 우리나라 전통 신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무엇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기획 단계부터 공연제작, 진행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평아트센터의 단독 브랜드 공연을 확보함으로써 부평아트센터의 공연 레퍼토리를 확대시킨 의의가 있다.

<할락궁이 모험>은 2014년부터 5월에 열리는 부평키즈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10회 이상 공연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하였다. 평일에는 관람시간을 오전으로 배정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단체 관객이 객석을 만석으로 채웠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가족극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체 예산 대비 수익률이 높아진 이유는 초연 이후 <할락궁이 모험>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지원금을 받아 자체 제작비를 절감하며 공연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로 선정된 문화장작소 '세움'이 음악에 참여하여 가야금, 피리, 장구, 북, 해금, 대금 등의 국악기를 라이브로 연주하여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정서가 담긴 고품격 아동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서천꽃밭 무대 및 의상을 보완하여 구성하고, 대나무, 부채 등을 이용한 창의적인 연출을 가미하여 몰입감 높은 스토리를 완성했다.

가면, 부채, 한지, 그림자 등을 사용하여 설 새 없이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는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역동적인 공연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국내 최고의 이병훈 연출가와 뮤지컬과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작을 배출한 오은희 작가의 만남으로 수준 높은 아동극이 탄생할 수 있었다.

부평구립도서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할락궁이' 관련 책 전시와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공연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공연 중에는 로비에서 원화 전시와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책 소개가 이어졌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부채 만들기, 가면 만들기 등 공연 연계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 관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었다.

어린이 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은 어린이들에게 국악기와 우리 전통 설화를 아름답게 전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04

수탁운영기관

1 부평구립도서관 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1.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의 모태는 '부평 기적의도서관'이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부평구는 MBC '느낌표'가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건립 운동에 50만 부평구민의 염원을 담아 참여하여 2006년 3월 부평 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개관 후 부평 기적의도서관은 부평문화원에 수탁운영하다가 2007년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오던 중 2011년에는 갈산도서관과 부개어린이도서관이, 2012년에는 삼산도서관과 부개도서관이, 2013년에는 청천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하였다. 현재 부평구립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인 부개도서관과 5개의 분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기본권 신장 및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부평 기적의도서관 2 부개도서관 3 책 읽는 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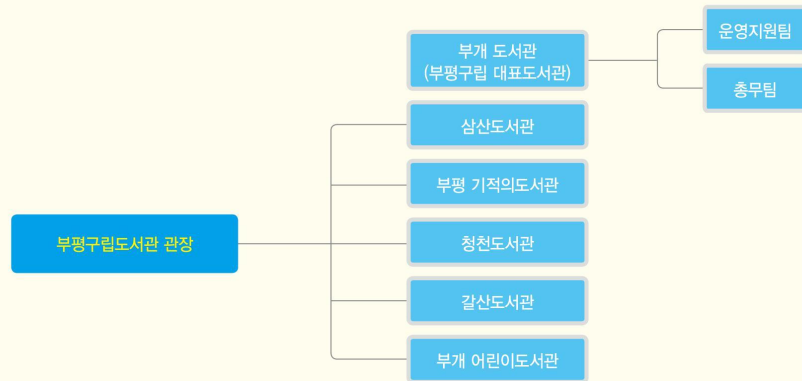
부평구립도서관은 각각의 도서관에 특성화한 도서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부개도서관은 예술, 삼산도서관은 영어, 기적의도서관은 환경, 생태 관련, 청천도서관은 다문화, 갈산도서관은 교육, 부개어린이도서관은 가정 및 육아 관련 내용으로 각각의 도서관을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별 프로그램도 특성화한 주제에 어울리게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소장 자료도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료의 비치로 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의 제공을 통한 선진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독서문화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보취약계층과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양성사업,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도서관 운영자 및 도서관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 6개소, 작은 도서관 16개소, 교육청 소속도서관 2개소가 함께하는 '책마실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평 지역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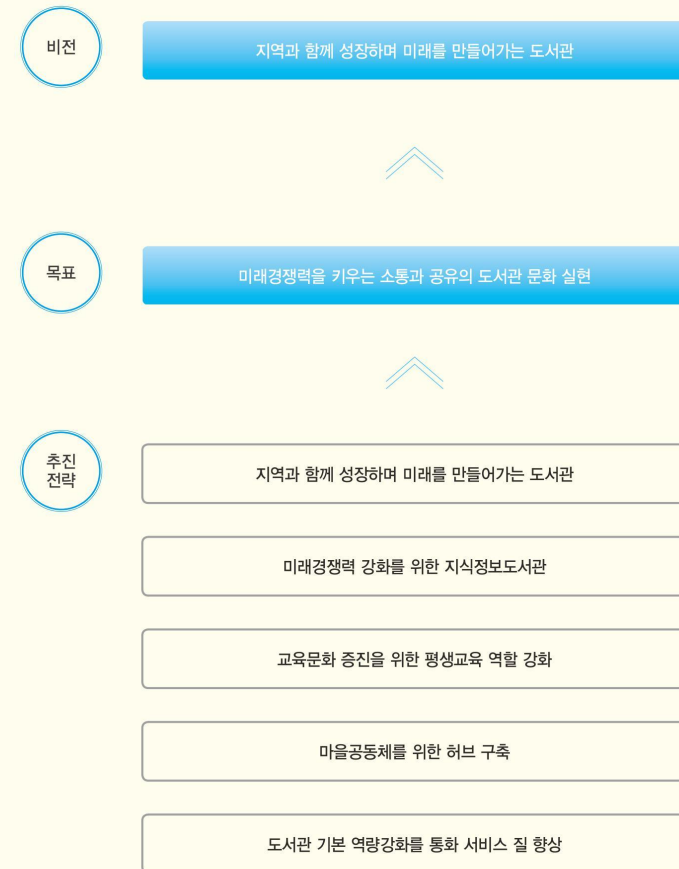
또한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 사업을 2012년도부터 진행하여 도시 브랜드화함으로써 부평구의 책 읽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 일조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평구립도서관의 책마실 사업과,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 사업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로서 지역 주민들의 독서환경 조성과 토론문화 정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부평구립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다.



조직도 및 인력현황



비전 및 추진방향



주요 연혁

2006.03.10
부평 기억의도서관 개관

2007.01.01
부평기억의도서관
부평구문화재단 위탁

2012.05.07
부평구립 삼산도서관
개관

2013.04.12
부평구립
청천도서관 개관

2014.03.21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대상 선정

2014.12.04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시범사업 도서관 MOU 체결
(꿈나무 도서관 외 18기관)

2006~11

2011.07.14
부평구립 부개
어린이도서관 개관

2011.07.19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개관

2011.04.15
부평구 공공도서관
운영조례 제정

2012

2012.08.01
책읽는 부평사업
시작

2012.09.13
부평구립
부개도서관 개관

2013

2013.05.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대상기관 선정

2014~15

2015.12.15
부평구지역 책 마실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부평구립도서관 주요사업 소개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 사업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이다.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2001년 시카고에서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도시 전역에 인종 갈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2003년 충남 서산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도서관 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정기적인 일제감과 지역정체성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인천에서는 2012년에 부평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2012년 대표도서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를 시작으로 2013년 〈사료를 드립니다〉, 2014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2015년 〈블랙아웃〉에 이어 2016년 대표도서로 윤혜숙 작가의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를 선정하였다.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의 경우 다문화를 주제로 서로 다른 차이를 알아가는 내용의 도서를 선정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2 부평, 책으로 통하다

2012년 ‘책 읽는 부평’의 대표도서는 추진협의회 구성원 및 주민 8442명이 참가하여 3134명 (37%)의 득표로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김경집 외, 꿈결)가 선정되었다.

8월 17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릴레이, 찾아가는 독서토론,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1 2016 나라지킴이의 독서골든벨 2 2016 책 읽는 부평 '동동토론회'
3 2016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포식 모습

진행되었다. 2012년 ‘책 읽는 부평’ 사업은 부평지역의 독서와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하였고, 지역 곳곳에 위치한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의 이용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3 책으로 행복한 도시 부평! Bookfun!

2013년은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선정된 뜻 깊은 해로 책 읽는 도시로서 부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3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한 해를 가득 채웠다. 모두 1만5693명이 참가하여 39%를 득표한 〈사료를 드립니다〉(이금이, 푸른책들)가 대표도서로 선정되었고, 선포식, 독서릴레이, 독서토론이라는 기본 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된 사업이 많았다. ‘책 읽는 시범 아파트’ 두 곳을 선정하여 아파트 주민과 함께 독서릴레이와 독서골든벨을 진행하였고, 즐거운 독서 참여 독려를 위한 ‘플래시몹’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책이 있는 풍경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수작품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또 수상작을 활용한 사진전시회가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2년 동안의 사업진행으로 북멘토 활동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며 대표도서의 독서토론 횟수가 122건, 참여인원으로 1,700여 명이 넘는 성과를 남겼다. ‘북콘서트’ 등 2013년 ‘책 읽는 부평’ 사업은 모두 2만9421여 명이 참가하였다.

2014년 ‘책 읽는 부평’, 일상과 만나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모두 3만2307명이 참여한 2014년 대표도서 선정 결과, 김려령 작가의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가 선정되었다. 2014년 ‘책 읽는 부평’에서는 선포식, 독서릴레이, 독서토론, 북멘토 양성과정 등 기본 사업뿐만 아니라 ‘책 읽는 아파트’에 참여한 8곳 중에서 세 곳을 선정하여 아파트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새롭게 시도된 작은 음악회는 ‘책 읽는 아파트’에 참여한 아파트에서 열림으로써 가족단위의 구성원에게 ‘책 읽는 부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부평구민에게 책 읽는 부평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2013년에 진행된 ‘플래시몹’은 2014년에도 진행되어 이색적인 독서문화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014년 대표도서의 독서토론 횟수는 255건, 참여인원은 2803명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 세대가 공감하고 열린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세대 화합으로 진행된 한책토론회 ‘통통토론회’는 다양한 계층의 참석을 이끌어내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책 읽는 부평! 행복한 Bookfun!

2015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였다. 책으로 하나되는 세상(Books For All)이라는 비전과 함께한 2015년 ‘책 읽는 부평’ 사업은 지역 내 군부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책과 함께 한 해였다. 대표도서 선정은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모두 3만3491명의 구민이 참여한 결과 2015년 대표도서로 박효미 작가의 〈블랙아웃〉이 선정되었다. 대표도서 선포식, 한책읽기 독서릴레이, 찾아가는 독서토론 등 기본 사업을 중심으로 작가와의 활발한 만남과 다양한 계층과 진행한 독서 골든벨 행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작가와의 만남’은 음악과 함께하는 미니 북콘서트 형식으로 다문화 가정, 지역주민,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독서 골든벨은 군부대, 청소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나라지킴이의 독서 골든벨’은 지역 내 군부대의 책과 함께 하는 병영생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책 읽는 아파트’는 2014년에 이어 8군데가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책 읽는 마을 조성에 힘썼다. 이밖에 부평풍물대축제의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은 ‘책으로 하나 되는 플래시몹’, ‘선율과 함께 책 읽는 날(북콘서트)’, 통통 토론회 등 책과 함께 하는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책마실(상호대차) 서비스 사업

2014년 3월 ‘2014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도서관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1차적으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참여도서관 어디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업 설계 및 도서관 간 협의해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시행하였다. 2015년 10월 1차로 구립도서관 6개관이, 2차로 작은 도서관 17개관이 책이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책이음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책마실(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홍보 및 시스템 수정, 책마실 서비스 운영규정 협의 등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책마실(상호대차) 서비스의 시행은 2015년 11월 부평구립도서관 6개관을 대상으로 1차 운영되었다. 12월 2차 운영(작은 도서관 17개관 결함) 후 미추홀도서관 지역센터 연계작업,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규정 협의를 통해 드디어 교육청소속 도서관까지 결합하여 2016년 3월 책마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책마실 서비스는 부평구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거주



1 책마실 서비스 시행
2 책마실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청계구리어린이도서관

지역에 상관없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관내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생활권 가까운 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책이음 서비스 기반으로 구현된 상호대차 서비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선진 도서관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서관 자료의 공동활용과 도서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공백 없는 도서관서비스를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책 읽는 부평’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도서관 학교

부평구립도서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도서관과 자원활동가의 관계 및 역할을 이해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도서관의 한 일원으로 발돋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도서관의 의미, 자원활동가의 역할, 독서 방법 등 도서관 자원활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며 각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질 높은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는 해마다 5강 또는 6강으로 구성되며 이 중 4회 또는 5회 이상 출석을 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후 자원활동가 수습기간(2개월) 이수자에 한해 부평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1년 동안 부평구립도서관 소속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받은 자원활동가들에게는 대출권수 확대(5권에서 10권으로 증가, 총 통합대출권수 25권으로 부여)의 혜택이 제공된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원활동가들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문화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인력 활용을 꾀하려고 한다.

대학생 서포터즈 ‘문화플랫폼 리즈(READs)’

리즈(READs)는 독서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활동들이라는 뜻 이외에도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학 시절의 황금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 향유가 확대됨에 따른 재능나눔, 문화자원활동 등의 문화전달 역할이 대두되는 바, 부평구립도서관 또한 지역 내 정보중심 센터로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지성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평구립도서관 대학생 서포터즈 ‘문화플랫폼 리즈’는 문화이슈 토론, 문화예술기관탐방, 문화기획자와의 만남, 공연관람 등의 문화향유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기획, SNS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도서관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까지 인천 거주 대학생, 인천소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플랫폼 리즈(READs)’는 도서관 대학생 서포터즈로서는 국내 최초로 조직되었다. 지역 내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이고 성숙한 대학생 봉사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문화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플랫폼 리즈(READs)



부평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추진일정

기간	주요내용
2014~2015.06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2014년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선정 및 사업 설계
2015.07~2015.11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완료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 지역센터 선정)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환경 구축
2015.10	책이음 서비스 시행 1차 구립도서관(6개관), 2차 작은 도서관(17개관) 서비스 시작
2015.11~2016.02	부평구 관내 책마실(상호대차) 서비스 시범 운영 (1단계 구립도서관, 2단계 작은도서관, 3단계 교육청도서관)
2015.03.01	부평구 관내 책마실(상호대차) 서비스 전면 시행



청소년 사서

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청소년사서’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개·삼산·청천도서관 등 3개관에서 청소년사서를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2~3월에 모집해 9개월(4월~12월) 동안 활동할 청소년사서를 선발한다.

선발된 청소년사서는 활동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도서배가, 각종 문화행사 진행 보조)과 도서관 홍보 활동을 하며, 월 1회 월례모임 참여를 통해 활동평가 및 활동일정 협의, 독서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청소년사서에게 활동 혜택(자료대출권수 확대 등)과 더불어 청소년사서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도서관 이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연 2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각 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도서관과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래모임과 다양한 경험 및 훈련 과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봉사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사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인 부평기적의도서관과 부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부터 운영한 어린이사서는 현재 부평기적의도서관 10기, 부개어린이도서관 5기 어린이들이 활동 중이며 참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사서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도서관의 주인으로서 도서관과 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3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동안 활동할 어린이 모두 40여명을 선발하여 도서검색 방법과 정리 방법, 책 분류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학생의 원할 경우 추천도서 서평 작성,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의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후 한 달 동안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대출권수를 5권에서 7권으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통해 어린이사서 간 친목을 다지고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사서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 1회 출판단지, 박물관 등 관련 기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매주 1회 2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12월 어린이사서 활동 종료 시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 수료증을 수여하고, 3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 명예 어린이사서증을 수여한다.

부평 기적의도서관과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사서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구분	내용
부개도서관 (예술)	부개도서관은 예술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다양한 예술관련 정보요구와 지식수요에 발맞춰 예술과 관련한 차별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별 다양한 맞춤형 특성화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 Ready, Action!, 사진, 인문학과 만나다, 타악 퍼포먼스 공연, 부평구립도서관 5개관 활동 사진전, 옛그림 속 여백을 걷다 I : 한국화 편, 킨 더 오페라, 세기의 건축물과 건축가 이야기,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도서관, 옛그림 속 여백을 걷다 II : 서양화 편
삼산도서관 (영어)	삼산도서관은 영어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 2층에 멀티·영어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장서의 10% 이상을 영어자료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특성화 강화를 위해 영어도서를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자료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영어 관련 독서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접근점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늘어나 독후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영어교육은 물론 원어민이 직접 가르치는 글쓰기 교육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 Jobs in the story, 영어로 만나는 이솝이야기, 엄마와 함께 스토리 쿡, Animals in the story, 원어민과 함께하는 What's up?, 원어민과 함께하는 English Town, 삼산 뮤지컬스타, 한여름밤, 영어랑 해피투게더, 처음 쓰는 영어 에세이, 영어그림책 읽어주는 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영어 콜렉션
부평 지역의 도서관 (생태, 환경)	부평지역의도서관은 2006년 개관한 수도권 최초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생태, 환경 등 과학 분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과학분야 장서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생태, 환경 분야 특성화 사업 운영을 통해 생태와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의미를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화 사업 운영을 통해 자연과학 분야의 장서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책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생태, 환경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꾀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 정미라 작가와의 만남, <앗 모기다>, 권오준 작가와의 만남, <흙로 남은 호랑지빠>, 도서관에서 하룻밤 <책 숲에서 꿈을 꾸다>, 여름독서교실 <미생물 정체를 밝혀라>, 지역의 신기한 생물이야기, <안녕, 날씨야>, <수리(數理)수리(數理) 팅>, 김바다 작가와의 만남 <우리 집에 눈발이 있어>

구분	내용
청천도서관 (다문화)	한국사회도 점차 이주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때에 청천도서관은 부평구 관내 여러 정보 소외계층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인들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천도서관은 다문화특화도서관으로서 연간 자료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다문화자료구입에 배정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문화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문화 독서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아동 및 이주여성의 육아,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프로그램 다문화전문 독서코칭 양성과정, 책으로 배우는 한국의 문화, 즐거운 책임기, 재미있는 글쓰기, 세계인이 직접 전하는 지구촌 여행(1, 2기), 다문화 가정 행복나눔 힐링캠프 ♥KOREA, 도서관, 세계를 품다!, 다랑이와 함께 떠나는 그림책 세계 여행, 나, 한국사람입니다, 세계로 가는 꼬마 여행자, 최고의 하모니, 여러 가지 문화탐험대, 꽃보다 아세안(인천에 우리가 산다), 내 마음이 들리니, 가족 사랑 재발견, 청천도서관 세계 문화축제
갈산도서관 (교육)	갈산도서관은 영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특성화 주제로 삼고 관련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는 놀이를 교육과 접목하여 학습의 즐거움과 참의미를 알리므로 도서관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초·중고생들은 다양한 학습방법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다양한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인대상으로는 자녀와의 소통이나 교육, 노후준비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의 화목과 자녀 교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놀이, 부모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 조산사와 함께하는 역사이야기, 교구와 함께하는 수학놀이,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 '독서물입법', 엄마는 선생님, 엄마표 자기주도학습법, 부모교육 '아이 顔(두), I DO!', 여.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기방, 똑똑한 엄마의 아무진 독서교육 물입학습법, 천기누설 공부의 달인, 도서관에서 가베 놀이, 내 아이를 위한 사람의 기술 감성코칭
부개 어린이도서관 (가정, 육아)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유치원, 학교, 장애인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인접한 지역적 특색이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타깃으로 가정 및 육아 분야를 특성화하여 이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도서관이 진행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려울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고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소양교육과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이용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프로그램 까르르, 도란도란 책놀이, 말랑말랑 동화클레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도서관 가족-협동화 그리기, 봄여왕 우리 가족, 가족사랑 캠핑, 책이랑 놀아요, 가족 별나라 여행, 꼬물이의 기발한 컬러링, 책 속 놀이보따리, 엄마랑 플레잉 토크, 우리 가족 부자되기 프로젝트, 클레이로 떠나는 가족시간여행, 소리극 동아리 공연

2. 부평구청소녀수련관



부평구청소녀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1년 11월 개관 이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자율적 이용지원, 자율참여유도, 맞춤형복지 등을 제공하며 연간 9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부평구청소녀수련관은 2011년 12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기부 협약체결을 시작했다. 2012년 4월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터전으로 승인받았고, 9월에는 국제성취포상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11월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사업 '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에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3년 4월 정식 개소를 통해 1억원을 지원 받아 창의공작플라자 거점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창의공작플라자 거점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5월에는 청소년기술현장 체험프로그램 공모 선정과 201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우수부스운영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다.

2014년에는 9개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9개 공모사업 중 '으라차차 정음창'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청소년활동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해마다 10개 이상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익사업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로 지정받아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 체험에 따른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운영하게 되었다. 부평구와 삼산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희시설로 남아 있던 삼산2동 삼산치안센터를 청소년 상시 이용시설인 '청소년 한꿈카페'로 새단장하여 개소함으로써 부평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대해가고 있다.

부평구청소녀수련관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1개 분야 48개의 청소년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대학생 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진로활동단 '등대' 등 청소년들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자율참여 활동, 수련관 특화시설인 영상미디어센터운영과 청소년 영상기자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으로 다양한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청소년트래기행, 가족의 이해와 사랑을 나누는 1박2일 가족캠핑,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별자리캠핑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토요일엔 피크닉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 건전한 청소년 및 가족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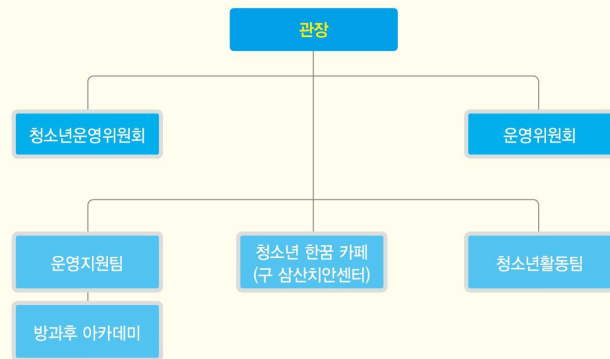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과 꿈을 나눠주기 위한 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이 연간 참여하는 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모여라 희망레포츠캠프'와 삼산경찰서와 연계하여 선도대상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부평구청소녀수련관은 부평관내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 행복 도시',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청소년 지역 공감 형성', 청소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소년문화 공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사고와 창의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1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2 자유학기제 연계사업
3 2016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조직도 및 인력현황



주요 연혁

2011.11.23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개관
(부평구문화재단 수탁 운영)

2014.03~12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모두 9개 공모사업 운영

2015.02.10
부평구청장 표창장

2015.12.19
인증프로그램 제 5270 호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같이, 어울림' 인증

2011~14

2012.06.13
인증프로그램 제1643호
'립답으로 전하는 우리
이야기' (립.하.기) 인증

2013.04.11
부평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창공' 개소

2014.08.12
인증프로그램 제 3647 호
'나의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인증

2014.12.29
인증프로그램 제 3787 호
'너와 나의 꿈 바로 찾기',
직(job)당(黨) 모의 인증

2015~16

2015.03~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사업 등 총 11개
공모사업 운영

2016.08.18
청소년 한꿈카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부평구청, 삼산경찰서)

비전 및 미션

비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 행복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가 행복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행복한 부평

미션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다

경영 전략

청소년 중심으로 사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윤리경영 실현

청소년중심 경영

소통경영

인재육성 경영

윤리경영

주요 수상내역

2013.05.25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우수 부스 운영상

2013.12.12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우수 프로그램상 (ON 프로젝트)

2014.11.16 청소년 동아리 축제 경연 부문 표창장

2014.12.24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우수 프로그램상 (ON 프로젝트)

2014.12.2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장관상
(한글을 사랑하는 특별한 청소년들의 희망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으랏차차 정음청')

2015.02.10 부평구청 표창장

2015.08.23 부천시장배 생활체육 유·청소년 농구대회 3위 입상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연도	사업영역	내용
2011.11. 개관	청소년 자율적 참여기반 구축	문화기획단 (2011~2014) 청소년영상기자단 (2011~) 청소년자원봉사단 (2011~)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역나눔잔치 (2011) 즐기Go!풀Go! (2011~) 청소년 문화감성 공간 '통' (2011~2014)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외 6개교 업무협약체결
2012 ~2015	특성화사업 기반 구축	부평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창공' 개소 (2012~)
	청소년의 자율참여 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12~) 대학생자원봉사단 운영 (2012~)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201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증기관 승인 및 운영 (2012~)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터전 승인 (2012) 대학생 전공 현장실습 (2012~) 자치조직연합활동 (2014~)
	영상미디어 활동 활성화	미추홀청년프로젝트-아나운서 아카데미 운영 (2012) 영상미디어센터 (2012~) 영상캠프 (2013~)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643호 <립.하.기> 인증 및 운영 (2012~) 가족1박2일 캠프 (2012~) 별자리캠프 (2012~) 테마가 있는 박물관 · 궁 투어 (2012) 서해섬탐방 (2013) 인천속으로풍영 (2013) 역사속으로풍영 (2014~) 청소년또래기행 (2014~)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3647호 <나의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인증 및 운영 (2014~)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3787호 <너와 나의 꿈 바로 찾기, 작(job)당(黨)모의> 인증 및 운영 (20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5270호 <같이 어울림> 인증 (2015~)
	청소년 문화역량 강화	청소년한마당축제 (2012~) 토요문화체험마당 (2012) 토요일엔즐거찾기 (2013~2014) 토요일엔 피크닉 (2015~)

연도	사업영역	내용
2012 ~2015	청소년 신체역량 강화	하모니카, 캘리그래피, 알고 싶은 세계역사 등 교육프로그램 (2012~) 3대3 농구대회 (2012~) 고교생레포초캠프 (2013~)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발레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2012~)
	지역연계 활성화	토요마을학교 (2012) 청소년교류활동 (2012~) 창의적체험활동 (2012~) 함께해서 좋은세상 (2012~) 지역사회참여활동 (2012~)
	청소년 보호복지활동	모여라희망레포초캠프 (2012~) 학교폭력예방활동 '도담도담' (2012~)
	공모사업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추진	· 2013년 총 3개 공모사업 운영 창의공작플라자, ON프로젝트, 그린에너지탐험대 · 2014년 총 10개 공모사업 운영 창의공작플라자, 그린에너지탐험대, ON프로젝트, 상상학교, 으랏차차 정음청, 수다카페, 바라, 정.통.시.장, 둥근세상 만들기, 진로 와이파이를 켜다 · 2015년 모두 13개 공모사업 운영 창의공작플라자, ON프로젝트, 상상학교, 으랏차차 정음청, 수다카페, 청소년운영위원회, 상상마켓, 증(證)말이야, 동아리지원사업(미술, 음악), 우리동네 한글사랑배급소, 꿈키움스쿨, 자유학기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인천광역시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2012)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2)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외 10개교 업무협약 체결 (2013) 인천 부평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2013) 부천문화재단 외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3)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업무협약 체결 (2013)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우수부스 인천광역시장 표창 (2013) 'ON 프로젝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 선정 (2013) 제11회 지상군페스티벌 참가, 육군인사령부 감사패 수여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꿈, 더하기' 개소 (2014~)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및 5개 청소년수련시설 업무협약 체결 (2014) 인천 삼산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2014) 하이텍스포츠 업무협약 체결 (2014) 자유학기제 연계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5~)

창의공작플라자

우드피아 | 목공DIY 활동, 연필꽂이 만들기 등 일일체험, 자유학기제 정규반

생크피아 | 풍력자동차 만들기, 레고프로그래밍, 건축학개론 등 과학관련 프로그램

테크피아 | 유니맷(Unimat) 활용하여 꿈명패 등 감성소품 만들기 일일체험, 자유학기제

퓨즈피아 | 도예DIY 활동, 질그릇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등 흙으로 노작실습

푸드피아 | 푸드스타일리스트, 쿠키클래스 등 일일체험,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등

자율참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 | 정기모임, 시설 모니터링 및 기획프로젝트 운영, 참여예산 등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자기계발, 봉사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통해 국제포상 취득

청소년동아리활동 '베스트' | 월별 정기모임, 공연 및 외부활동, 대회참가, 연합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미스트' | 자원봉사 기본교육, 손마사지 봉사활동, 수련관 행사운영 등

대학생자원봉사활동 '이스트'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평가 등

대학생 전공실습 |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생 실무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자치조직연합활동 | 연합발대식, 연합회의, 연합워크숍 등 자치조직 간 교류활동

청소년진로활동단 '등대' | 선호유형별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청소년에게 진로 도움활동 등

영상미디어활동

청소년영상기자단 '라이트' | 정기모임, 전문교육, 팀별 영상콘텐츠 제작, 취재활동

영상캠프 | 영상기획, 시나리오, 촬영 및 편집 등 전문교육, 제작활동, 영상공모전 출품(상영) 등 영상제작 전반의 활동

영상미디어센터 | 촬영 및 편집장비 이용, 기자재 대여, 편집실 운영, 전문교육 등

수련활동

청소년도래기행 | 도래청소년 간 친밀감 형성, 야외 수련활동 및 공동체활동 등

가족 1박 2일캠핑 |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캐러반 캠핑, 가족 공동체활동 등

별자리캠프 | 자연 속에서 플래네테리움 체험, 천체망원경 체험, 천문대 관측 등

역사속으로 풍덩 | 교과서 또는 일상 속 역사문화 현장 탐방, 박물관 및 고궁투어

인증프로그램 | 제1643호 립답으로 전하는 우리이야기 (문화예술활동)

제3647호 나의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봉사활동)

제3787호 너와 나의 꿈 바로 찾기, 작(job)당(黨)모의 (직업체험활동)

제5270호 같이, 어울림 (봉사활동)

문화활동

청소년한마당축제 | 청소년의 달 기념 체험부스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엔 피크닉 | 월 1회 청소년참여형 체험부스 운영, 주제별(가족, 친구, 역사 등) 부스체험

수험생 즐기GO! 풀GO! | 중·고교 수험생을 위한 공연 및 명사초청 특강

평생교육프로그램 | 키즈 쿠키, 난타교실, 한국사 능력시험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활동

고고생트레킹캠프 | 걷기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함양, 도전정신 및 성취감 형성

3대3 농구대회 | 농구를 통한 협동심 강화, 중·고등부 각12팀 참가, 스포츠맨십 형성

생활체육프로그램 | 배드민턴, 엄마와 함께 하는 키즈 발레 등 12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연계활동

학교연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26개교 109회 운영 (자기계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제 10개교 241회 운영 (주제선택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지역간 청소년교류활동 | 국내외 다른 지역 청소년과 부평관내 청소년과의 교류, 문화체험

함께해서 좋은 세상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과 사랑을 나눔, 기념식

지역사회참여활동 | 찾아가는 체험부스 운영, 마을축제 참여, 부평대표축제 참여

보호복지활동

모여라 희망레포츠클럽 | 사회적배려 청소년을 위한 겨울 스키캠프 운영

학교폭력예방활동 '도담도담'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특성화사업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

공모사업

여성가족부 참여부문 공모사업 '쇼미더 알바'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여성가족부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맹꽁이들의 탐구생활' | 굴포천 탐사활동, 굴포천 마스코트 맹이·꽁이 릴레이 동화 짓기, 굴포천 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활동 등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군세여라 대한아' | 나라사랑 뮤지컬 교육 및 공연활동

2016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상상학교' | 연극 교육, 참여연극 워크숍, 공연관람 및 공연활동

북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 푸드스타일리스트, 레고프로그래밍, 배드민턴, 난타 등 체험활동

인천광역시 진로프로그램 지원사업 '직업이 예술이네' | 플로리스트, 도예가 등 예술분야 진로활동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 '건강관리사와 바리스타의 세계'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 미술동아리, 댄스동아리 자치적 운영 지원활동

동아리활동

분야	동아리명	인원(명)	활동내용
댄스	크로체	12	동아리지원사업 참여
	리네브	5	교내축제공연
	POPZ	14	해마다 2월에 버스킹 공연 활동
	리젤	7	동아리지원사업 참여
	the max	3	교내축제공연
	teenager	3	교내축제공연
	다리아	5	교내축제공연
	플룩스	7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참여
	블랙아이즈	5	수련관 내부행사 공연 참여
	O.S.T	4	시냇물공연 참여
	G.P.S	2	다락 축제공연 참가
밴드	글라이드	2	동아리콘서트 참여
	Hermes	5	교내 축제공연 참여
	에이머	6	교내 축제공연 참여
	snow band	5	팀 연습활동
	YB	7	팀 연습활동
	클립	7	팀 연습활동
전통	natural	2	팀 연습활동
	타울소리(난타)	7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가온누리(사물놀이)	8	부평문화의거리 공연
문학	도란도란	9	독서 모임 참여
	하브루타	5	독서 모임 참여
예술	가우디(건축)	5	한마당축제 부스 운영
	18색조	7	성우 영상콘테스트 참여
	셀루리안(미술)	12	동아리지원사업 참여
	하바젤	2	어린이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FOOL(뮤지컬)	12	자체적으로 뮤지컬 준비
	흔불(연극)	6	연극공연
환경	푸른가람	20	한마당 축제 부스 운영
	쪽빛가람	11	환경신문 제작

3.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교육전문기관이다. 성과 성문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 토론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조성하고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1년 10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성문화교육팀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기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3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로 분리되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에 주제별 성교육 공간을 배치하여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문화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문을 연 뒤 2015년까지는 사업 안정화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아동·청소년, 장애아부 등에 따른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성교육 인력 확보를 위해 성교육활동가 양성에 주력하면서 또래 상담지기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동아리 운영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사업은 크게 교육사업, 문화사업, 조직활동사업, 상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사업은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방학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토요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서는 성교육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교육청과 부평구청 위탁사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특별사업으로 장애학생계절학교와 계양구청 위탁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사업은 성문화캠페인, 학교축제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평구 청소년 그림 그리기대회, 부평키즈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축제에 참가하여 성 평등 의식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성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활동 사업은 성교육활동가 양성,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사업으로는 범원수강명령 위탁교육과 학교 위탁교육을 중심으로 상담과 상담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으로 2013년에는 극을 활용한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2014년 예비 취업생을 위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예방교육, 2015년에는 극을 활용한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형극 공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 진행한 공모사업의 결과로 인형극 성교육강사를 양성해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극을 활용한 성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은 사업안정화 기간을 통해 구축된 성교육 콘텐츠와 양성된 성교육활동가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의 확대와 청소년기관들과의 연계협력력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기로 2016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계절학교, 유치원생과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극을 활용한 성교육을 교육사업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관 이래 교육사업을 통해 청소년성교육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과 성 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인지각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나가는 한편, 성교육전문가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1, 2 토요프로그램 사춘기놀이터
3 안전한 우리마을! 부평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조직도 및 인력현황



주요 연혁

2010.08~09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설계 용역 2010.12.10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공사 착공	2012.03.05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2.03.20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2012.04.27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성교육 위탁	2013.03.05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기관 분리 2013.03.14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3.04.16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성교육 위탁 진행		2014.02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5.01 장애학생 계절학교 신규사업 진행 2015.02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6.01 극을 활용한 성교육 신규사업 진행
2011.01.06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공사 준공 2011.11.14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임시개소 2011.11.23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개관 기념식 및 부평구청소년 성문화센터 개소 운영	2012.05.3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협약 및 특수학급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위탁 2012.06.26 인천지방법원 보호소년의 수강명령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	2013.08.2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및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위탁 2013.11.14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현판식		2014.05 서구청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위탁 '극을 활용한 성교육'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 지원청 특수학급 및 학부모, 교사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위탁 2014.08 청소년성문화동아리 맘·친 (맘이 통하는 친구) 구성 및 활동 시작	2015.05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 원청 특수학급 및 학부모, 교사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위탁 계양구청위탁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찾아가는 성교육 진행 2015.09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위탁 어린이안 전지역 찾아가는 성교육(4개동) 진행	2016.03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위탁 어린이안전 지역 찾아가는 성교육(12개동) 진행 2016.05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및 학부모, 교사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위탁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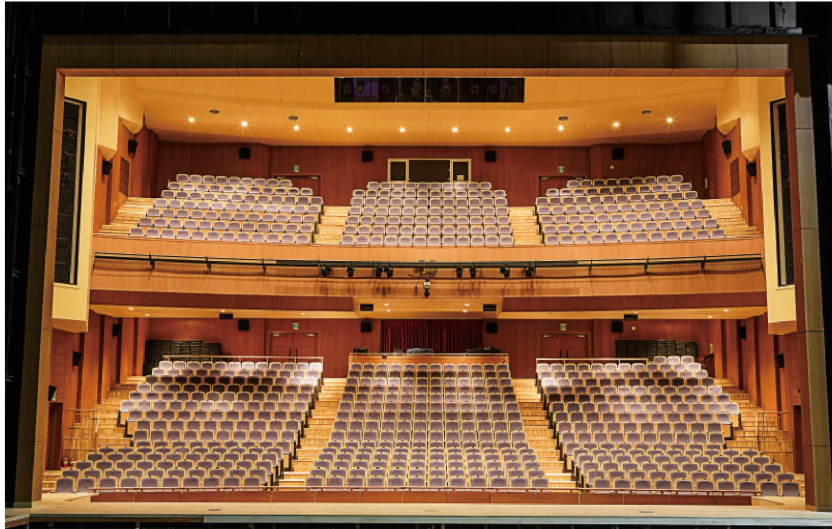
사업영역	사업영역
교육사업	· 체험관 성교육 체험대상에 따른 주제별 성교육과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사춘기 노트 만들기 등 체험활동 · 찾아가는 성교육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신청 기관을 찾아가는 대상별 성교육 진행 · 방학특강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중학생의 발달특성에 맞는 체험, 활동위주의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부모와 자녀가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세대 간 성적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 토요프로그램(성장놀이터)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 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 성장체성을 형성하도록 함 · 장애청소년 계절학교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자존감 증진 및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진행 · 극을 활용한 성교육 인형극과 상황극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진행
문화사업	· 성문화캠페인 캠페인 및 청소년행사 연계부스 운영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알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는 활동 · 학교축제지원사업 부평구 관내 중 · 고등학교 축제기간에 성문화체험부스 운영
조직활동 사업	· 성교육활동가 양성 성교육, 성상담에 관심있는 성인대상으로 성지식, 성의식 등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운영 청소년 성문화와 또래 간의 소통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체험학습과 토론을 통해 성과 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래 청소년들 속에서 건강한 성문화를 알려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상담사업	· 법원 수강명령 위탁교육 · 학교위탁교육
공모사업	·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2012~2015)

05

문화공간 소개

- 1 부평아트센터 2 부평구문화사랑방 3 부평아트하우스
4 부평구립도서관 5 부평구청소녀수련관 6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1. 부평아트센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Arts For Everyone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성이 강화된 예술교육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턱 낮은 참여마당

부평아트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에 위치하여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2층은 단체분장실, 밴드부스, 연습실, 분장실E, 지하 1층은 달누리극장(323석), 갤러리 꽃누리, 분장실 A, B, C, D, F, G, 수유실, 놀이방, 카페, 1층은 해누리극장(605석), 안내데스크, 사무실, 상주단체 사무실, 2층은 해누리극장, 커뮤니티홀 호박, 스튜디오 A,B,C, 세미나실, 3층 식당, 옥상공연장 별누리로 이루어졌다.

인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부평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풍요로운 문화 부평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청이 출연한 복합문화공간이다.

편리한 접근성과 최적의 관람환경

부평아트센터는 지하철 1호선 백운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최고의 스테프진, 최첨단의 무대 시스템과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공연장과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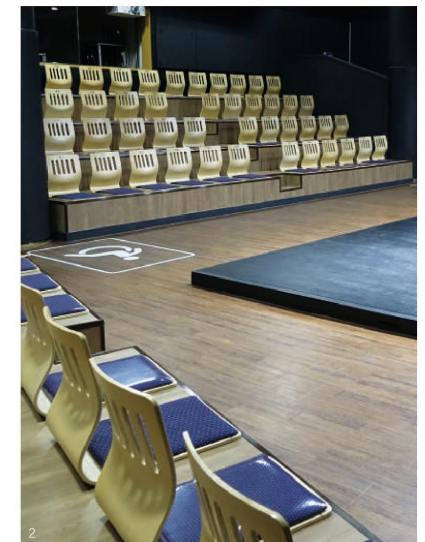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와 함께 참여형 전문 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계층만의 문화 공간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복합문화공간이 되고자 한다.

2. 부평구문화사랑방



1 부개 문화사랑방 공연장 2 부평 문화사랑방 공연장



부평구문화사랑방은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주민센터 3층)과 부개문화사랑방(부개1동 주민센터 3층) 두 군데이다. 124석(부평), 113석(부개)의 소공연장으로 연간 모두 30회 이상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과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성인교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동아리와 커뮤니티 단체들에게도 열려있는 문화사랑방은 지역의 소소한 일상이 함께하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다.

3. 부평아트하우스 부평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



부평아트하우스는 부평아트센터 맞은편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2010년 12월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구)송학사 통합막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201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이 부평아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아마추어 동호회를 위한 연습공간으로 대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평아트하우스 공간 중 지하1층과 1층 공간을 부평생활문화센터로, 2층 공간은 BP음악창작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1, 2 부평아트하우스



4. 부평구립도서관



1 부개 도서관 2 삼산 도서관 3 부평 기적의 도서관 4 청천 도서관 5 갈산 도서관 6 부개 어린이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은 모두 6개의 도서관이 있다. 부개도서관(예술), 삼산도서관(영어), 부평기적의도서관(생태, 환경), 청천도서관(다문화), 갈산도서관(교육), 부개어린이도서관(가정 및 육아)으로 특성과 사업을 전개하며, 부평구의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사업영역
부개도서관	2012년에 개관한 부개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83길 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3층 규모로 어린이 열람실, 다목적실, 종합자료실, 소회의실, 디지털 자료실 등의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두 3만 5000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삼산도서관	2012년에 개관한 삼산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부평북로 445에 위치하고 있으며, 5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 멀티·영어 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비도서 자료, 동양서, 서양서를 비롯해 모두 3만5000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 기적의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66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관했다.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영유아방, 다목적실, 쉼터, 동아리방, 야외쉼터 등의 공간이 있다. 현재 6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천도서관	청천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개관했다. 2층 규모로 어린이실, 유아방/이야기방, 나눔방, 종합자료실 등의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3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갈산도서관	2011년에 개관한 갈산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2층 규모로 영유아 종합자료실, 초등 및 일반 종합자료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이 있다. 현재 2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부개어린이도서관	2011년에 개관한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2층 규모다.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의 공간에서 모두 1만5000권이 넘는 장서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5.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삼산동)에 위치하였으며, 대지면적 2,991m², 연면적 4,987m²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었다. 지하2층 실내체육관, 지하1층 체육관람석(74석), 1층 문화카페, 나눔터, 방과후아카데미1, 2, 채움터, 어울림터, 2층 멀티미디어실, 영상체험실, 영상스튜디오 부조정실, 영상편집실, 사무실, 3층 뮤즈피아, 테크피아, 우드피아, 퓨즈피아, 성문화센터, 푸드피아, 4층 공원장(400석), 분장 및 대기실로 이루어졌다.

2011년 개관 이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1개 분야 48개의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은 부평관내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 행복 도시’,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청소년 지역 공감 형성’, 청소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소년문화 공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사고와 창의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1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2 테크피아



6.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삼산동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평구문화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성문화교육관은 색수열리터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한 성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오감으로 직접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찾아가는 성교육 활동뿐 아니라 성인지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성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6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



- 1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
- 2 부평구립여성합창단 회장
- 3 어린이 연극학교 예술강사

- 4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연출가
- 5 재단 등록 동아리 부평아리랑 회장
- 6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

최도현

최도현 후원회장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은
행복한 경험을 열어주는 곳이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민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후원회장 (주)대원인물 최도현 대표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산업용 나이프 등 인물 제조기업의 CEO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출범 이후 부평구문화재단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후원회는 부평구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예술을 가꾸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후원회장은 후원회 정식 출범 이전부터 크게 공헌해왔다. 준비위원장으로서 후원회 발족을 준비하였으며, 2년 동안 후원회장을 맡아 공헌해왔다.

부평에서 오랫동안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실 것 같다. 후원회장으로서 부평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남다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소개와 함께 후원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드린다.

20년 전 부평에서 대원인물을 설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용 나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문외한이었던 내가 문화재단 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에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가 찾아와 진정성 있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이후 후원회장을 맡아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

우리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신규 회원 확대를 통한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특이하게도 부평구 대기업체 회원이 부족하다. 우리 후원회와 문화재단에서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더 많은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후원회원들이 최근 경기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금확보가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임기 동안 부평 내 다른 4~5개의 조직들을 우리 후원회에 합류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후원회 사업과 방향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 사이 한 달은 회장단 모임이다. 운영위원회 안에서 무척 열띤 토론을 벌인다. 출범 당해 후원비 1억7600만원을 모아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것이냐 논의하여 8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물론 이 외에 운영위원회 간의 친목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 워크숍을 간다. 이러한 활동은 운영위원회비를 모아서 진행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원회 참여를 위한 대외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부평구 단위에서 후원회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CMS 시민회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CMS를 통해



문화드림 시민회원 기명정 문화나비 1호점 부일식당 헌판식 개최

문화재단의 재원확보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관객 확보라는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분들은 후원 액수와 상관없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 후원하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우리 후원회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재단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바람막이가 되는 것이다. 문화기관이나 문화단체들은 실제로 특정 정당이나 이익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파벌을 나누어 공격적인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재단의 사업운영이 편파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잡고 제재하는 역할에 나서겠다. 반대로 근거 없는 이유로 방해하거나 오해를 만들어내는 외

부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해명을 하거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후원회는 재단과 보조를 맞추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문화향유와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활동을 벌인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다른 기부활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사 경영을 시작하면서 우리 회사 이익금의 1%를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대부분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을 해왔다. 보람을 느꼈던 사례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편이 좋지 않은 한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그 학생이 졸업 후 임용고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선물로 건네준 넥타이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꺼내 매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을 해왔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이 봉사와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부평 중소기업협의회장을 할 당시 연말에 구청으로부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연탄봉사 요청이 왔다. 연탄봉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 단체 SNS에 올렸더니 나중에는 예정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와 주체를 못할 지경이었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걸 중간에 막고 연말에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와 문화 체험은 닮은 점이 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권유와 우연한 경험으로 접하다 보면 재미 들리고 빠져드는 것 같다. 문화재단 후원은 다른 기부와 달리 이후에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된다. 부평아트센터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기도 하고, 문화행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혜택을 바라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부와 다르게 기부 이후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많아져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몸소 실감하고 있다. 문화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꾸준히 많아져야 한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재단의 수익구조와 운영에 대해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

공연, 전시, 교육 수익만으로 공연장의 손익을 맞출 수는 없다. 공연장은 도서관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신뢰를 쌓아온 부평구문화재단이 그동안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한편 문화재단은 기업과 달리 작은 사항까지 규정 하에 철저히 움직이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 일이 태반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상당 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실무자에게 위임하여 일의 추진력과 속도를 강화한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와 제약조건이 많다면 실무자들은 무사안일주의로 돌아서게 된다. 재단의 일을 보면 작은 일도 예산에 의해 미리 결재 받고 시행 후에 기안을 올리고 감사받는 과정을 거쳐 철저히 꼭 짜여 돌아가는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다.

회장님께 부평구문화재단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경험을 열어주는 곳이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가족과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해 손주들과 며느리와 함께 부평아트센터에서 <구름뽕> 공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유치원 노래자랑에서 손주가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 사람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 힘든 경우가 많다. 그것을 즐겁고 행복하게 극복하는 것은 결국 선택과 의지에 의한 것일 텐데,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구민 곁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작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해준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회장

홍성옥

부평구립여성합창단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은
마음껏 예술할 수 있는 곳이다.



2000년에 창단되어 16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부평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2015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에 합창단에 입단하여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과 열정으로 합창단을 이끌어온 홍성옥 회장에게 그동안의 감회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에 입단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회장이 되셨는지 말씀해달라.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시절에 합창단원 모집 플래카드를 보고 설레면서 지원했다. 구립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오디션 전날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긴장했던 것이 떠오른다.

합창단에 들어와 기본적인 발성법, 곡의 해석, 하모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며 중년 여성합창의 매력에 빠졌다. 관객으로서 무대를 바라보는 느낌과 무대에 선 연주자로서의 마인드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끼며 합창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했다. 그러던 중 2012년 부평구의 예산부족과 합창단 내 갈등을 이유로 부평구청으로부터 구립합창단이 해축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10여명의 단원들이 다른 시민합창단으로 빠져나가 20여명이 남았고, 동아리합창단으로 활동하기에는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부족했다.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내부 규칙과 기강을 바로잡았다. 지휘자님께서 합창단의 실력을 만들어주신다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이 내부적인 행정과 관리를 통해 합창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단원들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출석 기준을 높여 연주 참석기준을 80%로 정했다. 회장으로서 부평구여성합창단에 바라는 바는 부평 관내에 있는 요양원, 병원 등에서 위로공연을 하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권위 있는 대회참가를 통해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후 단원을 새로 모집해 28명의 인원이 되었고, 열심히 연습해 이듬해 태백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기연주회나 대회참석을 하면 연습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1년 동안 연습할 분량이 3~4개월 동안 해결된다. 태백경연대회에 나갈 당시 자체회비를 걷지 않아 예산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실력에 대해 의심도 많았지만 우리 합창단의 성장과 다른 단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다행히 장려상을 받으며 단원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이후 구립여성합창단으로 재위촉을 받았다.



2016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아마추어 합창단이라고 하지만 전문 합창단과 비견하여 부족함이 없게 느껴진다.

우리 합창단원이 음악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져나가면서 연주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실력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무대에 설 때만큼은 전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다. 회장으로서 우리 합창단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합창단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휘자님께서 단원들이 실력을 갖춰나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 지휘자님이 단원 선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점은 하모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이다. 아무리 실력 있는 전공자가 단원으로 들어오더라도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도록 겸손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지휘자님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다가 재단에 위·수탁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것 같다.

변화된 부분과 재단에 기대하는 부분을 말씀해달라.

재단에 소속되어 연습공간이 해결된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부평아트센터의 쾌적하고 넓은 연습실과 분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다. 반면 재단에 들어오기 전과 달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업무에 있어서도 미리 보고하고 결정이 난 뒤 시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생겨 긴박한 업무에 대응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조직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게 된 장점이 있다. 재단의 구립예술단 담당자와 서로의 요청사항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내 역할이므로 중간에서 잘 조율해 나갈 것이다.

재단에 기대하는 것은 예술단을 위한 홍보강화다. 앞으로 공연홍보 외에도 신입단원 모집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안정된 합창단 운영을 위해 단원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재단의 홈페이지 게재와 문자 홍보 외에 재단 담당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동사무소, 구청을 돌아다니며 홍보물도 붙여주시지만, 아직까지 충원된 인원엔 부족함을 느껴 다른 모집 홍보방법이 없을까 고민이다.

마지막으로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계획과 회장으로서의 다짐을 말씀해달라.

합창단을 내실 있게 보강하기 위해 35명 정도의 단원이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많은 공연을 치르면서 인원이 적으면 소리에 문제가 생기므로 모든 단원들이 공연에 빠질 수 없는 행편이다. 또한 정기연주회나 대회 참가 시 단원 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 합창단의 발전과 단원들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 객원·보조단원 선발, 단기제 운영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존재감 있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래 실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지휘자와 연주자가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룰 때만이 관객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습은 고단하지만 충실한 노력을 통해 공연 퀄리티를 높이고 여성합창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생각하는 부평문화재단이란.

마음껏 예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예술은 행정조직이 아닌 예술조직 속에서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술단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하여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우리 예술단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

어린이 연극학교 예술강사

김소정, 선은미, 이현숙, 박혜정, 김재운

어린이 연극학교 예술강사들에게
부평아트센터란
좋은 작품을 훌륭하게 펼칠 수 있는 놀이터.
내가 공연하고 싶은 부평의 예술의전당이다.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연극학교(이하 연극학교)는 부평아트센터의 핵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모집공고를 내자마자 모집인원 이상의 신청이 몰려든다. 연극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음 학기에 또다시 신청하는가 하면, 연극학교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가 연극학교의 개설을 손꼽아 기다려 들어오기도 한다.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연극학교를 총괄하는 김소정, 학부모소통과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선은미, 대본과 인성지도를 맡은 이현숙, 의상, 소품제작 맡은 박혜정, 음악을 가르치며 소리를 담당하는 김재운 이렇게 5명의 어린이 연극학교 예술강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연극학교는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부터 지금까지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다. 처음 연극학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소정 | 박혜숙, 이현숙 선생님은 부평아트센터 개관기념 연극놀이 프로젝트인 '큰아저씨의 정원'을 하면서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연극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모두 연극 전공자들이고, 유일하게 김재운 선생님만 음악 전공자이다. 문화현장에서 동료로 만나 각각 3년에서 11년 정도 함께 활동하면서 교육연극에 대해 같이 개발하고 배워가는 중이다.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한 교육연극계에서 오랜 기간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궁합이 맞았다.

부평아트센터 어린이 연극학교가 다른 교육연극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현숙 | 교육연극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활동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서로 놀이 과정 안에서 관계에 대해 배우고, 사회성과 배려심과 같은 인성을 키운다. 주제를 거처 아이들의 말과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담아 대본을 완성하고, 전문 스태프들이 함께 하는 전문극장에서 마지막 발표회를 올리는 방식이다. 다른 교육연극은 아마추어 발표회로 끝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획부

터 탄탄한 대본을 토대로 프로무대에 서는 것처럼 공연을 올린다. 무대디자인, 의상 등 전문가들이 옆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부평아트센터 무대·조명·음향감독님들 덕분에 다른 교육연극에서 시도하지 못한 실험을 할 수 있다. 감히 대한민국 1%의 교육연극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학기마다 다른 주제로 새로운 시도를 하므로 5~6년 재수강하는 아이들도 늘 다른 형태의 공연을 접할 수 있다. 담당 연출선생님에 따라 음악, 몸짓, 드라마 대사 등 돌아가면서 중심과 형태를 바꾸어 계속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

김소정 | 교육연극을 한 지 16년이 되었지만 아이들과 작업하기에 여기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 수업하기에 가장 넓고 안전하다. 교사 구성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많은 곳도 없다.

공연 올린 작품이 오래 쌓이다보니 부평아트센터 어린이 연극학교의 레퍼토리를 정해서 아이들이 졸업하면 기존에 올린 작품을 재공연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연극학교를 계속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똑같은 작품을 하면 지루해 할 것 같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연극학교가 앞으로 더 오래 진행된다면 새로운 아이들로 모두 바뀔 때쯤 우수 레퍼토리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연극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과정을 담아 대본이 만들어지는지 여쭙겠다. 연출하는 선생님이 대본을 쓰고 무대를 세우는 구성까지 모두 하시나.

김소정 | 공연을 마무리하면 다음 학기 연출을 누가 맡을지 의논한다. 연출을 맡게 된 선생님이나 주제를 직접 생각하고, 아이들을 전체 수업을 끌어내기 위해 알맞은 접근 방법에 제시한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지만, 참가하는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에 따라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주제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성이다. 사회문제인 왕따, 아름다운 죽음, 핵가족 문제, 어른공경 등에 대해 미리 정하고 아이들과의 대화하면서 상황과 기질을 보고 공연 주제를 확정한다.



김재윤 | 큰 주제는 연출이 끌고 가되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조합하면서 세부적인 그림을 연출하여 전체 디자인을 하게 된다. 아이들과 만나 모둠별로 토론식 활동을 하면서 대본을 완성시켜 최종 공연을 올린다. 특히 장면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살린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대본에 담기게 된다. 처음 연출이 생각한 방향과 아이들이 만들어낸 장면이 달라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면 넌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면 어린왕자의 동화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현숙 | 여기는 연극을 배우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형제가 없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다.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40명의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며 몇 주 동안의 연극 활동을 통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연극놀이를 통해 충분히 공감해나가는 과정이 언제나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동안 기존에 있던 연극, 창작연극이 반반 공연되었다. 기존에 있던 작품을

올린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 장면을 만들어 내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자신의 어투와 언어가 공연 대본에 반영되니 참여하는 아이들이 공연에 대한 애착이 더 클 것 같다.

선은미 |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연극학교에서는 대답을 크게 해도 환호성이 섞인 칭찬을 받는다. 대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은 학교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소극적인 아이들이 오히려 친구를 데리고 온다. 적극적으로이지 않고 무표정한 아이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다.

또 연극학교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돌보게 된다. 연극학교에 오래 다닌 선배 아이들은 동생들이 넘어지면 팬찮느냐며 보듬고 챙겨준다. 언니, 오빠들이 했던 좋은 행동을 배워서 그 역할을 나중에는 동생들도 한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영·수 학원에서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놀이를 통해 역할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배려할 수 있다.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운다. 혼자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혼자 나서면 공연을 만들 수 없다.

아이들의 감성을 깨우고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가능한 것은 연극장르의 장점인 것 같다.

김소정 | 연극은 장면과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토론, 이야기 발상, 하모니를 이뤄야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연기,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들어온다. 또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는 아이, 글로 표현하는 아이,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 등 모두 그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는다. 다 같이 협동작업을 하면서 어떤 장르보다 어려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는 우열이 없다. 표현이 잘 안 되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여긴다.

무대는 누가 만드나.

박혜정 | 내가 무대, 의상, 소품 모두 다 맡고 있다. 갖춰진 여건이 좋다보니까 무엇을 무대에 올려놔도 빛이 난다. 우리는 부평아트센터의 좋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연을 만든다. 부평아트센터 감독님들이 이 과정을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작년부터 부모님들이 마미손이라는 이름으로 크루(crew)활동을 도와주신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무대 뒷공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마미손은 공연 리허설 당일 무대 뒤에서 무대전환 시 소품 의상을 챙기는 역할을 도와주신다. 무대 뒷공간에서는 안전과 정숙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정신없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렵다. 그 가운데 참여해주

시는 마미손 분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여 부모님들도 공연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셨다. 더욱이 아이들은 리허설과 공연 당일의 변화과정이 분명하다.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가, 마미손에 참여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연극학교 10주년을 기념하며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 10주년까지 4년이 남았다. 그동안 올린 12작품 중 베스트 작품을 뽑아서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다. 이를 토대로 부평아트센터 어린이 연극학교 창작 대본집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우리가 계속 창작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목소리와 여투가 들어간 대본이 정리되고 있다. 완성된 대본집을 아이들 공연을 만들고 싶은 선생님들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요하다.

또 졸업한 아이들이 10주년 행사로 다시 모여 연극을 올렸으면 좋겠다. 졸업한 아이들이 스태프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과 다시 공연을 만들어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와 연계하여 올릴 수도 있다. 그동안 가장 재미있던 노래와 안무를 엮어 갈라콘서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에게 어린이 연극학교란.

박혜정 | 나를 고민하게 하고, 성장시킨 곳. 창작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만큼 기쁨도 크다.

이현숙 | 내 상상을 믿고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김재윤 | 새로운 도전, 함께하는 도전이다.

선은미 | 나를 성장하게 한 곳이다. 연극학교에 참여했던 횟수만큼 공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김소정 | 힘들었던 1주일을 보상받는 곳이다. 여기 아이들만큼 착하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없다.

나에게 부평아트센터란.

다같이 | 좋은 작품을 훌륭하게 펼칠 수 있는 놀이터. 내가 공연하고 싶은 부평의 예술의전당.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연출가

권호성

권호성 연출가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은
무한한 내일이 열려있는, 함께해서
즐거운 곳이다.



권호성 연출가는 3년째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이하 당아시)을 발전시키고 있다.

1960년대 부평 미8군 부대를 배경으로 한국전쟁 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음악을 통해 꿈을 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당아시는 부평의 지역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만든 이벤트성 작품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명력이 있는 작품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역마다 고유의 콘텐츠를 상품화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을 돌아보면 지금 전라북도 전주 전북문화예술회관에서 2년째 공연되고 있는 <춘향전>이 있다. 남원이 판소리로 춘향전을 공연하고 있지만, 뮤지컬로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 이 경우도 당아시처럼 2년 전 시범 창작하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오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관광 상품화 된 케이스다. 두 번째로 광주에서 2010년에 5·18 30주년 기념으로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화려한 휴가>가 있다. 광주에서 장기공연하고, 서울 국립극장에도 올랐다. 세 번째 순천시에서 만든 <순천만 연가>도 있다.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을 창작음악과 함께 순천만에서 벌어지는 요정들의 이야기로 각색하여 순천문화예술회관과 순천 정원박람회 야외 특별공연으로 올렸다. 네 번째로 강원도 립극단 창단연극 <허난설헌>으로 강원도 12개 지역을 돌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시인이자 당대 중국까지 이름을 떨친 실존 인물을 토대로 만든 이 연극은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동안의 작품들이 관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당아시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연출한 작품들이 운이 좋아 관객과 평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겸손하게 답하는 그는 당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만든 공연의 결과는 그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제작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민간제작의 경우보다 민감하게 좌지우지된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게 되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문구 자체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지만, 흥행을 하지 못할 경우 강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순식간에 예산이 삭감되기도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이 당아시를 제작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공연제작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언론에서 지적받을 일이 없다. 제작하지 않으면 전혀 문젯거리가 생기지 않는데도 적은 예산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올리는 작품이지 않다. 작년에는 무대 바닥재, 무대설치 목재, 파이프 등 현물 후원을 받으면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 않으면 욕먹거나 힘든 일도 없을 텐데,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대여섯 명이 등장하는 연극이 아니라, 스무 명이 넘는 배우가 등장하는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다른 뮤지컬 제작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며 재단의 사명감과 의지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일개 구에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작품의 숙성 기간을 이해하고 참을성 있게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당아시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기반 창작 콘텐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소극장에 초연작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십 년 전 역사적 이야기를 끄집어내 관객에게 내놓으니 팬층은 소재였다. 이것이 부평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전쟁과 미군의 팽문화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소재이며, 부평을 거쳐 우리나라 음악계로 뻗어나간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었다. 처음에는 기지촌의 소재를 드러내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부평이 대중음악의 효시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해는 해누리 대극장으로 옮겨 공연했다. 통상 뮤지컬 창작금액의 1/10 예산이 주어질 넓은 대극장 공간에 무대세트와 배우를 채우는 것부터 어려웠다. 힘들게 공연을 마쳤지만, 지역을 벗어나 공연을 진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이 될



2016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당아시 연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부평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다움을 살리기 위해 원로들의 증언과 주민 인터뷰를 통한 꼼꼼한 취재와 자료를 조사했고, 원형스토리에 휴머니즘적 감동과 상상을 덧붙였다. 단단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부평의 실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공된 인물들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당아시에서 실험하지 않는다. 안정되게 밟아가야 되는 신중한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적 미장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구축해나간다. 매번 잘 만들어서 5년, 10년을 만들어가야 하는 콘텐츠이므로 모험하지 않는다. 지자체 예산 형편상 실패한 사업에 다시 투자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알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공연 성패의 바로미터는 공연 당일 관객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에 부평을 전면에 세워 지역 색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작품에 대한 감동을 전한 후, 부평이 만든 부평스토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련되게 부평을 알리는 방법이다.”

대중성을 갖춰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철저하다. 뮤지컬 시장에서 살아남는 공연은 대중성에 부합한 흥행 담보 작품과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독심 있게 밀어붙이는 작품들 중 하나다. 당아시는 후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객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한다. 권호성 연출은 이 작품이 성황리에 끝나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평의 사례를 토대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인천시에서 당아시 제작에 관심 갖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운 심경을 전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인 당아시를 인천의 7개 문예회관에서 선보여 인천 전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아시에서는 1950년도에서 1963년까지의 팝음악을 주로 들을 수 있다. 1963년 이후는 미국의 흑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리듬 앤 블루스와 가스펠을 결합한 소울음악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에스컴의 전성기는 50년대 말 60년대 초,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비틀즈(Beatles) 등의 음악이 당시의 가장 주류음악이었다. 이봉조, 김옥윤, 신중현 등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큰 획을 그은 분들이 모두 에스컴 출신이다. 당시 빅밴드 관악기 주자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부평에는 빅밴드가 남아 활동하고 있다.

다른 주크박스 뮤지컬과의 차별점은 음악을 번안이나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맘마미아, 올숙업 등 한국에서 공연되는 외국의 주크박스 뮤지컬은 드라마의 내용을 음악 가사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한국말로 하지 않으면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당아시는 굳이 번안하지 않아도 되므로 골든팝을 원어 그대로 들을 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시대, 내 젊음, 내 추억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팝송을 들을 때 꼭 가사를 번역하여 듣지는 않잖나. 당아시는 그때의 정서 속으로 전이해낸다는 미덕이 있는 것이다. 다 똑같은 주크박스 뮤지컬인데 원어로 감상할 수 있으면서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뮤지컬이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다. 2년 동안 공연을 올리면서 어느 누구도 왜 팝송을 번역하지 않고 부르느냐, 무슨 뜻인지 알고 영어를 듣게 하느냐 한 사람이 없다.”

권호성 연출은 당아시 넘버 중 여주인공이 혼자 부르는 코니 프란시스(Connie Francis)의 ‘Who’s sorry now’라는 발라드곡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라틴계열의 가수 코니 프란시스는 그 시대의 미국 대중음악계의 우상이었다. 이외에도 당아시에서는 넛킹콜(Nat king cole)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팝음악을 들을 수 있다.

당아시는 권호성 연출에게 어떤 의미 인지 묻는 질문에 ‘당최 아무리 해도 시작 같은’이라고 위트있게 대답한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답해 달라 청했다.

“무한한 내일이 열려있는, 함께해서 즐거운 곳.”

재단 등록 동아리 부평아리랑 회장

심해량

심해량 부평아리랑 회장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은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안내해주는 아버지같은
존재이다.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라 할지라도 옆에서 독려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은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부평아리랑’은 동아리 인천부평아리랑의 심해량 회장이 2009년 작사한 노래다. 부평구의 22개 동마다 풍물단이 구성되어 20년 동안 풍물대축제를 끌여가고 있지만, 스무해 세월만큼 참여한 주민들도 나이를 먹어 풍물을 치기에는 신체적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집집마다 팽과리, 장구, 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야 아무 때나 풍물놀이를 즐기기 어렵다는 생각에 심해량 회장은 부평의 풍물놀이를 드러낼 수 있는 신명나는 노래를 만들었다. 전국 어디에나 보급하기 용이하도록 신나는 노랫가락과 쉬운 가사로 만들었다.

“부평아리랑을 작사하면서 가사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개인 사비를 들여 작곡을 의뢰하고 노래 부를 사람을 섭외했다. 노래를 어설피게 만들면 노래가 금방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쉽게 모방해버리기 때문에 공들여 만들었다. 동아리 이름에 ‘인천’을 넣어 인천부평아리랑으로 지은 것은 부산 부평동, 강원 부평리 등 전국에 부평이 세 군데 있어 인천의 부평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풍물놀이에서 진일보한 차별화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십여 년 전부터 고민하던 심해량 회장은 부평아리랑 노래에 전통혼례 퍼포먼스를 더했다. 70여명의 동아리 회원들의 전통혼례 의상까지 완벽하게 손수 준비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오픈퍼레이드에도 나섰다. 그녀는 이날 촬영된 언론의 사진기사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자랑삼아 꺼내 보여준다. 다른 동 사람

들은 풍물복장으로 입장하는데 그 당시 부평아리랑 동아리 회원들은 전통혼례복을 갖춰입고 퍼레이드 행진을 진행했다. 전통의상도 회원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손수 만든 작품들이다.

“당시 전문 공연 연출가들로부터 같이 퍼레이드를 준비해보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어 공연을 완성했다.”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 예술단체도 아닌 인천부평아리랑 동아리는 매주 청천2동 주민센터 지하에 마련된 연습실에 모여 꾸준하게 연습한다. 한국무용 동아리, 난타동아리, 민요교실, 풍물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며 각자의 특색을 살려 공연을 만든다. 심해량 회장은 난타동아리, 민요교실의 강사로 무료로 봉사하면서 리더해나가고 있다. 연습실을 서로가 함께 쪼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회연습이나 축제를 앞두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공원에 나가 연습하기도 한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연습실은 언제든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이용하고 있다.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좋은 연습실이 있다는 것은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1 2016 문화예술 동아리 발표회 부평아리랑 공연모습 2 2016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공연모습

동아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회원 간에 자기 것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자랑한다.

부평구문화재단 지역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소액 자금은 공연에 필요한 소품을 사는데 알뜰하게 사용되었다. 회비를 보태어 공연용 큰북과 꽃, 부채, 한삼을 샀다. 다른 기관에서도 동아리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인원이 많은 동아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회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공연비용은 심혜량 회장이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메우기도 하고, 간식과 음료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마련해온다. 동아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회원 간에 자기 것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자랑한다. 앞으로 인천부평아리랑 동아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여쭙보았다.

“개인적으로 전통과 궁중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 다니면서 폐백, 전통의상 입는 법 등 우리나라 전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평도호부가 계양으로 나뉘면서 부평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궁중퍼레이드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지만, 부평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임금행렬 퍼레이드를 전통공연과 접목시켜 다듬어 나갈 것이다.”

이토록 바쁘게 지내시면서 동아리활동 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묻는 질문에 심혜량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나아가 들어 걸지 못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답한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 하신 말씀이 배운 만큼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씀 하나는 잘 지키는 것 같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인천부평아리랑 동아리에 어떤 의미인지 여쭙보았다. 그녀는 아버지 같은 곳이라고 거창하게 대답한다. 자식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안내해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라 할지라도 옆에서 독려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은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인터뷰 이후 인천부평아리랑이 올해 구, 시 대회에서 6개의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보상을 받은 순간이다. 앞으로도 그녀와 인천부평아리랑의 행보가 주목된다.

부평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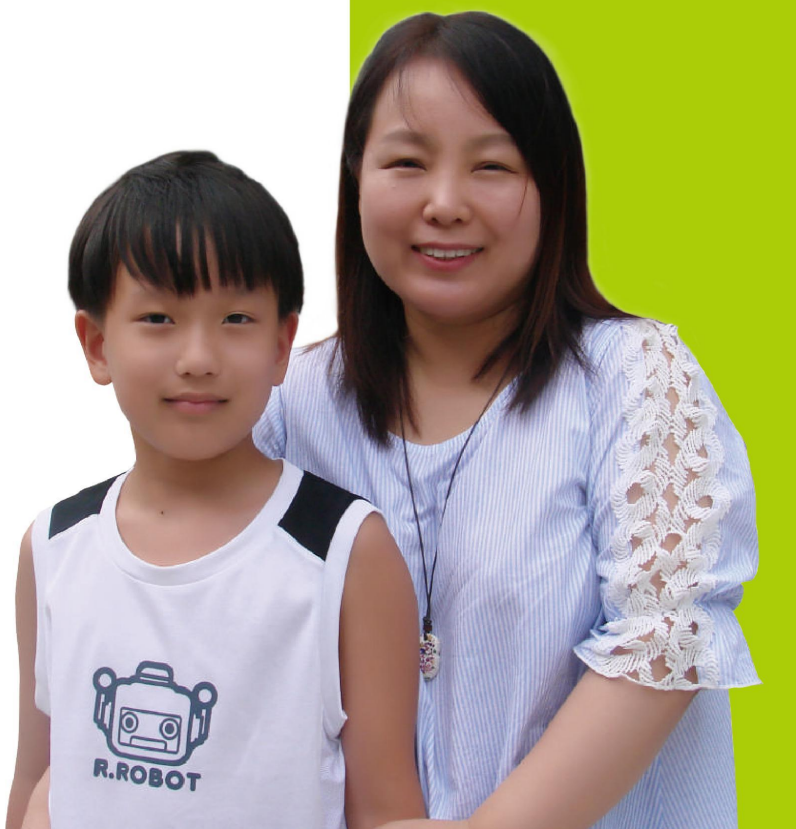
부평 풍물 아리랑(×3)
장구치며 장단맞춰 우리함께 놀아보세
풍물마당 참여마당 거리마당 나눔마당
어깨춤이 들썩들썩 신명나는 우리고장(부평)
아리아리 하나되어 이노래를 불러보세
부평 풍물 아리랑(×3)
부평 풍물 부평 얼쑤
언니오빠 여보당신 자진모리 장단맞춰
풍악소리 몸을 실어 손을 잡고 뛰어보세
어깨춤이 들썩들썩 신명나는 우리고장(부평)
두리둥실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불러보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곽영진, 남택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곽영진, 남택범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은
추억이 깃든 보석상자를 찾는 놀이터이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곽영진 | 가좌동에서 17살 딸아이와 10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함께 나온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남택범이다. 내 아들은 손재주가 좋아 어릴 때부터 부평문화사랑방에서 로봇을 색칠하고 종이접기 하는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부평구민은 아니지만, 그동안 집에서 가까운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 교육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적극 참여시켰다. 큰딸을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대형공연장이나 박물관을 찾다니며 공연과 전시를 보여주었다. 다행히 아이가 즐기면서 따라와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국·영·수 공부 중심으로 학원을 보내는데, 지금도 나는 아이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둘째 아들을 키울 때는 첫째를 키우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집 근처에서 전시와 공연관람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2010년 부평아트센터가 개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조물락 쿵>이라는 미술 수업과 구연동화처럼 책을 읽고 연관된 연극놀이를 하는 발도로프식 아카데미에 참여하였다.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다가 우연히 문화사랑방을 알게 되어 연극놀이 수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찾아갔는데, 지금은 부평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 공연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연도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부평문화사랑방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곽영진 | 2012년쯤 대학로 극단 사다리의 선생님들이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재활용 연극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째를 사다리 연극학교로 보내면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둘째를 꼭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수업에 보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이가 사흘 내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 여겨졌다. 이후 부평문화사랑방에 사다리 연극학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연극수업이 개설되면서 연극놀이 수업과의 인연이 계속되었다.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수료식 모습

남자 어린이들은 태권도 학원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엄마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고 공연을 보는 것이 좋은가.

남택범 | 공연장이나 박물관에 가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 학원은 다니지 않고 집에서 엄마랑 문제집을 따로 풀어본다. 안 배운 것을 풀어서 많이 틀리지만 학교 가면 도움이 많이 된다.

어머님의 교육관이 분명한 것 같다. 첫째를 키우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쌓기보다

공부에 집중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다.

곽영진 | 첫째는 과학교에 다닌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꾸준히 아이가 책을 접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한글 배우기 책을 읽히다가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색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함께 그림도 그려보며 돌 무렵을 보냈다.

이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녔다. 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엄마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골랐다. 다행히 아이가 잘 따라와 주었고, 좋은 영향을 받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혹시 부개문화사랑방에도 가 보셨는가.

곽영진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부개문화사랑방에서 했다. 동네에 작은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하지만 부개문화사랑방은 찾아가는 위치가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워 당시 연극놀이학교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동네에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그 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

예전에 비해 부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진 것 같아 좋다. 여기에 더하여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어 연계체험 · 교육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전시와 연계된 미술교육이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같은 경우다. 뮤지컬과 같은 대중공연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부평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을 이용하면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곽영진 | 우리는 문화사랑방을 사랑한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이다. 공연 수준도 서울과 비견할 만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어 좋다. 함께 참여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참여가 부족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공연 마니아는 보고 싶은 공연을 어디든 찾아가서 본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좋은 공연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날에 진행되는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는 인상 깊게 기억된다. 전시도 수준 높은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좋지만, 현대미술은 관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작가의 의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도슨트가 있으면 좋겠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말씀해달라.

남택범 | 부평문화사랑방의 <꿈다락 어디 어디 숨었나>와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조물락 풍>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곽영진 | 최근에 택범이가 참여한 연극교실이 인상 깊었다. 경인선이 처음 놓여진 대한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을 연극에 투영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3~4학년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택범이가 근대화시기를 생각해 볼 계기가 없어서 중구의 개항장을 데리고 가도 자장면과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만을 기억했는데, 5일 동안의 교육을 통해 일본 자본으로 경인선이 건설되는 과정과 한국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했던 노력을 배웠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평구문화재단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달라.

곽영진 | 보석상자를 찾는 놀이터

남택범 | 추억

곽영진 | 아이 말처럼 추억이 깃든 곳이다. 부평아트센터 블로그에 옛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남아있다. 거기엔 택범이가 서너 살 때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우리들의 추억을 담아두는 보석상자 같은 곳이다.

07

부록

부평아트센터



- 1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2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정관
- 3 기구 및 조직현황
- 4 예산

- 5 발기인 명단
- 6 역대이사회
- 7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명단
- 8 재단 사업연혁

1.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04.24, 조례 제1042호	개정 2011.02.23, 조례 제1141호	개정 2014.11.10, 조례 제1301호
개정 2009.11.13, 조례 제1070호	개정 2011.02.15, 조례 제1155호	개정 2015.10.01, 조례 제1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9. 11. 13>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 2015. 10. 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재단으로 설립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5.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본조개정 2009. 11. 13>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1. 13>
-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7조(임원 및 임면 등)

-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4. 11. 10>
-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1. 10>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 ⑤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삭제 2014. 11. 10> <본조개정 2009. 11. 13, 2011. 4. 15>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4. 15>
-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
 1. 구청장
 2. 자치행정국장
 3. 문화환경국장
 4. 대표이사
-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본조개정 2011. 4. 15>

제10조(운영제일 등)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조개정 2009. 11. 13>
-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5. 10. 1>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개정 2015. 10. 1>

-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다음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15. 10. 1>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구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7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3 조례 제 1141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1. 4. 15.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정관

제정 2006.12.04. 정관 제1호

개정 2010.04.15. 정관 제5호

개정 2013.10.10. 정관 제9호

개정 2008.07.22. 정관 제2호

개정 2011.04.21. 정관 제6호

개정 2014.12.26. 정관 제10호

개정 2009.02.16. 정관 제3호

개정 2013.01.03. 정관 제7호

개정 2009.12.14. 정관 제4호

개정 2013.03.26. 정관 제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 10. 29>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 보급 <개정 2009. 10. 29>
3.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09. 12. 14>
4.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개정 2009. 12. 14>
5.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개정 2009. 12. 14>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신설 2009. 12. 14>
7.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신설 2011. 04. 21>
8.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및 진흥사업 <신설 2011. 04. 21>
9.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 <신설 2013. 03. 26>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9. 12. 14, 2011. 04. 21>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04. 21>
3. 감사 2인 <개정 2014. 12. 26>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04. 21>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04. 21>

제8조(대표이사)

<개정 2011. 04. 21>

- ①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04. 21>
 ②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심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04. 21>
 ③ <신설 2009. 12. 14, 개정 2011. 04. 21, 2013. 01. 03, 2013. 03. 26, 2013. 10. 10><삭제 2014. 12. 26>
 ④ <신설 2009. 12. 14, 개정 2011. 04. 21><삭제 2014. 12. 26>
 ⑤ <신설 2009. 12. 14, 삭제 2011. 04. 21>
 ⑥ 대표이사는 재단 및 위탁기관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4. 12. 26>

제9조(이사)

- ① <삭제 2014. 12. 26>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선임직 이사는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14, 2014. 12. 26>
 1. 구청장
 2. 자치행정국장
 3. 문화환경국장 <개정 2011. 04. 21>
 4. 대표이사 <개정 2011. 04. 21>
 5. <개정 2009. 12. 14, 삭제 2011. 04. 2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의 2(이사추천위원회)

<신설 2014. 12. 26>

- ①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하고 구청장과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2명과 재단이 추천하는 자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화예술전문가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4.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재단의 임·직원 및 구청의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감사는 구의 관리감독 부서의 장이 되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 04. 15, 2014. 12. 26>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04. 21>

| 제3장 이사회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21>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설치 및 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조례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자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재단사업 수입 및 그 외에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 ④ 재단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21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경비의 충당)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기탁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 ①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16>
-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22, 2009. 02. 16, 2014. 12.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 04. 21, 2014. 12. 26>

1. 출연금 관련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의 목적 사업에 사용 한다. <신설 2014. 12. 26>
2. 민간위탁금 관련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부서로 반납한다. <신설 2014. 12. 26>

제27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21, 2014. 12. 26>

제2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사무부서 등 |**제30조(사무부서)**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부서를 둔다.

제31조(사무부서의 조직)

사무부서의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자문기구)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의 지급 등)

제33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제38조(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제 및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70호, 2015.10.1>**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 발기인이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 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부칙 <신설 2014. 12. 26>

제6조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4.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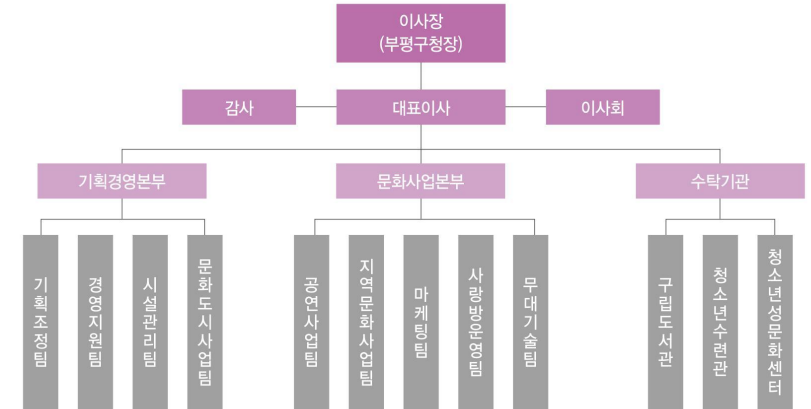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
현금 (예치금)	1계좌	10,000,000원
합계	1계좌	10,000,000원

재산명	수량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금 (예치금)				1계좌	10,000,000원	
합계				1계좌	10,000,000원	

3. 기구 및 조직현황 2016년 2분기 기준

| 기구(수탁기관 포함) |



| 정원 |

※ 정원 87명, 현원 86명 (2016. 2분기 기준 / 사무보조 제외)

구분	정원	현원
총계	87	86
이사장	1	1
대표이사	1	1
직원	계	85
	소계	23
	나급 또는 다급	4
	촉탁직 5급	1
	촉탁직 7급	2
	예술단 7급	1
	수련관 5급	2
	수련관 6급	3
	수련관 7급	5
	성문화 1급	1
	성문화 2급	1
	성문화 3급	3
	소계	62
	3급	3
	4급	8
	5급	18
	6급	16
	7급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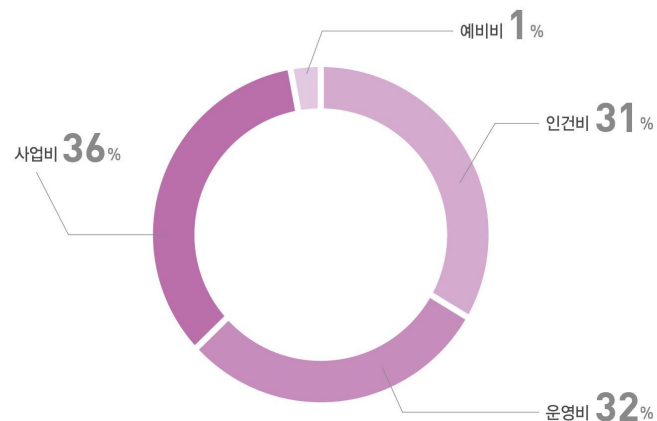
4. 예산

| 2015 부평구문화재단 예산 |

단위 : 원

구분	예산	세부구분	세부예산
부평구문화재단 총괄	5,241,035,787	인건비	1,619,822,000
		운영비	1,681,718,000
		사업비	1,901,495,787
		예비비	38,000,000
재단본부	1,298,404,000	인건비	471,856,000
		운영비	426,224,000
		사업비	400,324,000
부평구립도서관	2,582,962,000	인건비	1,460,042,000
		운영비	905,410,000
		사업비	217,510,000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298,404,000	인건비	471,856,000
		운영비	426,224,000
		사업비	400,324,000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284,930,000	인건비	186,268,000
		운영비	42,572,000
		사업비	56,090,000

| 2015 부평구문화재단 세출예산 구성비 |



| 부평아트센터 최근 5년간 세입현황 |

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2012	2013	2014	2015(재단통합)	2016. 9. 현재
합계	4,017,125	850,967	906,246	761,873	1,000,792	497,247
시설임대료	169,012	46,231	35,468	23,457	56,508	7,348
입장료수입	1,734,991	498,829	439,468	325,564	352,288	118,842
대관료수입	561,142	140,764	157,553	53,148	115,349	94,328
수강료수입	155,108	34,075	32,688	35,296	32,352	20,697
그외수입	552,353	46,726	151,369	166,908	151,070	36,280
외부지원금	844,519	84,342	89,700	157,500	293,225	219,752

| 문화사업본부 최근 5년간 문화사업비 세출현황 |

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2012	2013	2014	2015(재단통합)	2016. 9. 현재
합계	5,216,390	1,015,632	850,260	1,006,199	1,238,823	1,105,476
공연	3,493,052	796,882	672,884	669,069	710,807	643,410
전시	307,390	57,589	37,868	40,982	66,232	104,719
예술교육	216,622	47,376	38,763	47,151	39,545	43,787
홍보	249,243	30,191	13,335	92,182	64,301	49,234
지역문화	137,267	-	-	-	72,758	64,509
외부지원사업	812,816	83,594	87,410	156,815	285,180	199,817

5. 발기인 명단

연번	성명	주요경력
1	박윤배	부평구청장
2	박정남	부평구 부구청장
3	이창남	자치행정국장
4	서세양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5	이익성	부평구의회 의원
6	손철운	부평구의회 의원

6. 역대이사회

| 제1기 이사회(2006.11.10 ~ 2008.12.03)

연번	성명	직위	일자		주요경력	비고
			위촉일	해촉일		
1	박윤배	이사장	06.11.10		부평구청장	당연직
2	이창남	이사	06.11.10	07.07.02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3	서세양	이사	06.11.10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4	이익성	이사	06.11.10		부평구의회 의원	당연직
5	손철운	이사	06.11.10		부평구의회 의원	당연직
6	빈종구	이사	06.11.10		부평구 축제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7	하명주	이사	07.07.02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8	이범호	상임이사	06.12.14		전)부평구 축제위원회 기획단장	임명직
9	김정일	이사	06.11.10	08.12.03	구울담갤러리 이사장 구울담치과 대표원장	선임직 이사
10	서선희	이사	06.11.10		인천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한국스포츠포츠아카데미 회장	선임직 이사
11	윤승준	이사	06.11.10		인하대 사학과 교수(문학박사) 구청발전자문위원	선임직 이사
12	원영무	이사	06.11.10		전)인하대학교총장, 구청발전자문위원	선임직 이사
13	장덕훈	이사	06.11.10		부평문고 이사장	선임직 이사
14	장동우	이사	06.11.10		지엠대우 오토엔테크놀러지 부사장 부평의제 21 공동의장	선임직 이사
15	전운영	이사	06.11.10		부평구 문화예술인 협회 총회장 세계평화미술대전 심사위원	선임직 이사
16	정규형	이사	06.11.10		한길의료재단 이사장 눈박물관 이사장	선임직 이사
17	김영주	감사	06.11.10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	감사

| 제2기 이사회(2008.12.04 ~ 2010.12.03)

연번	성명	직위	일자		주요경력	비고
			위촉일	해촉일		
1	박윤배	이사장	08.12.04	10.06.30	부평구청장	당연직
2	홍미영	이사장	10.07.01		부평구청장	당연직
3	서세양	이사	08.12.04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4	하명주	이사	07.07.02	09.01.15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5	이익성	이사	08.12.04	09.05.27	부평구의회 의원	당연직
6	손철운	이사	08.12.04	10.06.30	부평구의회 의원	당연직
7	빈종구	이사	08.12.04		부평구 축제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8	김평달	상임이사	09.01.16	09.09.22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9	황정수	이사	09.06.25	10.06.30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당연직
10	민병규	이사	09.09.30	10.08.24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11	장세강	이사	10.08.25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임명직(1·2기)
12	이범호	상임이사	08.12.04		전)부평구 축제위원회 기획단장	선임직 이사
13	조경환	상임이사	09.12.14		전)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선임직 이사
14	김용구	이사	08.12.04		(사)인천국제친선문화 교류협회이사장	선임직 이사
15	서선희	이사	08.12.04		인천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한국스포츠포츠아카데미 회장	
16	윤승준	이사	08.12.04		인하대 사학과 교수(문학박사) 구청발전자문위원	선임직 이사
17	원영무	이사	08.12.04		전)인하대학교총장, 구청발전자문위원	
18	장덕훈	이사	08.12.04		부평문고 이사장	선임직 이사
19	장동우	이사	08.12.04		지엠대우 오토엔테크놀러지 부사장 부평의제21 공동의장	
20	전운영	이사	08.12.04		부평구 문화예술인 협회 총회장 세계평화미술대전 심사위원	감사
21	정규형	이사	08.12.04		한길의료재단 이사장 눈박물관 이사장	감사
22	김영주	감사	08.12.04	09.01.15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	감사
23	박평기	감사	09.01.16	09.09.22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	감사
24	유재경	감사	09.09.23	10.04.14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	감사
25	송태욱	감사	10.04.15	10.08.24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26	정연구	감사	10.08.25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 제3기 이사회(2010.12.04 ~ 2012.12.03)

연번	성명	직위	일자		주요경력	비고
			위촉일	해촉일		
1	홍미영	이사장	10.07.01		부평구청장	당연직
2	장세강	이사	10.08.25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3	서세양	이사	08.12.04	11.02.23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4	하명주	이사	11.02.24	12.01.12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5	이호남	이사	12.01.12	12.04.19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6	김해성	이사	12.04.20 12.10.17	14.04.20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7	이범호	상임이사	06.12.14	11.09.27	전)부평구 축제위원회 기획단장	임명직
8	조경환	상임이사	09.12.14	11.09.27	전)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임명직
9	이명숙	대표이사	09.12.14		전)인천광역시의원 전)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직
10	엄종희	이사	10.12.04		전)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직
11	한창희	이사	10.12.04		인천영선초등학교장	선임직
12	오현주	이사	10.12.04		부평농협여성합창단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	선임직
13	서선희	이사	08.12.04		인천시생활체육연합회 회장 한국스포츠타카데미 회장	선임직
14	김태선	이사	10.12.04	12.04.19	전)국회의장 정부비서관 전)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선임직
15	최화자	이사	10.12.04		전)부평구의원	선임직
16	이종구	이사	10.12.04		중앙대학교 교수	선임직
17	김창수	이사	10.12.04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선임직
18	한성호	이사	12.04.20		부평구청 평생학습과장	선임직
19	정연구	감사	10.08.25	11.02.23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20	윤일영	감사	11.02.24	12.04.19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21	김계환	감사	12.04.20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 제4기 이사회(2012.12.04 ~ 2014.12.03)

연번	성명	직위	일자		주요경력	비고
			위촉일	해촉일		
1	홍미영	이사장	10.07.01		부평구청장	당연직
2	이명숙	대표이사	10.07.01	13.03.31	전)인천광역시의원 전)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직
3	박옥진	대표이사	13.07.18		전)한국예술경영연구소 연구실장 전(재)국립극단 총괄PD	당연직
4	장세강	이사	10.08.25	14.08.10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5	김해성	이사	12.10.17	14.06.30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6	윤일영	이사	14.07.01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7	이영훈	이사	14.08.11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임명직
8	엄종희	이사	10.12.04		전)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직
9	한창희	이사	10.12.04		인천영선초등학교장	선임직
10	오현주	이사	10.12.04		부평농협여성합창단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	선임직
11	서선희	이사	10.12.04		인천시생활체육연합회 회장 한국스포츠타카데미 회장	선임직
12	한성호	이사	12.04.20		부평구청 평생학습과장	선임직
13	최화자	이사	12.04.20	13.09.23	전)부평구의원	선임직
14	이종구	이사	12.04.20	13.02.28	중앙대학교 교수	선임직
15	김창수	이사	12.04.20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직
16	김성복	이사	13.09.24		샘터감리교회 목사	선임직
17	원미정	이사	13.09.24		前인천광역시의원	선임직
18	김계환	감사	12.04.20	13.02.28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19	윤동환	감사	13.03.01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제5기 이사회(2014.12.04 ~ 2016.12.03)

연번	성명	직위	일자		주요경력	비고
			위촉일	해촉일		
1	홍미영	이사장	10.07.01		부평구청장	당연직
2	박옥진	대표이사	13.07.18		전)한국예술경영연구소 연구실장 전)재)국립극단 총괄PD	당연직
3	이영훈	이사	14.08.11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당연직
4	윤일영	이사	14.07.01		부평구 문화환경국장	당연직
5	한창희	이사	10.12.04		전)인천영선초등학교장	선임직
6	김성복	이사	13.09.24		샘터감리교회 목사	선임직
7	김창수	이사	08.12.04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직
8	원미정	이사	13.09.24		前인천광역시의원	선임직
9	황순우	이사	14.12.04		(주)건축사사무소바인 대표이사	선임직
10	오현주	이사	10.12.04		부평농협여성합창단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	선임직
11	허난영	이사	14.12.04		세종문화회관 팀장	선임직
12	윤동환	감사	13.03.01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13	이기춘	감사	15.01.01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14	김영익	감사	15.01.01		부평구청 문화체육과장	감사

7.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직함	비고
꽃누리			
1	최도현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회장
2	노태손	썬크빅문고 대표	수석 부회장
3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	부회장
4	서태호	(주)난다 고문	부회장
5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6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7	정규형 (박덕영)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운영위원
8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9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10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11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	고인
별누리			
12	홍종국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13	박흥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14	함국종	부원산업(주) 대표	
15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16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17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18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19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	운영위원 (고문)
20	기중현	(주)연우 대표이사	
21	심수일	삼정가스공업(주)	
구름			
22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운영위원
23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이사	운영위원
24	조각형	(주)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5	김효배	북구환경(주) 대표이사	

연번	성명	직함	비고
26	전봉운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27	한재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28	안용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29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30	정혜자	(주)삼원환경	
31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뫼			
32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33	허난영	세종문화회관 팀장	
34	이혜민		
35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36	강경애	리디안우쿨렐레양상블 단장	
37	박경윤	박경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가람			
38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운영위원 (고문)
39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운영위원 (감사)
40	최창석	은성산업(주) 대표	운영위원
41	권복환	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42	안중영	정수미크론 대표	
43	신종백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44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45	조정애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	
46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47	오충석	한국통운(주) 대표이사	
48	한유순	광원아트홀 관장	
49	정지연	광원건설(주) 회장	
50	이계찬	지인조경(주)	
51	김유완	관세법인 샤인 관세사	
52	황명희	가현텍스 세무사	

8. 재단 사업연혁

| 공연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0	총계		97	25,538
	4.3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	674
	4.9~4.10	에쿠우스	3	999
	4.17	장사의 소리판	1	868
	4.21	인천, 연희와 만나다	1	418
	5.5~23	박물관은 살아있다	36	653
	5.14~15	금발이 너무해	4	2,026
	6.26	이처럼공연	1	142
	8.14	한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1	704
	8.26~29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5	2,103
	8.28	전제덕 하모니카	1	246
	9.4	이춘풍 난봉기	2	1,747
	9.25	박주원 집시의시간	1	224
	10.8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1	705
	10.13	누포크 페스티벌1	1	98
	10.16~17	뮤지컬 랑	3	517
	10.23	로비음악회 <퍼니밴드>	1	450
	10.29~30	그대를 사랑합니다	2	1,160
	11.04	이중섭그림속이야기	2	733
	11.10	누포크 페스티벌2	1	83
	11.13	송영훈 리사이틀	1	252
	11.13	로비음악회 <인천예고>	1	500
	11.13~14	이상한 엘리스	2	144
	11.20	자력갱생 프로젝트	1	885
	11.26~27	재주많은 다섯친구	4	1,113
	11.27	로비음악회 <미추홀오페라단>	1	450
	12.2~5	주식회사 퍼펙트	7	919
	12.3~4	오 당신이 잠든사이	3	1,871
	12.11	로비음악회 <미추홀오페라단>	1	450
	12.18	호박데이트 <한젬마>	1	250
	12.22	누포크 페스티벌3	1	220
	12.24~25	호두까기인형	2	1,688
	12.25	로비음악회 <김지리>	1	550
	12.28	피론의 돼지	1	512
	12.29	호박데이트 <송옥숙>	1	300
	12.30	송년음악회	1	884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1	총계		479	43,466
	1.29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	1	601
	2.11~12	녀와함께라면	3	1,025
	2.25~27	시리둥둥 거미둥둥	4	506
	3.12	김소현의 스위트세레나데	1	390
	3.19	새봄음악회 스프링클래식	1	899
	4.2	이병우 기타콘서트	1	691
	4.8~9	보이첵 (공동기획)	3	344
	4.22~5.15	어머니 (공동기획)	38	4,294
	4.23	로비음악회1 <3BASS>	1	550
	5.13	늘근도둑이야기	4	1,069
	5.14	로비음악회2 <신포니에타>	1	450
	5.20~21	개와그녀와이웃일본인	2	320
	5.21	장사의 소리꾼	1	878
	6.11	로비음악회3 <한울소리>	1	500
	6.17	백건우, 리스트	1	744
	6.25	로비음악회4 <젼스틱>	1	500
	7.1~2	춤으로 소통하다 (공동기획)	2	168
	7.15~8.23	모래야 놀자	366	10,387
	8.13	파파하이드의 이야기	1	653
	9.1~4	당신만이	5	712
	9.3	김영임의 효콘서트	2	1,339
	9.21	슬로바키아 민속공연	1	300
	9.24	연희페스티벌	1	228
	9.24	호박데이트 <문훈숙>	1	250
	10.8	해설이있는돈키호테	1	817
	10.20~30	오리날다	9	1,876
	10.22	로비음악회5 <신나는 섬>	1	500
	10.29~30	정재형이만드는음악회	2	884
	11.4	전통연희 프로젝트	1	34
	11.12	로비음악회6 <달콤한 소금>	1	550
	11.25~26	비밥	5	2,535
	11.26	로비음악회7 <G브라스>	1	500
	12.9~10	호두까기인형	4	2,440
	12.10	로비음악회8 <아마데오>	1	450
	12.17	카즈미타테이스트리오	1	180
	12.20	극장, 책을 읽다1 <신경숙>	1	300
	12.21	극장, 공연을 읽다1 <퍼니밴드>	1	380
	12.22	극장, 공연을 읽다2 <과르티엣 엑스>	1	290
	12.22	극장, 책을 읽다2 <도종환>	1	300
	12.23	뮤지컬 <빨래>	3	2,230
	12.24	로비음악회9 <부평구세군>	1	550
	12.30	양방언의송년음악회	1	852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2	총계		593	38,341
	2.1~2.4	게임의 왕자	9	481
	2.11	아르초 콘서트	1	311
	3.3	새봄음악회 스프링클래식	1	581
	3.14	박주원 화이트데이	1	427
	4.6~7	이자람의 사천가	2	716
	4.20	힐링콘서트 (집시의테이블)	1	422
	4.27~28	백조의 호수	3	1,555
	5.4~5.6	구름빵	9	3,878
	5.20~21	당신만이	6	901
	6.8~9	십이야	2	598
	6.29~30	김종욱찾기	4	2,096
	6.30~8.26	오물조물 흙놀이	500	11,715
	8.15	우광혁교수의 세계악기여행	1	375
	8.13	3bass, 카로스타악기양상블	1	259
	9.12~13	구보 PATHOLOGY	1	474
	9.15	MIK양상블 리사이틀	1	389
	10.13	이원국발레갈라콘서트	1	528
	10.13	로비음악회 <한국페스티벌양상블>	1	250
	10.20	로비음악회 <리여석기타오케스트라>	1	250
	10.22	호박데이트 <이어령>	1	675
	10.25~28	소문	5	445
	10.26	이사오사사키 휴 콘서트	1	620
	10.30~11.4	라이어 (공동기획)	8	2,942
	11.10	로비음악회 <바이올린 최정현>	1	250
	11.16~17	앤서니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3	993
	11.16~17	관대한 현대무용	2	130
	11.24	로비음악회 <오페라M>	1	250
	12.7~8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4	1,758
	12.8	로비음악회 <인천시민 가족음악회>	1	250
	12.21~25	키사라기 미카짱	6	1,361
	12.22	로비음악회 <나무멤버>	1	250
	12.27	리처드용재오닐&임동혁	1	769
	12.30	성남공작아가씨	12	1,442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3	총계		697	42,719
	1.19	2013신년음악회 (송창식&윤형주)	1	713
	1.25~26	어린이난타	4	1,867
	2.2	연극 늑은부부 이야기	2	447
	2.22~23	창작오페라THE50 (공동기획)	2	508
	3.14	아기자기콘서트	1	211
	4.5	스프링클래식 삼삼한하모니	1	865
	4.11~14	로보카 폴리 (공동기획)	8	4,966
	4.19~20	옥탑방고양이	3	626
	4.25	브런치오페라 <마술피리>	2	553
	5.4~10	극단 심년후상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13	2,775
	5.11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	349
	5.23	브런치오페라 <리골렛토>	1	298
	6.5~6	구보댄스컴퍼니춤으로 소통하다	2	430
	6.15~8.25	체험 <가루야 가루야>	600	13,382
	6.21	데이빗란츠 내한공연	1	472
	6.26~30	당신만이	6	929
	7.5~14	극단 심년후 <소문>	13	1,760
	8.15	청소년음악회	1	829
	9.6~7	손숙의 어머니	3	1,247
	9.26	브런치오페라 <카르멘>	1	248
	9.27	안드레아스솔 리사이틀	1	375
	10.3~6	극단 심년후 <성남공작아가씨>	6	1,227
	10.4~5	구보댄스컴퍼니 <보이책>	2	159
	10.16~19	복소 <리틀드래곤>	8	983
	10.24	브런치오페라 <사랑의묘약>	1	304
	11.8	윤한 힐링콘서트	1	844
	11.15~16	휴먼코메디	4	1,131
	11.16	로비음악회 (전통타악연구소)	1	500
	11.22~23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3	2,048
	11.30	로비음악회 (부평챔버오케스트라)	1	450
	12.14	로비음악회 (아카시아)	1	450
	12.14	호박데이트 <극장 책을 읽다>	1	273
	12.28	로비음악회 (i 심포니에타)	1	500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4	총계		656	33,184
	1.22	작은음악회	1	200
	1.23	신년음악회	1	767
	1.24~26	강아지똥	5	1,811
	3.27	엄마를 부탁해	1	311
	4.9~12	후보 나순량	4	255
	4.24	브런치오페라-나비부인	1	548
	5.2	체코필하모닉소년소녀합창단	1	571
	5.3~13	할락궁이의 모험	15	2,705
	5.5~11	배고픈 애벌레	12	2,013
	5.16~17	춤으로 보는 명화	2	397
	6.20~21	벽속의 요정	2	490
	6.27	양상블 디토 시즌8 리사이틀	1	316
	6.21~8.31	모래랑 빛이랑	558	10,361
	8.15~16	청소년음악회	2	642
	8.27	파소양상블 로비음악회	1	475
	9.12~14	소문	4	553
	9.16~17	인문학콘서트	2	450
	9.24	브라스마켓 로비음악회	1	175
	9.25	피가로의 결혼	1	308
	10.2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	1	205
	10.4	호박데이트 극장, 책을 읽다 이원복	1	157
	10.9~11	위자드머털	4	1,192
	10.18	춤이 말하다	1	217
	10.23	라트라비아타	1	318
	11.1~9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8	1,980
	11.7~8	피론의 돼지	2	165
	11.15	신진작가전	1	185
	11.15	암모암모 로비음악회	1	470
	11.21~22	유도소년	3	783
	11.29	곽윤권, 이윤선 로비음악회	1	210
	12.6	호박데이트 극장, 책을 읽다 임동창	1	321
	12.13	방타타악기양상블 로비음악회	1	400
	12.18~25	성남공장아가씨	12	2,414
	12.26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콘서트-트랜스픽션, 로맨틱편지, 내귀에도청장치>	1	293
	12.27	최윤미 콰르텟	1	210
	12.27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콘서트-해바라기, 동물원>	1	316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5	총계		701	33,549
	1.22	신년음악회	1	556
	2.6~7	홍도	2	611
	3.25	작은음악회	1	170
	4.2	따뜻한 동행	1	726
	4.9~12	극단십년후 배우 우배	4	578
	4.23	브런치콘서트	1	353
	5.2	라바가 들려주는 키즈클래식	1	368
	5.3~15	할락궁이의 모험	12	2,409
	5.9~1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	913
	5.22~23	구보댄스 무용과 사유	2	332
	5.28	브런치 콘서트	1	495
	6.25	브런치 콘서트	1	333
	6.27~8.30	열광동맹 색깔공장	616	8,839
	7.15	아름다운 낭독공연1	1	345
	8.15	청소년음악회	1	777
	8.26~30	극단십년후 소문	7	747
	9.11	유키구라모토 콘서트	1	827
	9.23	아름다운 낭독공연2	1	230
	9.24	브런치 콘서트	1	506
	10.7~8	클라운마임	6	508
	10.24	호박데이트 <이상봉>	1	110
	10.28	음악속의 움직임	1	280
	10.29	브런치 콘서트	1	485
	11.4	해설이 있는 음악회	1	200
	11.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1	200
	11.13~14	여산님이 보고계셔	2	1,049
	11.18	세상의 음악을 담은 우리 음악	1	150
	11.19~22	극단십년후 포드림	5	857
	11.21~22	배우의 말	2	78
	11.25	해설이 있는 음악으로의 초대	1	180
	11.25	스크린 속 공연이야기	3	662
	11.26	브런치 콘서트	1	711
	11.28	신진작가전	1	185
	11.28	로비음악회1	1	150
	12.2	우리가락의 신명나는 퍼포먼스	1	230
	12.5	송년음악회 the best <윤복희, 최백호>	1	594
	12.9	밴드 공연 및 뮤지컬 갈라	1	210
	12.12	호박데이트 <임진모>	1	153
	12.12	로비음악회2	1	150
	12.16	따뜻한 재즈 선율과 함께하는 음악회	1	150
	12.17~27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10	6,142

구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6	총계		28	9,893
	1.28	신년음악회	1	778
	3.12	대니정과 친구들	1	457
	3.17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1	240
	4.8~4.9	천변살롱	3	678
	4.28	브런치 콘서트	1	331
	5.1	구름빵	2	724
	5.3~5.13	할라공이의 모험	10	2,294
	5.7	딱따구리 음악회	1	427
	5.26	브런치 콘서트	1	602
	6.16	라이징스타-신인음악회	1	549
	6.30	브런치 콘서트	1	775
	8.11	청소년 음악회	1	453
	8.19	어느 멋진 날	1	174
	9.24	백건우의 선물	1	724
	9.29	브런치 콘서트	1	237
	10.8	korean Breath	1	450

| 축제

연도	일자	축제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0	총계		23	110,382
	6.19	꿈꾸는 거리 예술가1	1	500
	6.26	꿈꾸는 거리 예술가2	1	460
	7.3	꿈꾸는 거리 예술가3	1	650
	7.10	꿈꾸는 거리 예술가4	1	700
	7.17	꿈꾸는 거리 예술가5	1	800
2011	5.28	거리야 놀자	1	40,040
2012	5.5	피크닉 콘서트1	1	20,500
	7.21	피크닉콘서트2 <류정필>	1	3,000
	8.11	피크닉콘서트3 <스윗스로우>	1	3,961
	9.15	피크닉콘서트4 <이바디>	1	2,000
2013	5.4	소소한 봄소풍	1	15,000
	9.28	소소한 가을소풍	1	800
2014	8.29	피크닉콘서트1 <달콤한 클래식>	1	1,500
	8.30	피크닉콘서트2 <화끈한 밴드>	1	3,500
2015	5.5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1	3,000
	9.4.~9.6	2015 부평예술축제	1	3,050
	10.16	제1회 부평밴드페스티벌 오리지널	1	1,000
	10.17	제1회 부평밴드페스티벌 탑밴드	1	1,500
	11.25	번외공연) 밴드페스티벌	1	300
2016	5.5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1	3,000
	6.11	2016 부평예술축제	1	1,121
	10.14	제2회 부평밴드페스티벌	1	1,500
	10.15	제2회 부평밴드페스티벌	1	2,500

전시

연도	일자	전시명	참여작가	관람객수
2010	총계		429	78,995
	4.2~28	나의살던 동네전	10	3,475
	7.29~8.25	생명을 담는 그릇전	10	1320
	10.2~19	몸.몸.몸 전	10	1449
	12.4~26	하이 히어로전	12	2530
2011	1.26~3.17	생활의 발견전	37	1,663
	4.2~5.2	그곳에 내가 있었다	21	1,676
	5.27~7.7	유쾌한 한국화, 즐거운조각	9	3,605
	9.29~10.5	그옛날 그시절	15	2,700
	12.23~1.10	젊은미술이어달리기	6	720
2012	1.13~1.27	강화이야기	14	648
	2.3~3.21	커피가 좋아 (연계강좌진행)	8	2,139
	5.27~7.7	소원을 말해봐	3	3,817
	9.1~9.27	이상한 동물원	15	3,354
2013	1.4~1.31	지역, 미술을 밝히다	12	1,094
	2.14~2.20	강화 이야기 두 번째	12	670
	4.5~5.12	조각에 귀를 기울이면	14	2,568
	5.31~6.10	쓰레기와 함께 친구하기	1	435
	9.6~9.29	아! 백령도	10	893
	10.25~11.17	아시아의 창	14	1,213
	12.20~1.26	나의 살던 동네-두 번째 이야기	7	1,314
2014	3.21~4.13	부평작가열전	15	1,059
	5.2~5.25	행복한 우리가족 展	12	3,427
	10.15~10.26	지역, 미술을 밝히다 (국제교류전시)	21	1,050
	11.14~12.7	잃어버린 풍경을 찾아서	6	2,906
2015	12.13~12.27	'지역과 작가가 함께 만드는 나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31	1,186
	3.5~3.29	부평작가열전 <부평양상블>	9	1,974
	4.30~5.31	Wonderland, Neverland	7	3,962
	5.7~5.10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수상작전시	23	998
	10.2~10.18	생활의 발견 展	7	2,301
	10.22~11.8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작가전 <Perennial Inspiration>	5	2,199
	11.13.~11.29	2n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1,973
	12. 9~12. 27	블루지 60' s	4	1,882
	3.10~4.3	부평작가열전 <고향의 봄>	7	1,539
	4.28~5.29	얼굴을 부탁해	8	4,209
2016	5.7~5.29	BUKIF어린이그리기대회 수상작전시 <마음을 보여줘>	23	3,011
	6.18~8.28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	6,544
	9.22~10.9	사진의 회화성	5	1,492
	10.13~10.18	부평영아티스트 1기 POP PRIZE <김수진 Sugar Time>	1	예정
	10.21~11.6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	5	예정
	11.17~11.27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예정	예정
	12.8~12.18	Special B	예정	예정

문화예술교육

연도	일자	교육명	횟수	참가자수
2010	총계		138	16,768
	10.4~25	무대인재육성센터	1	150
	8.6~9.4	문화기획인워크숍	1	80
	6~7	봄 아카데미	12	1,500
	8	여름아카데미	6	480
	9~12	가을아카데미	12	3,780
	12~2	겨울아카데미	12	252
	4	백스테이지 투어1	1	52
	6.1	백스테이지 투어2	1	39
	9.16	백스테이지 투어3	1	39
	10.28	백스테이지 투어4	1	38
	11.4	백스테이지 투어5	1	39
	12.2	백스테이지 투어6	1	35
	8	어름특강	2	240
	9.11~12	공연연계프로그램운영	1	200
	10.29	문화특화프로그램 <그대사>	1	450
	12.3	문화특화프로그램 <오당신>	1	499
2011	2.15~5.31	제1기 아카데미	12	251
	6.1~10.15	제2기 아카데미	6	104
	10.16~12.1	제3기 아카데미	4	48
	8.1~4	극장체험공연 <게임의 왕자>	1	422
	9~11	스토리시어터 <할머니극장>	1	409
	4~10	백스테이지 투어	1	401
	8.17~11.16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1	32
2012	1.28~5.12	상반기 아카데미	6	107
	5.26~9.8	중반기 아카데미	4	57
	10.16~12.1	하반기 아카데미	6	121
	5.5	할머니 이야기극장	1	320
	7.24~7.29	한일어린이 캠프	1	30
	3.3, 3.17	커피가 좋아	1	60
	2012.1~12	백스테이지투어	1	359
	4.21~1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	551
	9.22~11.22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1	1,317
	12.15	너는 특별하단다	1	283

연도	일자	교육명	횟수	참가자수
2013	2.14~15 2.21~23	인재육성아카데미-지역 문화기획자 육성 프로그램	1	23
	8.6~8.9	인재육성아카데미-예비 기획자를 위한 기획실무과정 <씨앗>	1	25
	2.16~6.22	2013 상반기-어린이연극학교 (저학년/고학년)	2	40
	2.2~5.18	2013 상반기-통기타아카데미 (초/중급)	2	37
	1.22~5.2	2013 상반기-한국춤아카데미 (초/중급)	2	35
	5.25~8.31	2013 중반기-통기타아카데미 (초/중급)	2	28
	5.14~8.29	2013 중반기-한국춤아카데미 (초/중급)	2	44
	8.10~12.23	2013 하반기-어린이연극학교 (저학년/고학년)	2	40
	9.14~12.28	2013 하반기-통기타아카데미 (초/중급)	2	32
	9.3~12.19	2013 하반기-한국춤아카데미 (초/중급)	2	42
	3.2~3.30	꿈다락토요문화학교-나만의 그림자 극장	1	25
	4.6~5.4	꿈다락토요문화학교-예술체험프로젝트	1	29
	5.11~6.15	꿈다락토요문화학교-춤으로 그리는 우리들 세상	1	22
	6.29~8.3	꿈다락토요문화학교-DIY 악기 만들기	1	33
	9.14~11.30	꿈다락토요문화학교-뮤지컬 액팅 스쿨	1	22
	6.22	2013 상반기 어린이연극학교 발표공연-어린이왕	1	305
	12.23	2013 하반기 어린이연극학교 발표공연-가문의 영광	1	295
	11.2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뮤지컬액팅스쿨발표공연-별들의 이야기	1	264
	5.4	관장과 함께하는 신나는 무대탐험	1	54
2014	2.10~3.17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ONE PLUS ONE>	1	45
	9.1~10.8	차세대 문화예술인력 양성 아카데미 <피어나라, 당신이 문화예술 전문가>	1	15
	3.8~7.19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40
	1.21~5.8	상반기 한국춤 아카데미 (초/중급)	1	45
	2.25~5.10	상반기 통기타 아카데미 (초/중급)	1	45
	3.29~7.5	상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잉갤러리>	1	21
	5.20~8.28	중반기 한국춤 아카데미 (초/중급)	1	32
	5.24~8.30	중반기 통기타 아카데미 (초/중급)	1	30
	7.12	상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잉갤러리> 발표 공연	1	100
	7.19	상반기 어린이연극학교 발표 공연 <동그라미 재판>	1	310
	8.9~12.13	하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38
	8.23~11.29	하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잉갤러리>	1	20
	9.2~12.18	하반기 한국춤 아카데미 (초/중급)	1	31
	9.13~12.20	하반기 통기타 아카데미 (초/중급)	1	32
	11.29	하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잉갤러리> 발표 공연	1	160
	12.13	하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 공연 <열 우물>	1	310

연도	일자	교육명	횟수	참가자수
2015	3.2~3.30	예술가·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역에서 예술하기>	1	52
	9.7~11.23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예담>	1	29
	1.20~5.7	상반기 <한국춤 아카데미> (초/중급)	1	33
	1.24~5.9	상반기 <통기타 아카데미> (초/중급)	1	33
	2.28~7.11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40
	3.14~6.6	상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1	51
	5.5	상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발표공연	1	-
	5.16~9.5	중반기 <통기타 아카데미> (초/중급)	2	22
	5.19~8.27	중반기 <한국춤 아카데미> (초/중급)	2	27
	7.11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공연 <이야기 나와라 뚝딱>	1	300
	8.1~12.19	하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40
	8.22~11.28	하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1	57
	9.8~12.17	하반기 <한국춤 아카데미>(초/중급)	2	28
	9.12~12.19	하반기 <통기타 아카데미>(초/중급)	2	19
	9.17~10.12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프로그램 <손바닥 영화 레디액션>	1	40
	11.25	하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발표공연	1	-
	12.19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공연 <행복을 찍는 사진관>	1	300
2016	2.29~3.28	예술가·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역에서 예술하기>	2	46
	3.9~3.10	연극인재교육프로그램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한 배우의 몸 & 공간 인식확장>	2	20
	9.7~12.21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예담>	1	24
	2.27~7.9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40
	3.12~5.7	상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1	50
	4.2~5.28	상반기 <일상을 찍다_사진과 이미지>	1	13
	5.5	상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발표공연	1	-
	7.9	상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공연 <버킷리스트>	1	300
	8.25~11.24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프로그램 <영상으로 꿈지락>	1	23
	8.12~8.13	백스테이지투어	1	55
	9.6~11.01	하반기 <일상을 찍다_사진과 이미지>	1	17
	8.13~12.10	하반기 어린이 연극학교	1	40
	9.3~11.12	하반기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1	56

| 학술행사

연도	일자	행사명	주제
2010	5.31	호박 문화예술 1차 포럼	아트센터, 공간이 콘텐츠다
	8.27	호박 문화예술 2차 포럼	기타큐슈 아트센터의 무대안전관리 경영 전략
2011	11.10	부평문화정책 관련 연속 토론회 I	부평지역 내 문화기관 간 역할 재정립
	11.24	부평문화정책 관련 연속 토론회 II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관계 모색
2013	5.10	부평문화정책 토론회	부평역사박물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4	9.19	부평문화정책토론회	지역문화진흥법 시대 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2015	10.13	2015 부평문화포럼 1차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례
	10.27	2015 부평문화포럼 2차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11.10	2015 부평문화포럼 3차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왜 부평음악 · 융합도시인가
	11.24	2015 부평문화포럼 4차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
2016	6.14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1차	'부평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찾기
	6.21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2차	'부평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생활문화센터
	6.27	2016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	부평문화예술 현안 공유 및 정책 제안
	10.26	2016년 제3차 부평문화포럼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11.09	2016년 제4차 부평문화포럼	부평문화예술 현안 공유 및 정책 제안

|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

연도	일자	행사명
2012	4.1~ 12.31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발굴 · 육성
	8.08	동아리 대표자 1차 간담회
	10.19	동아리 대표자 2차 간담회
	12.14	동아리 운영위원회
	12.14	동아리 워크숍
2013	1.1~12.31	지역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
	2.22	1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4.15	2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6.03	3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6.03	상반기 동아리 워크숍
	8.05	4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0.07	5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2.04	동아리 공연 발표회
	12.09	동아리 전시 발표회
2014	12.09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1.1~12.31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2.17	1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4.7	2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6.9	3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6.23	상반기 동아리 워크숍
	8.25	4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0.13	5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1.03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11.20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12.8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연도	일자	행사명
2015	1.1~12.31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3.9	1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5.13	상반기 워크숍
	6.8	2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9.14	3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0.07	하반기 워크숍
	11.11	동아리 발표회
	12.11	4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2.15	동아리 문화나눔행사
2016	1.1~12.31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7.4~9.12	동아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3.4	1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5.27	상반기 동아리 워크숍
	6.17	2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9.9	3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10.29	하반기 동아리 워크숍
	11.23	동아리 발표회
	12.9	4차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 우리동네 문화마실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횟수	참여관객수
2015	총계			28	1,950
	4.1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110
	4. 24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145
	5. 8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80
	5. 22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90
	8. 14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100
	8. 28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120
	9. 11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95
	10. 23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40
	11. 13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120
	11. 27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70
	12. 4	우리동네금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50
	12. 11	우리동네금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65
2016	4. 27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148
	5. 11	우리동네문화마실	외골문화회관	1	60
	5. 25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74
	6. 25	우리동네문화마실	아트센터 늘솔원	1	90
	6. 29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72
	7. 13	우리동네문화마실	신성새마을금고	1	87
	8. 10	우리동네문화마실	외골문화회관	1	43
	8. 31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93
	9. 10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공원	1	150
	9. 28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48
	10. 12	우리동네문화마실	신성새마을금고	1	82
	10. 22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나비공원	1	50
	10. 26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46
	11. 04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1동주민센터	1	80
	11. 09	우리동네문화마실	외골문화회관	1	32
	11. 30	우리동네문화마실	부개문화사랑방	1	47

| 부평구립예술단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5	부평구립여성합창단		
	8.28	2015 인천음악제	굴포천역
	9.11	고 김대중 대통령 제6주기 추모제	해누리극장
	10.23	부평예술축제	부평1동 주민센터
	11.13	부평구지하철 열린무대공감 '동아리축제'	삼산미소지움 단지
	11.27	제17보병사단 입영문화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12.4	2015가을문화축제	인천종합예술회관
	12.11	찾아가는 음악회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
	4.27	제3, 6기 통장 복지리더과정 수료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5.11	제32회 인천 시민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	부평구청 어울림광장
	5.25	우리동네 금요마실	제17사단 정무관
	6.25	2015 제4회 전국유관순합창경연대회 〈대상〉	굴포천 역
	6.29	찾아가는 음악회	부평장애인복지관
	7.13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동네 금요마실	부평구청 대회의실
	8.10	찾아가는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31	2015 자원봉사자의 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9.10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의 날 페스티벌	성환문화회관
	9.28	찾아가는 음악회	한길 안과
	10.12	MBC신년특집 〈국민대합창 도전아리랑〉 녹화	부개문화사랑방
	10.22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구청역
	10.26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구청 대회의실
	11.4	우리동네문화마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9	우리동네문화마실	부평구청 로비
	11.30	우리동네문화마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5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1.20	유정복 인천시장님 부평구 방문 축하연주	부평구청 대회의실
	3.2	전자랜드 프로농구단 부평구민 초청의 날 축하공연	삼산월드체육관
	3.5	대보름 축제	삼산유수지
	3.31	연세대학교 마태수난곡 연주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홀
	4.24	우리동네 금요마실	부평1동 주민센터
	5.9	2015공감 부평구지하철 열린무대	부평구청 역
	6.20	Saint Angela Choir 교류공연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6.30	인천기독교남성합창단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특별출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7.1	민선 6기 취임 기념식	부평구청 대회의실
	8.15	제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04	부평예술축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9.18	대교어린이TV 코러스코리아 결선	서울 예술의전당
	10.24	제6회 정기연주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0.29	제2회 2015사랑의 빨간밥차 후원회 밥심 콘서트	부광교회
	11.2	CROSAPF Annual Summit 2015	서울 워커히호텔 비스타홀
	11.13	우리동네 금요마실	부평1동 주민센터
	12.2	유정복 시장과 함께 하는 소통 콘서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2.11	제23회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시상식	대교타워 아이레벨 홀
	12.17	제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서울 프레스센터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5		부평구립풍물단	
	3.5	대보름축제 축하공연	삼산유수지
	5.5	어린이날 축하공연	인천문학경기장
	5.7	개관 공연	부평어울림센터
	5.13	어버이날 기념 공연	동구노인문화센터
	5.15	삼산미소지움10주년행사	삼산미소지움아파트
	5.28	통리장 한마음대회	남동공단 근린공원
	5.30	제13회 부평지회 창립식 및 한마음대회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6.20	Saint Angela Choir 교류공연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7.11	크루즈중곡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	부평역5번출구
	8.1	홍천 옥수수 축제	강원도 홍천
	8.13	굴포천 되살리기 운동	진산초교 사거리
	8.15	광복70년 국인화합대축제	광화문 광장
	9.5	부평예술축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9.17	전통시장환경정비기념식	부평종합시장
	10.2	부평풍물축제	부평아트센터
	10.3	부평풍물축제	부평 문화의 거리
	10.4	부평풍물축제	부평 문화의 거리
	10.4	인천송도 마라톤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10	2015가을문화축제	굴포천 역
	10.15	문학산 정상 개방 고유제	문학산 정상
	12.11	우리동네 금요마실	부평1동 주민센터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6		부평구립여성합창단	
	1.13	2016 신년인사회	부평 삼산컨벤션센터
	2.18	찾아가는 음악회1	굴포천역
	3.29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3.31	찾아가는 음악회2	협성원
	4.21	제17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빠의 침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4.28	찾아가는 음악회3	부평한길안과
	5.3	찾아가는 음악회4	인천노인전문병원
	5.3	찾아가는 음악회5	더필립요양병원
	5.13	인천부평구 새마을회 회장 이 · 취임식	부평구청 대회의실
	5.21	2016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6.11	2016 부평예술축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6.25	제66주년 6.25전쟁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7.4	양성평등주간행사	부평구청 대회의실
	7.26	2016 노인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빌 웨딩홀
	8.17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인천 추모식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
	8.18	스페인발레니엄합창단 초청 내한공연 〈에스빠냐 아리랑〉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9.8	찾아가는 음악회(5)	더필립병원
	9.10	2016 인천음악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21	인천시민합창대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1	2016부평풍물대축제	부평대로 메인스테이지
	10.28~29	제20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우송예술회관
	11.3	제33회 인천시민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4	찾아가는 음악회(6)	부평 1동 주민센터
	12.8	2016 자원봉사자의 날	부평구청 대회의실
	12.15	찾아가는 음악회(7)	협성원
	12.20	찾아가는 음악회(8) 〈로비음악회〉	부평구청 로비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6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1.20	인천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	인천광역시 대회의실
	3.10	부평 기적의 도서관 개관 10주년기념행사	부평 기적의 도서관
	3.13	봄맞이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음악회	부평감리교회
	3.19	전국민 동심저격 뮤직쇼 엠넷 〈위키드〉 녹음	서울 톤 스튜디오
	3.22	전국민 동심저격 뮤직쇼 엠넷 〈위키드〉 녹화	CJ E&M 스튜디오
	6.6	제61주년 현충일 추모식	수봉공원 현충탑
	6.11	2016 부평예술축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7.28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텔 웨딩홀
	9.4	제39회 한국합창제 〈한국소년소녀합창의 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21	인천시민합창대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9	570돌 한글날 기념식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10.29	인천평화축제	부평공원
	11.19	제7회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꿈꾸는 아이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연도	일자	행사명	장소
2016		부평구립풍물단	
	2.3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준공식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2층
	2.22	2016 정월대보름 in 부평	삼산동 유수지 체육공원
	5.6	제7회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	부평공원
	5.10	2016 어버이날 기념행사	동구주민행복센터
	5.14	도림사 증축 기념 및 초파일 행사	대구 도림사
	5.21	2016 부평 솔아솔아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5.24	2016 현역병 입영문화제	제17보병사단 정무관
	6.5	2016 강릉단오제	아리마당
	6.9	KOREA MICE EXPO 2016	인천 송도컨벤시아
	6.11	2016 부평예술축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7.12	칭다오 문도로초등학교 한국교류행사	부평문화사랑방
	7.14	칭다오 제3중학교 한국교류행사	부평아트센터
	7.16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전행사 'Start your Fantasy'	부천역 마루광장
	7.26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텔 웨딩홀
	7.27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텔 웨딩홀
	7.28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텔 웨딩홀
	7.29	201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간평가회 및 간담회	부평관광호텔 웨딩홀
	8.16	청도시노산구제2실험소학교	부평아트센터
	8.28	제4회전국충청웃다리농악경연대회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
	9.27	경인TV 경인통<당신이 최고야>녹화방송	경인TV방송국
	10.1	2016부평풍물대축제	부평대로
	10.1	2016부평풍물대축제	문화의거리 (길놀이)
	10.1	2016부평풍물대축제	문화의거리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10.2	2016부평풍물대축제	문화의거리 (퍼레이드)
	10.2	2016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센트럴파크호텔 앞
	10.15	우리동네 문화마실	부평나비공원
	10.15	시민대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문학경기장
	10.18	제1회 부평구립풍물단 정기연주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0.23	부평구 차 없는 거리 시범 시행행사	부평시장로 일대
	11.10	제8회 원주 전국풍물경연대회	따투 공연장
	11.15	부곡초등학교 2학기 학교 설명회와 가을 음악회	부곡초등학교
	11.17	경로대학 문화공연	인천제일교회 선교교육관

| 부평구문화사랑방 공연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2	총계		53	4,509
	1.3	사랑방신년음악회	1	115
	1.9	연희극 "효녀심청"	2	354
	1.18	해산물미술사 "김영진"	1	128
	2.22	뉴 퍼포먼스 "쉐도우쇼"	1	112
	2.24	오카리나와 뉴에이지감성여행	1	155
	3.16	울림과 공명	1	187
	3.21	황금선율의 추억여행	1	50
	3.30	행복한 미술관	1	163
	4.10	신나는 국악여행	1	105
	4.20	백영규의 가고싶은 마을	1	181
	4.25	두들두들 쥬쥬콘서트	1	106
	4.27	여행유발콘서트 "여행의시작"	1	126
	5.2	소심한 가족 ZERO	1	74
	5.11	사랑방프린즈_애들아 놀자	1	67
	5.25	뽕빠래오락실&나홀로 집에	1	91
	5.30	할머니 집 가는길	1	71
	6.15	그림(The 林) 몽유록	1	61
	6.20	기차	1	32
	6.26	여고시절	1	41
	6.29	인천여성문화회관 여성합창단	1	72
	7.6	춤, 가락, 소리가 만났다	1	83
	7.18	유쾌한 클래식 zamstick	1	140
	7.20	컬처콘서트	1	55
	7.27	신나는 섬 some	1	76
	8.3	고재경의 마임콘서트	1	154
	8.8	미술사K의 매직쇼	1	86
	8.17	6인의 G.Brass밴드	1	102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2	8.23	숨은 얼굴 찾기	1	119
	9.25	다이나믹페스티벌 원청배	1	45
	10.10~12	마임,몸으로 통하다	3	61
	10.17/19	가족마당극 "들썩들썩"	2	124
	10.25~28	극단연명 "불청객"	4	92
	11.7	콘트라 베이스	1	52
	11.9	소리 ㅁ 수다	1	63
	11.14/15	하늘나라 요술부채	2	162
	11.23	노란궁전하품공주	1	135
	11.28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1	157
	11.30	jazz속의 피톤치드	1	75
	12.5	ENJOY OPRERA BUFFA	1	42
	12.7	겨울밤의 음악콘서트	1	55
	12.12/14	무지개 학교	2	120
	12.18	즉흥연기 "별별외로움"	1	68
	12.26	김주리 해금밴드	1	57
	12.28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1	95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3	총계		52	5,004
	1.4	꿈꾸는 거북이	1	167
	1.18	클래식 2013	1	129
	2.5	사물소리와 함께하는 계사년의 첫 올림	1	94
	2.13	메이트리	1	62
	2.19	신동일의 음악동화	1	149
	3.8	i신포니에타	1	134
	3.13	뷰티풀모차르트	1	59
	3.22	극단 무릎배개	1	134
	4.5	사랑의 묘약	1	136
	4.9	타악퍼포먼스 아작	1	161
	4.17	클래식 in탱고	1	46
	4.23	소금인형	2	118
	5.3	좁쌀 한 톨	2	193
	5.4	락 앤 민요	1	131
	5.10	엄마 나 셋째 생겼어	1	62
	5.14	앙헬아저씨와 인형친구들	2	198
	5.22	현악으로 만나는 3인의 거장	1	48
	5.29	빈처	1	45
	6.21	이야기 하루	1	109
	6.25	울트롬본 앙상블	1	50
	7.10	마리아치 라틴	2	206
	7.12	다이나믹 마살아츠	1	154
	7.26	어린이왕자를 찾아 떠나는 여행	1	123
	7.30	숙명기아금연주단	1	134
	8.9	온앤오프무용단	1	88
	8.23	위대한문화유산시리즈	1	128
	8.28	죽 쑤는 할망	2	132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3	9.11	나무가 있는 언덕	1	101
	9.17	석송이야기	1	121
	9.27	집시프로젝트	1	95
	10.11	가을밤, 현의노래	1	101
	10.16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1	121
	10.25	타고	1	87
	10.30	청소부토끼	1	107
	11.6~11.8	개 같이 뛰어라	3	46
	11.13	행복한 네모이야기	1	107
	11.20	벌레가 된 소년	1	44
	11.22	연희집단 더 광대	1	91
	11.27	손순례 여사를 소개합니다	1	30
	11.29	기타와 함께하는 플라멩코의 밤	1	136
	12.6	스토리 오브 바하	1	164
	12.11/12.13	흙이 들려주는 이야기	2	247
	12.18	아카펠라 콘서트	1	113
	12.27	위대한문화유산시리즈	1	103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4	총계		44	5,098
	2.11	클래식음악가족극 '우리엄마'	2	228
	3.21	오페리아의 그림자극장	1	170
	4.9	통마울로 간 판이와 송이	1	107
	4.29~30	감성총전 '봄바람'	2	304
	4.25	별별외로움	1	70
	5.14	샌드아트&환상의버블쇼	1	113
	5.16	사물놀이 진쇠	1	168
	5.23	제랄다와 거인	1	153
	5.28	혼아미카코의 오페리나콘서트	1	160
	6.13	콘트라바스의 향기	1	115
	6.20	세움의 환타지아	1	167
	6.25	심청이 놀부를 만났을 때	1	102
	7.16	별별외로움 시즌2	1	71
	7.10	유정아 관촬아	2	191
	7.22	미운오리새끼, 투명인간	2	178
	7.25	한국의 춤	1	101
	8.13	오페라음악여행	1	113
	8.27	우당탕탕종교집전	1	113
	8.5/6	왜 왜 질문맨	2	234
	8.8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1	149
	8.22	판소리 편 스토리	1	168
	9.5	아리랑 꽃	1	79
	9.26	별별외로움 시즌3	1	44
	9.30	나비효과 2014	1	40
	10.2	리투아니아로떠나는북유럽음악여행	1	98
	10.17	서울기타 콰르텟	1	72
	10.29	오랫차차순무가족의커다란순무	1	105
	10.31	뮤직트레킹	1	87
	11.7	마술사 홀라	1	170
	11.12	천방지축마법사	2	241
	11.21	라탱스	1	94
	11.26	더 정글	1	106
	12.12	아이팝키즈클래식 레드	1	170
	12.19	국악기의 재발견	1	170
	12.17	꿈을 파는 가게	2	244
	12.23	세계음악거장 아카펠라	1	163
	12.27	슈퍼우먼 콤플렉스	1	40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5	총계		38	3,797
	2.13	한, 중현악기양상블 '이심전심'	1	102
	5.8	이불꽃	2	170
	5.12	왜왜질문맨	2	175
	5.22	선인장...꽃	1	25
	6.30	부평두레우리마을민속놀이	1	47
	7.17	저...살림해도 될까요?!	1	68
	8.20	궁을 나온 조선의 정재	1	123
	8.26	니꼬리보까리좌	1	113
	10.23	링위의 가족	1	86
	12.18	한국인의 얼굴 탈	1	100
	12.9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1	113
	3.5	책키와 북키	1	113
	4.10	유희노리	1	93
	4.15	터치클래식	1	73
	4.29	매직버블쇼	2	229
	5.20	노랏	1	52
	6.24	넌 특별하단다	1	109
	7.3	사랑의 묘약	1	154
	7.8	오늘, 오늘의 노래	1	84
	7.10	원드림	1	164
	7.24	양반전	1	110
	7.29	세븐데이즈	1	103
	7.31	세빌리아의 이발사	1	170
	8.12	경상도비눗방울쇼	1	105
	8.28	비보이이야기	1	135
	9.15	키즈 클래식	1	135
	9.25	도는 놈 똬는 놈 나는 놈	1	136
	10.7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왕자	2	192
	10.28	풍랑주의보	1	71
	11.25	상생의 비나리	1	72
	11.11	신나는 썸씽페스타	1	34
	11.20	판소리한마당	1	99
	12.11	교과서클래식	1	107
	12.22	이상한 나라의 호두까기인형	1	135

연도	일자	공연명	횟수	참여관객수
2016	총계		21	1,916
	3.18	창문이 뚝 뚝 뚝	2	110
	3.23	씨앗이야기	1	113
	4.15	사랑방손님과바르코음악	1	124
	4.20	매직스크린상상극오버코트	2	218
	5.6	가족오페라 마법물약	1	110
	5.4	판타스틱매직쇼	1	113
	5.18	달달한어쿠스틱음악여행	1	60
	6.8	내 감정은 소중해요	2	248
	6.17	철공소에 핀 극장	1	124
	6.22	클라운들과 미술상자	1	113
	7.6	인천목관5중주 한여름밤의 꿈	1	74
	7.15	테마콘서트 시네마	1	105
	7.29	만보와 별별머리	1	105
	8.19	편편클래매직	1	124
	8.24	올라 퍼커션	1	30
	9.7	돌아온 박첨지	1	52
	9.9	무브먼트포사운드원	1	46
	9.21	바람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1	47

| 부평구문화사랑방 교육

연도	일자	교육명	횟수	참여인원
	총계		22	827
2012	8.7~8.10	2012 여름방학 이야기 해결단	1	43
2013	1.8~1.17	2012 겨울방학 이야기 해결단	—	39
	3.16~4.27	컬쳐오디세이 I -힐링무비카페	1	60
	8.5~8.14	고민 해결단 (이야기 해결단 II)	1	9
	10.21~11.26	컬쳐오디세이 II -미술을 맛보다	1	77
2014	1.13~1.16	2013 겨울방학 이야기 해결단	1	34
	3.16~4.27	컬쳐오디세이 I -힐링무비카페	1	60
	4.3~6.19 10.16~12.18	상 · 하반기) 꿈따리 오르프	1	60
	8.4~8.8 (2015)1.12~1.16	2014 여름 · 겨울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1	49
	10.16~11.6	클래식, 시대를 돈다	1	46
	3.15~11.22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1	45
	4.3~6.12	가족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쌍쌍댄스 (부모+자녀)	1	12
2015	5.14~7.30 9.17~12.3	상 · 하반기) 꿈따리 오르프	1	38
	5.14~5.21 10.1~12.3	상 · 하반기) 연극 나와라,뚝딱!	1	29
	8.17~8.21	2015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1	25
	10.6~11.24	가족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쌍쌍댄스 (부모, 친구)	—	14
	3.21~12.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1	36
	8.31~12.28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프로그램 (리허설 중입니다)	1	19
	2.15~2.19 8.8~8.12	봄 ·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1	50
2016	3.10~6.9 9.1~11.24	상 · 하반기) 꿈따리 오르프	1	20 18
	4.4~6.27	사랑방 인형극단	1	10
	9.8~12.8			9
	5.3~7.19	춤추는 사랑방 "렛츠 탭"	1	22
	9.20~12.13			20
	10.8~11.12	영화, 예술을 만나다	1	20
	8.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1	15 15 15

| 기타사업

연도	일자	사업명
2008	1.21	부평구 관광기념품 사업
	7.25	부평 삶의 문학상
2009	1.21	부평구 관광기념품 사업
	4.1	부평 삶의 문학상
2010	2.2	부평구 관광기념품 1차 공모
	4.1	부평구 작은 도서관 자원사업
	8.30	부평구 관광기념품 2차 공모
	10.15	부평 삶의 문학상
2012	7.1~12.31	2012 부평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2013	10.01~11.30	2013 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및 분석
2014	11.10~12.30	2014 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및 분석
2015	11~12	2015 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및 분석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명단

대표이사	박옥진
기획경영본부장	곽경전
기획조정팀	팀장 김유정 최성지 노수진 정하윤 정혜림 안효정
경영지원팀	팀장 김종삼 김희영 고혜령 한혜리 임연주
시설관리팀	팀장 이재홍 박광림 오금주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오길수 박재은 윤고은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공연사업팀	팀장 조현주 임정인 김경민 류정숙 신현태 허수정
지역문화사업팀	팀장 최형주 우사라 최은정 오인석 조이경 이광희
마케팅팀	팀장 공 석 이혜진 문서희 강민구 윤나예 배은영
사랑방운영팀	팀장 이미숙 한송희 박지범 강교리
무대기술팀	팀장 유인태 김종수 이기열 박진수 장정현 이정수 이재영
부평구립도서관장	이희수
부개도서관 운영지원팀	팀장 유은경 김이슬 강은숙 이진경 허지현 박돌희 최지혜 김동혁 신현정 임미현 박숙영 김봉수 고통환
부개도서관 총무팀	팀장 최인호 조경희 박미연 장선미 김중식 윤은택
삼산도서관	팀장 엄정귀 김미진 안은숙 한다혜 이지은 박명진 서유미 김민진 이은진 박수경 강예림
부평기적의도서관	팀장 공현정 심재원 김현 강윤경 장효정 백선애
부개어린이도서관	팀장 이경하 선인태 임다영 박순영
갈산도서관	팀장 이미영 김민욱 성지연 방소라
청천도서관	팀장 황소연 김미진 권민주 이진주 권오현 채희 신혜선 김예은
부평구청소녀수련관장	주정연
운영지원팀	팀장 박건호 이상현 이근열 김민채 송민지 조지은 배미란
청소년활동팀	팀장 강지미 김상협 서아름 박자영 유현석 이설아 박준 방선재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장	신소영
운영지원팀	팀장 문미경
교육문화팀	팀장 홍영인 이경아 진영임

부평구문화재단 10주년 백서

발행인	박옥진
발행처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
발행부서	기획조정팀
기획총괄	김유정
편집·집필	노수진
집필지원	안효정
감수	곽경전, 고동희
교열	김시언
디자인제작	아이드디자인 이혜경
발행일	2016년 12월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할 경우, 부평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내

Homepage www.bpcf.or.kr
Blog blog.naver.com/bupyeong_art
Facebook www.facebook.com/bpartcenter
Twitter twitter.com/bpartlove

